

# 경기운영전반낙제—올림픽 개최 의심스러워

## 성의있는 준비기대했으나 도착순간부터 실망

1992년 올림픽 개최국인 스페인에서 금년들어 두번째의 국제태권도 경기가 열린다는 것은 올림픽을 앞둔 국가로서 경기운영 전반에 걸친 예행연습을 겸한 것이라 생각되어 알차고 성의있는 준비가 되어 있으리라고 예견했던 우리의 기대는 마드리드 공항에 도착하는 순간부터 사라지기 시작했다.

비록 열흘간의 짧은 훈련기간이나마 우리 대표팀 코치들은 선수들의 체력과 체중관리는 물론 기술분야에서도 기본기를 바탕으로 시차적응을 위한 야간훈련까지 강행하면서 필승의 신념으로 합숙훈련을 마치고 11월 9일부터 11일까지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개최되는 제4회 월드컵대회(여자 제1회)에 참가하기 위해 11월6일 12시40분 KAL 907기 편으로 마드리드를 향해 출발했다.

예조해 대표팀 감독

(경북태권도협회부회장)



대한태권도협회 임원들과 팀 관계자들 그리고 선수단 가족들의 환송 속에 우리 선수단은 필승을 기약하며 출발한지 16시간 40분만에(현지시간 6일 21시 25분) 마드리드 공항에 도착했으나 의당 나와있으리라고 생각했던 스페인의 대회조직위원회에서는 공항 영접도 하지 않았으며 선수단 수송차량도 대기해 있지 않았다.

숙소로 정해진 CENTRO NORTE HOTEL에 전화를 걸고 법석을 떨고있는 20분 후에야 도착한 수송차량으로 우리선수단 일행은 호텔에 도착했다. 그러나 선수단의 방 배정은 되어 있지도 않았고 호텔측에서 우선 빈방에 투숙하면 다음날 방을 재 배정해 준다는 약속을 믿고 따로따로 여장을 풀었으나 결국 방의 재 배정은 말 뿐이었다. 첫날 투숙할 때 배정된 2층에서부터 12층까지 그리고 본관에서 푹 떨어진 별관 6층에 머문채 선수관리와 연락사항에 많은 어려움을 겪으며 마드리드에서의 나날을 보내야 했다.

우리보다 늦게 도착한 각국의 많은 선수단 역시 방 배정을 받지 못해 5시간 이상이나 호텔 로비에서 대기하고 있는 형편이었고 지칠대로 지친 선수들이 호텔 응접용 쇼파에서 잠자는 모습을 보고 우리는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해야 했다.

스페인의 대회조직위원회가 수용능력도 없는 호텔에 각국 선수단 전원을 투숙하도록 무리하게 주선함으로써 코치와 선수들이 한방에서 4,5명씩 투숙하는 콩나물 시루가 되어버렸다.

각국 선수단의 입장이나 편의는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네들이 편할대로 모든 일을 처리하는 꼴은 울화통이 터질 지경이었다.

나중에 알게된 일이지만 우리선수단이 도착할 때 공항에서 호텔까지 타고왔던 수송차량도 일본 선수단이 예약한 수송차량으로 한국선수단의 수송차량이 아니었음을 전해 듣고 마드리드 공항에서 미아가 될뻔한 것을 생각하니 아찔하기만 했다.

도착한 다음날에도 호텔에서 제공한 조반은 우리의 식성에 맞지도 않는 바게뜨(딱딱한 빵) 한 조각과 커피 한잔으로 끝나야 하는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 우리 선수단은 그래도 대한태권도협회에서 준비해준 김치며 깻잎과 참치가 있어서 현지 사범에게 부탁하여 쌀과 고기 등을 구입해서 간단

히 밥을 지어 먹을 수 있었음은 그나마 다행한 일이었으며 경기가 시작되어 시간이 촉박한 날엔 겨자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기도 했다.

가끔 한국인 교포가 경영하는 한국식당에서 한국식 식사를 하기도 했으나 엄청나게 비싼 식대는 선수단의 재정을 압박하기도 했다.

대회조직위원회에서는 각국 선수단이 도착되고 있는 대회 하루전 까지도 안내원 한 사람도 호텔에 파견해 놓지 않는 무성의와 호텔측의 불친절로 각국 선수단은 홍역을 치러야 했다.

대회 하루전인 8일 오전 11시경에야 대회조직위원회에서 등록업무를 시작한다는 안내문을 호텔 입구에 게시하고 업무를 시작하긴 했으나 막상 업무에 임하는 임원 중에 영어를 하는 사람이 없어 스페인어를 모르는 선수단들은 많은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대표자 회의는 8일 오후 9시에 개척키로 되어 있었다. 그러나 대회조직위원회에서는 9시40분에야 도착하여 회의를 진행하려 했으나 준비미흡으로 회의마저 지연시켜 각국 대표들로부터 빈축을 사기도 했다. 대표자회의 역시 대진표조차 준비하지 않아 회의대표로 참가한 해외거주 한국인 사범이 즉석에서 대진표를 작성하여 회의를 진행하는 촌극을 빚기도 했으며 회의진행 또한 일반적으로 처리해 각국 대표들이 당혹하기도 했다.

숙박이나 수송관계에 대한 모든 질문에도 책임지고 답변할 사람이 없어 회의를 중단한후 MARCO 스페인 태권도협회장을 데려와서 답변을 하긴 했으나 각국 대표들의 건의사항도 질문도 묵살한 채 일방적으로 자기네들이 준비해둔대로 따라야 한다는 식의 답변으로 일관하여 예의도 없고 거만하기만한 MARCO회장의 태도에 불쾌하기까지 했다.

9일부터 막상 대회가 시작되었으나 경기장에 깔아놓은 비닐바닥이 너무 미끄러워 선수들이 할기도중 계속 넘어지는 등 제대로 기술발휘도 할수 없고 위험부담이 크다고 생각되어 한국과 미국을 위시한 8개국의 감독들이 협의하여 경기장에 설치된 비닐바닥 철거를 건의하였으나 그 역시 대회운영부에서 결정짓지 못하고 MARCO회장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어 직접 MARCO회장을 만나



건의하였더니 오후에 철거를 하겠다고 약속을 하였으나 경기가 끝날 때까지 결국 비닐바닥은 철거되지 않았다. 이렇듯 모든 경기운영이 한사람의 독선에 의해 이루어 지는가 하면 경기장 양 코트에 설치되어 있는 전광판마저 사전 점검을 하지 않았는지 기록이 제대로 되지 않아 전광판의 수치가 작동되지 않는 부분은 종이로 그려서 부착하는 등 경기운영 전반에 걸쳐 웃지 못할 상황이 자주 일어나기도 했다.

개회식이나 폐회식 또한 너무도 진행이 미숙하여 한국의 어느 시골대회 개폐회식 같은 느낌을 주기도 했다. 1992년 올림픽 개최국가로서 이러한 대회운영으로 과연 올림픽을 치루어 낼 것인지 심히 우려되어 세계태권도 연맹의 좀 더 적극적이고 권위있는 대회운영의 관리 및 지도감독이 있어야 되리라 사료된다.

### 예의와 깨끗한 매너로 종주국위상 높여

우리대표선수들은 금년 4월에 선발되어 6개월 동안의 긴 기간동안 국가대표로 선발될 당시의 체급이 아닌 상·하체급으로 국내 각종 경기대회에 각팀의 선수로 출전하므로써 짧은 훈련기간중에 초과된 체중의 감량때문에 남녀선수가 어려움을 당해야 했고 낮과 밤이 다른 마드리드에서 시차적응을 하지 못하는 3중고를 겪어야 했다.

이러한 어려움속에서도 우리선수들은 평상시에 같고 닮은 기량과 매너로 관중들의 갈채를 받기도 했으나 점점 성숙되어 가는 각국 선수들의 기술향

상은 우리선수들로 하여금 새로운 각오와 기술의 연구개발로 종주국 선수로서의 위상을 확립해야 되리라 믿는다.

특히 중화대북이나 스페인 선수들의 기량향상은 종주국에 대한 위협적이고도 도전적인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것이며 중화대북 여자부의 우승은 지난 아시아 선수권대회 우승에 이어 우리 한국 여자부 선수들에게는 가장 어렵고도 힘든 강적이라 하지 않을수 없다.

우리도 한국 여자태권도의 활성화를 위해 좀 더 많은 여자부태권도대회를 개최하여 우수선수를 발굴하여야 할것이며 일부 시,도에는 다소의 어려움이 있더라도 전국체전에 여자부태권도경기가 하루 빨리 채택되어야 하리라고 본다.

경기장에서 만난 중화대북태권도협회 曾祥澤 전무이사는 이번 월드컵대회 출전을 위해 지난 아시아 선수권대회가 끝난후 계속해서 선수들에게 강도높은 훈련을 시켰다고 하며 이번대회의 우승이 행운에 의한것이 아니라 피나는 훈련의 결실이라고 말하고 92년 올림픽을 대비해서 귀국하는 즉시 훈련에 임할것이라고 귀띔하고 오늘의 중화대북 태권도가 급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것은 오로지 종주국에서 초빙한 한국 코치들의 공로라고 칭찬을 곁들이기도 했다. 그러나 종주국인 고국을 떠나 머나먼 이국 땅에서 타국 선수들을 지도하여 고국의 후배선수들에게 패배의 쓴잔을 안겨주는 우리 사범들의 심정을 생각할때 우리는 새로운 각오와 신념으로 종주국 태권도의 전통을 이어나가야 되

리라생각된다.

우리 한국팀은 이번 월드컵대회에서 남자부 금5으로 종합우승과 여자부 금2개로 종합2위의 성적을 거두기는 했으나 날이갈수록 줄어드는 금메달의 수는 우리에게 하나의 교훈을 주기도 한다.

그러나 우리선수들은 이번대회를 통해 예의바르고 깨끗한 매너를 외국선수들에게 보여 줌으로써 중주국의 위상을 더 높였다고 자부하고 싶다.

전 경기를 통해 가장 멋있고 깨끗한 경기를 치른 남자부 밴텀급의 합준선수는 스페인 선수와의 준결승전에서 고도의 기술과 정확한 공격으로 스페인선수를 제압하였으나 3,000여명의 스페인 관중들의 광적이고도 일방적인 응원에는 20명 우리선수단의 응원을 함성과 북소리 그리고 휘파람으로 물어버린채 심판원들의 상황판단마저 흐리게 할 정도였고 경기장을 열광의 도가니로 몰아넣어 우리가 영화에서나 보는 투우장을 방불케 했다. 스페인 관중들의 열기는 응원의 도가 지나쳐 2번코트의 경기마저 중단하는 비극(?)을 연출했다. 이러한 와중에 원만한 경기를 하고도 판정패 당한 합선수는 아무런 불행없이 두 손을 번쩍든채 웃는 낯으로 경기장을 나왔다. 이는 사실상 게임에는 이겼다는 합선수의 의젓함이었다. 합선수는 이 경기를 패함으로서 동메달에 그쳤으나 의젓하고 당당하게 그리고 판정에 승복한 예의바른 행동이야말로 금메달보다도 더 값진 동메달이었고 합선수의 사기진작을 위해 경기장을 나오는 합선수를 목마를 태워 우리선수단 쪽으로 나오는 한국팀 코치들의 모습 또한 중주국 지도자다운 한복의 그림이라고 생각되게 하였다. 이것이 바로 중주국선수단으로서 외국선수단에게 보여준 금메달감이 아니었나 싶다.

이번 경기를 통해 감람의 열세를 투기력과 기술로 우승한 선수단들과 비록 메달권에는 진입하지 못했으나 최선을 다해준 남녀선수 그리고 경기중입은 부상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인내하고 극복하며 경기에 임해준 우리선수단에게 아낌없이 찬사를 보낸다.

## 입원 · 선수선발에 신중기해야

앞으로 우리는 중주국이라는 입장에서 모든 국

제 경기대회에 출전함에 있어 단장, 감독의 선정이나 출전선수의 선발에 신중을 기해야 되리라 보며 특히 단장의 선정에는 경기를 알고 선수를 아는 단장이나 선수단을 사랑으로 대할줄 아는 단장을 선정해야 된다고 본다. 자만심과 이기심과 권위주의 의식은 선수단의 사기만 저하시킬뿐 아무런 도움이 되지않는다고 사료되는바 선수들은 물론 입원까지도 팀웍을 이룰수 있는 선수단 구성을 바라는 바이다.

끝으로 날이 갈수록 선진 태권도한국의 경기기술을 연구분석하여 다양한 기술과 투지력으로 도전해 오는 외국선수들로부터 중주국 태권도의 위치를 지키기 위해서 장기적인 안목에서 볼때

첫째, 선수선발에 있어 신중함과 선수선발시기를 고려해야 하며

둘째, 체력이나 신장의 열세를 극복할 수 있는 기술개발이 필요하며

셋째, 충분한 재정확보로 장기적으로 훈련을 실시해야 하며

넷째, 시차 극복을 위한 여유있는 현지출발

다섯째, 체중 감량에서 오는 지구력, 순발력, 체력저하를 방지하기 위한 감량의 적정선을 정해야 된다고 본다.

이러한 모든 약조건을 해결하는데는 우리의 힘만으로 되는 것도 아니며 우리 태권도인만이 책임져야 될 일이 아니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적극지원되어야 되리라 생각된다. 다른나라에서는 태권도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정부차원의 지원이 대단하다는데 중주국에서 이래야만 되는가?

지금까지 국산품을 천시해 오던 우리의 국민성이 태권도도 국산(국기)이어서 천시하는지? 많은 경기종목중에서도 금메달을 가장 많이 획득할 수 있는 태권도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정부의 적극적인 후원이 기대된다. 이제 국산품을 천시하는 시대도 지나지 않았나 본다.

이번 월드컵대회 기간중 입원의 일원이 아니면서 개인자격으로 동행하여 선수들의 뒷바라지에 애써준 김현성 사범과 스페인 한국교민회 김홍구 회장 VALENCIA의 김진학사범의 많은 스페인 거주 한국사범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함을 전한다.

# 남자부 4연패, 여자부 대만에 밀려 준우승

## 한체대체육관에서 10일간합숙훈련

대표선수단은 대회지로 떠나기에 앞서 10월 24일 부터 11월 2일까지 10일간 둔촌동에 있는 관광호텔에 숙소를 정하고 한국 체육대학 체육관을 이용, 합숙훈련에 들어갔다.

10일간의 짧은 일정이라 선수들의 기초 체력보강, 기술 보강훈련, 체중조절 그리고 현지 적응능력을 길러주는 훈련과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도록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훈련이 이루어졌다.

대회에 관한 정보로는 11.9-11까지 3일간 마드리드에서 경기를 하는 것과 Centro Norete 호텔에서 묵는 것 이외에는 아는 바가 없었다. 따라서 체급별 경기일정 출전선수의 전력내용 등 경기에 직접 작용되는 내용은 현지에 도착해서 알아볼 수 밖에 없는 실정 이었다.

남자대표팀 코치 유수철  
트레이너 윤오남  
여자대표팀 코치 김영희  
트레이너 윤준철



## 총 17개국이 참가

11월 8일 오후 6시부터 8시까지 대진 추첨 및 대표자회의가 있었다. 대표자 회의에서는 경고 사항이 강도 높게 지적되었다. 이번대회 참가국은 17개국이었으며 남자팀은 한국을 경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으며 주축국 스페인은 오랫동안 합숙 훈련을 하면서 전력을 다져와 2-3체급을 노리는 등 조심성을 보였다. 여자팀은 지난 9회 아시아 선수권 대회 우승팀 대만의 여유있는 모습을 엿볼 수 있었다. 금 4개를 따냈던 대만은 이번에도 금 4개를 목표로 하고 있어 한국팀을 긴장하게 했다.

## 한국 첫날 남자 금 2, 여자 동 2

9일 경기는 남자부는 플라이급 김철호, 웰터 이현석, 여자부는 핀급 유수진, 페더급 박선영이 출전하게 되었다. 경기는 9시부터 선수단이 묵고 있는 (Centro Norete)호텔에서 자동차 거리로 20분 정도 떨어진 마가리노스 체육관에서 열리게 되어 있었다.

### 남자 플라이급 김철호 금메달

칠레와 프랑스의 첫경기로 시작되었다. 한국의 김철호 선수는 약체로 보이는 유고의 KLIAIC 선수에게 4:0승하며 가볍게 8강에 진입, 이어서 미국의 PEJO 선수에게 3:0승 4강에 진입했다. 준결승전에서는 복병으로 나타난 멕시코의 OCTVIO VILLA를 힘겹게 1:0으로 승리 결승에 진출하였다. 스페인, 이집트, 캐나다 선수들을 물리치고 결승에 진출한 요르단의 AL-ZOUBI 선수를 맞는 김선수는 앞발 들어찍기, 뒤차기 등으로 공략 4:0으로 일방적 승리 첫 금메달을 차지했다.

### 남자 웰터급 이현석 금메달

이현석 선수는 체중 조절에서 회복이 되지 않은 듯 몸이 무거운 상태에서 경기에 임했다.

예선전에서 부턴 터어키의 OZHAN 선수는 이현석 선수에게 겹을 먹고 후진 스텝하다 원발 들어 찍기에 득점을 내주었다. 게임이 잘 풀리지 않은 이현석 선수에게는 다행이었다.



이현석, '89세계대회에 이어 월드컵에서도 웰터급석권

8강전은 이탈리아 PEZZOLLA 선수와 맞붙어 역시 고전 끝에 1:0판정승 하였다.

4강전에는 9회 세계선수권대회 준우승자를 물리치고 출전한 칠레의 NORABUENA 선수를 맞아 경기 감각을 되찾으며 4:1 판정승하면서 결승에 진출 하였다. 결승은 캐나다의 이재훈 선수와 경기를 하게 되었다. 9회 세계대회 라이트 급에서만 체급 올린 이 선수는 경쾌한 스텝과 앞발과 오른발 앞 차기로 깨끗한 득점을 올리며 결승에 진출하였다.

경기는 1회부터 이현석 선수의 공격과 이재훈 선수의 받아 차기로 경기의 흐름을 우세하게 잡으며 1회전을 1:1, 2회전을 우세, 3회전을 오른발 앞 차기로 득점하여 2:1 판정승하여 두번째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 여자 핀 급 유수진 동메달

유수진 선수는 국제 경기 경험이 없어 이번 대회가 데뷔 무대였다. 8강전을 부전승으로 바로 4강에 진입한 유수진 선수는 대만의 Wu선수를 맞아 결승진출을 놓고 일전을 벌였으나 체력과 기술의 부족으로 3:1로 판정패하여 3위에 머무르고 말았다.

## 여자 페더급 박선영 동메달

박선영 선수는 당초 금메달을 예상하고 있었다. 네덜란드의 MAITIMU를 맞아 받아치기 공격등이 적중하면서 3:1로 승리하고 4강진출했다.

준결승전에는 강호 대만의 TUNG 선수를 맞아 타이밍을 잘 맞추며 오른발 몸통으로 득점을 올려 3:동점3이었으나 경고로 패하여 아쉬움을 남겼다.

## 2일째 경기 남자 종합우승확정, 여자부 대만에 밀려

2일째 경기는 남자부가 밴텀급 페더급 라이트급, 여자부 플라이급 밴텀급 라이트급 웰터급 경기가 있었다.

### 남자 밴텀급 함준 동메달

함준 선수도 체중을 조절하여 컨디션 상태가 좋은편이 아니었다. 첫 상대는 이란의 SAIID ABZAN 선수를 맞아 고전끝에 1:0판정승으로 8강에 진출, 요르단의 HUSSEIN ALQADI 선수에게 뒤차기 공격 및 얼굴공격이 주효하여 3:1로 판정승 하고 준결승전에 진출했다. 첫날 메달을 따지못해 침통해 있던 스페인 관중들은 서서히 흥분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초점은 밴텀급 준결승전에 쏠려되었다. 관중들의 함성과 응원에 함선수는 흔들렸고 접점을 벌인끝에 3:3무승부였다. 그러나 경기도중 응원에 힘입어 기고만장한 스페인 선수에게 들어오라는 손짓을 해 경고를 받아 패하고 말았다. 용광로 처럼 달아오른 스페인 관중들의 함성이 마가리노스 체육관을 떠나 가게 했다. 스페인 ALONSO 선수는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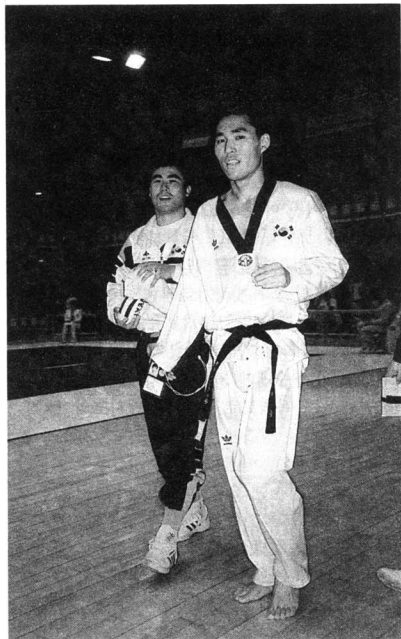
### 남자 페더급 하태경 금메달

부전승으로 8강에 진출한 하태경 선수는 착실한 경기운영과 좋은 기술로 경기를 이끌었다. 8강전에서 캐나다의 TINO DOSSANTOS 선수를 맞아 얼굴과 오른발 앞차기 공격으로 2:0으로 판정승을 거두고 준결승에 진출하였다. 터어키의 BEKIR YERLISU 선수에게도 2:0 판정승을 거두고 결승에서는 미국의 KEVIN PADILLA 선수에게 돌려차기 등으로 점수를 올리며 승리, 금

메달을 목에 걸었다.

### 남자 라이트급 양대승 금메달

한국의 양대승선수는 노장답게 경기를 잘 풀어 갔다. 이태리 BRIZI 선수에게 3:0으로 패승을 거두고 이란선수를 누르고 올라온 멕시코의 JUAN ALVAREZ 선수에게 고전끝에 1:0으로 승리를 거두었다. 준결승전에서는 체력이 우수한 터키의 SINAN GONULRAZI 선수에게 힘에서 밀리는 경기를 하며, 3회전 막판에 득점을 올려 힘겹게 판정승을 거두고 결승에 올라 미국의 T. CON NOLLY 선수에게 받아차기를 성공하며 3득점을 올려 우승하였다.



양대승, '89월드컵에 이어 대회2연패

### 여자 플라이급 진용순 은메달

국제경기 대회에 첫 출전한 진 선수는 경기를 쉽게 풀지 못하였다. 스페인의 LOLES BALLE

TER 선수를 맞아 앞차기 기술 하나의 단조로운 공격으로 득점을 얻어 판정승을 거두었다. 4강전에서는 이집트의 RALIA ATIA 선수를 맞아 고전끝에 1:1 동점에 우세승을 거두고 결승에 진출, 대만의 HUL WEN TANG 선수에게 1:0으로 밀리고 말았다.

#### 여자 밴텀급 박동선 은메달

박동선선수는 신체 조건의 열세를 극복하기 위하여 기압과 패기로 맞선 경기를 해냈다. 8강전은 유고의 BARJAKTAREVC 선수에게 2:0판정승으로 준결승전에 진출, 네덜란드 선수에게 다져서 저물어 가던 경기를 극적으로 3:2로 역전승을 거두고 결승에 진출했다. 결승에서 MEI HUA CHEN 선수에게 2:1로 판정패해 아깝게 준우승에 그쳤다.

#### 여자 라이트급 박정희 금메달

5세급 경기가 끝났는데도 한국은 금메달을 한 개도 건져내지 못하고 초조해 있었다.

라이트급에 출전한 박정희 선수는 밝은 표정으로 상대선수를 압도했다.

상대 선수보다 먼저 공격을 하면서 기선을 제압한 박선수는 8강에서 네덜란드의 MIN GELS를 맞아 일방적인 경기끝에 5:0판정승. 4강에서는 32살의 주부선수(고교교사)인 캐나다의 VET-ESE BAERT를 맞아 접전끝에 2:1판정승을 거두고 결승에 진출하였다.

결승전은 대만의 스타 YI AN CHEN 선수와 맞붙었다. 올림픽 우승, 9회 세계대회 3위, 아시아 선수권 우승 등 괄목할 만한 성적을 가진 선수였기에 코칭 스템은 긴장된 가운데 경기를 맞att다.

1회전은 격전이었다. 앞차기와 뒤차기로 1:1 득점을 주고 받는 가운데 대만선수의 우세, 2회전은 박정희 선수의 선제 공격이 주요한 가운데 우세, 3회전은 접전 끝에 박정희선수가 간발의 차로 우세승을 거두었는데 한국으로서는 천신 만고 끝에 얻어낸 첫번째 금메달이었다.

#### 여자 웰터급 이성미 탈락

한국의 이성미 선수는 신체조건의 열세를 면치 못하고 스페인 선수에게 0:2로 판정패, 1회전에서 탈락하고 말았다.

## 마지막 날 경기

### 남자 금1, 동2추가하며 종합우승, 여자 금메달 1개 추가

#### 남자 핀급 김인경 금메달

김인경 선수는 체중조절로 많은 고생을 하며 경기에 임했다. 16강전에서 유고의 JURICIV 선수에게 1:0 판정승을 거두었으나 다소 몸이 굳어 있었다.

8강전에서는 독일에 SCHUCHAROT 선수에게는 경쾌한 스텝과 뒤차기, 들개차기 공격으로 3득점을 올리며 가법계 4강에 진출, 브라질 AIY-SO YAMAGUTI 선수에게 일방적인 공격끝에 3:0 판정승.

결승에서는 미국 JUAN MORENO 선수에게 2:0으로 완승을 거두며 우승, 한국의 5번째 금메달 주자가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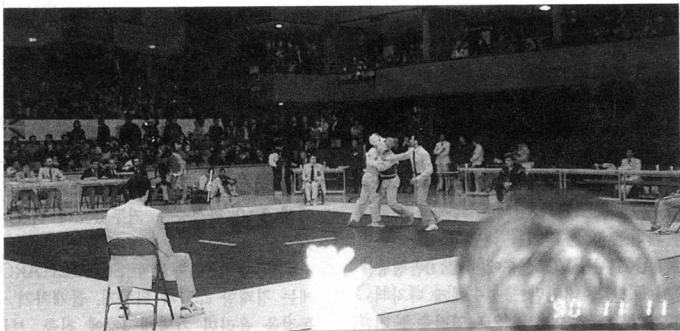
#### 남자 미들급 박은석 동메달

한국팀의 주장인 박은석 선수는 다소 긴장, 제기량을 다 발휘하지 못한 아쉬움을 남긴 경기였다. 첫경기는 9회 세계대회 은메달리스트인 칠레의 ZENTENO 선수를 맞아 얼굴 들어찍기 공격과 몸통 공격으로 2:0 판정승을 거두었고 칠레는 기대를 걸었던 선수가 떨어져 침통한 분위기였다. 8강전에서는 독일의 LIETSCHKE 선수에게 고전끝에 2:1로 판정승을 거두고 준결승전에 올라 스페인의 JUAM SOLIS 선수를 맞att다. 스페인 관중은 또다시 열광하기 시작하였고 SOLIS 선수는 여기에 부응하듯 한층 쇼 맨십이 강했다. 결국 박은석선수는 쫓기는 경기 끝에 3:4로 패해 3위에 그쳤다. 스페인은 두번째로 한국을 물리치고 금메달을 획득하였다.

#### 남자 헤비급 김광섭 동메달

거인들의 경기인 헤비급에서 한국의 김광섭 선수는 가장 작은 체구의 선수였다. 첫번 상대는 대만의 SY HSIEN KU 선수와 경기서는 대등한 힘으로 오른발 받아차기와 오른발 회축으로 각각 득점 2:0으로 판정승. 8강전에서 캐나다의 JULIO BASQUEZ 선수와 접전 끝에 4:2판정승을 거두었다. 준결승전에서는 독일의 ONIVER SCHAWA 선수와 경기시작 직후 먼저 오른발 회





축공격으로 1득점 기세를 올렸다. 이에 김선수는 약간 기세가 꺾인듯 보였다. 그러나 예선 경기에서 체력소비가 많았던 탓에 빠른 공격을 할 수 없었고 느리고 힘없는 공격은 통하지 않고 넘어지기에 급급 했다.

결국 3회전 2:1로 뒤지고 있는 상황에서 체력 소모를 만회치 못한 김선수에게 RSC 패가 선언 되어 3위에 머무르고 말았다.

#### 여자 헤비급 백영미 예선탈락

한국의 백영미 선수는 예선전에서 중국의 CHIN YU WANG 선수에게 스피드를 잡지못하고 몸통공격을 허용 1:0으로 판정패 하고 말았다.

#### 여자 미들급 양인덕 금메달

양인덕선수는 8강전에서 유고 IVJEZDANA BARIOS 선수에게 3:2로 힘겹게 이기고 4강에 진출해 미국의 JADA MONROE 선수에 고전 끝에 1:1 우세승을 거두고 결승에 진출, 대만의 HUI TING TANG 선수와 맞붙게 되었다. 대만 선수는 캐나다의 KING 선수와 대전 중 팔이 골절, 경기 불능 상태가 되어 양인덕선수는 운 좋게 기권승을 거두고 여자부 2번째 금메달을 획득하였다.

### 대회를 마치며

#### 여자부 신체조건, 체력갖춘 선수 길러야

이번대회는 전반적으로 고전한 경기가 많았다.

많은 선수가 새로운 선수로 교체 되었는데 이는 선수층이 두터워지고 있고 경기력이 향상 되었음을 간접 시사하고 있었다. 또한 이들은 한국을 이겨야 금메달을 딸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국선수들에 대한 분석은 철저히 하고 있었다.

이번 대회를 통해 볼 때 여자부의 경우 기술, 신체조건, 체력 어느것 하나 앞서는 것이 없어 보인다. 이것이 솔직한 견해다. 최소한 두가지 조건을 갖춘 선수를 찾아 키워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선발전 방식도 장기적인 포석을 가지고 개선해야 하며 전문인을 두고 연구하도록 해야 할 것 같다.

남자부는 월등한 신체조건을 극복할 수 있는 기술 개발해야

남자부의 경우 아직은 외국의 추격을 물리치고 있으나 라이트급 이상의 중량급은 체력에 밀려 기술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현실이다. 우선 체력을 중요시 하면서 좋은 기술을 배워야 함은 물론이거니와 반대로 외국의 월등한 신체조건을 극복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여야한다.

그리고 이제는 외국선수들의 기량을 지속성 있게 분석하는 전문인이 필요할 때가 왔다고 본다.

## 여자 선수들의 정상 복귀를 위해

지난 6월과 11월에 대만과 스페인에서 개최된 제9회 아시아 선수권 대회와 제4회 월드컵 대회를 마치고 귀국한 한국 대표선수단 중 여자팀의 임원과 선수들의 침통한 모습을 보고는 많은 느낌을 받았다.

여자팀의 부진을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었다고는 하지만 막상 결과가 현실로 나타나다 보니 충격이 아닐 수 없다.

국제무대에서 여자부가 다른 나라들의 위협을 받은 것은 이미 오래전 일이고 추월 당한 것은 88 서울올림픽 때부터다 기억된다. 당시 미국이 금메달 3, 은메달 1, 동메달 2개를 얻어 종합 우승을 하였고 이어 한국이 금메달 2, 은메달 3, 동메달 2개로 준우승, 대만이 금메달 2, 동메달 2개로 3위를 차지 했었다.

이때 여자팀의 패배에 대한 분석을 “장신자에

### 이인재

성신여자대학교 태권도부코치



**문제점 1. 여자들의 신체적·심리적 특수성에 맞는 지도방법**  
**2. 지역별 안배형식의 여자부 임원 선발**  
**대 책 1. 정보 및 기술전략 전담지도자 양성**  
**2. 전국체전 종목채택**  
**3. 새로운 기술연구자세와 올바른 태권도 정신 심어주는 풍토조성**

대한 실전 경험이 부족하여 과감성의 결여에서 나온 결과"라 하였다. 그후 89년 서독에서 열렸던 제3회 월드컵(7월 20일-23일)에서는 비록 선발전 선수들이 2진으로 구성된 4체급에 한하여 출전하였으나 선수 전원이 모두 동메달에 머물렀다.

이렇듯 최근 각종 국제대회에서 연속되는 참패의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이며 그 대책은 어떤 것인가를 여자팀을 맡고 있는 지도자로서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다.

## 1. 문제점

### 가. 합숙기간과 훈련내용

손자병법에 [知彼知己者 百戰不殆] [不知彼而知己者 一勝一敗] [不彼而不知己者 每戰必敗]라는 말이다.

시합에 출전하는 선수들이 과연 이 짧은 합숙기간을 통하여 얼마만큼 외국선수들의 기량과 장·단점에 대한 정보를 숙지 할 것인가 하는 문제와 또한 감독·코치들도 어느 정도의 정보와 지식을 갖고 지도하는지에 대해 질문을 하고 싶다. 자연적으로 합숙기간이 짧다보니 선수 개개인의 성격, 스타일, 장·단점에 대하여 파악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선수들과 코칭스태프의 호흡이 맞지 않고 확고한 전술을 세우지 못한 상태에서 게임에 출전하다보니 불안한 마음에서 경기에 임하게 되는 것 같다.

아울러 여자선수들의 입장에서 볼 때 남자 선수

들과 훈련하는 과정에서 기술적인 면이나 팀웍의 측면에서는 배울점이 있다고 인정하지만 합숙의 전반적인 과정이 남자선수들의 위주로 진행됨에 따라 행어나 무관심 속에서 오는 사기저하, 소외감을 느끼지 않을까 우려가 된다.

여자들은 여자들만이 간직하고 싶은 비밀이 있듯이(?) 전체적인 팀웍에 해를 끼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남자 선수들과 분리하여 여자 선수들만의 신체적, 생리적, 심리적 특수성에 맞게 기술·전술을 효과적으로 지도 해야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 나. 임원의 선발기준

가능한 지도자란 인격수양은 물론 자기분야에 있어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선수들로 하여금 그의 능력을 인정 받을 수 있는 신뢰감이 있어야 한다.

국가를 대표하는 유능한 선수들을 체계적인 지도하에 목적달성 할 수 있는 능력있고 책임감있는 지도자를 선발하는 과정이 더욱 더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또한 선수들도 지도자를 신뢰하며 훈련에 임했을 때 만이 훌륭한 성과를 올릴수 있다고 믿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별 안배형식으로 여자팀과는 무관한(?) 임원이 선발되는 사실을 종종 볼때마다 문제의 심각성을 느낀다. 진정 태권도 종주국의 앞날에 대하여 걱정하는 마음이 있다면 이와 같은 풍토를 반드시 개선해야 할 것이다.



## 2. 대책

### 가. 외국선수들에 대한 정보입수 및 기술전략 전담지도자 양성

현재 우리나라 국가대표 여자 선수들은 89년 세계 선수권 대회 이후 세대 교체된 선수들로서 몇몇 선수를 제외하고는 처음으로 태극마크를 가슴에 달았기 때문에 국제 경험과 외국 선수들의 정보에 어두운 실정이다.

따라서 장기적인 안목으로 볼 때 과감한 투자가 필요로 할 때라 생각되며 실전 경험만큼 중요한 것이 없기 때문에 전지훈련 및 친선경기를 통하여 국제무대의 흐름을 익히며 좀더 확실한 정보 입수와 그들의 성장을 주시해야 할 것이다. 또한 뛰어난 체력을 바탕으로 전개되는 그들의 기술을 철저히 분석하여 신장의 열세를 극복 할 수 있는 전술을 선수 자신은 물론 코칭스태프를 구성하여 전문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지도자를 양성해야 할 필요성을 갖는다.

### 나. 전국체전 정식종목 채택돼야

사실 태권도는 88서울 올림픽 시범종목으로 그리

고 92바르셀로나 올림픽에서도 또다시 시범종목으로 채택되는 등 태권도가 세계인의 스포츠로서 발전되고 있다. 이렇게 외형적으로는 발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종주국인 우리나라에서 태권도에 대한 이해는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그러므로 대한 태권도협회는 물론 정부의 재정적 지원으로 태권도의 진정한 가치에 대하여 적극적인 대국민 홍보 사업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 그리고 언제나 대두되고 있는 전국체전 정식종목 채택에 대해 여러가지 어려운 점이 있겠지만 올림픽의 시범종목, 세계선수권 대회의 정식종목으로 채택되어 있다는 사실에 비추어 보아 모든 장애 요인을 뛰어넘어 하루 빨리 정식종목 채택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 다. 새로운 기술연구와 태권도정신 심어주는 지도자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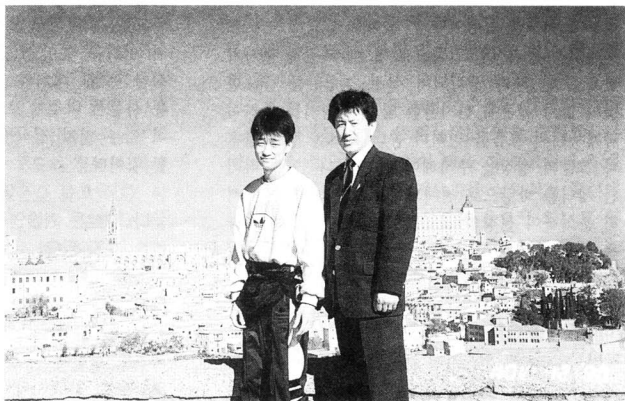
특히 감독·코치들은 태권도 종주국의 지도자로서 사명감과 책임감을 갖고 새로운 기술을 연구하는 자세는 물론 지나친 승부욕에 집착한 나머지 태권도 정신에 어긋나는 풍도가 조성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태권**

## 황소같은 힘과 포인트위주의 기술로 공격해오는 외국선수에게 속수무책인 한국선수들

태권도 경기는 여러가지 모양의 선제차기 기술과 받아차기의 기술로 이루어진다. 차기기술의 핵심적 요소는 첫째, 거리 둘째, 각도 셋째, 시간이다. 선수가 어느정도 수련을 하면 거리와 시간은 맞추기가 쉽게 적응을 한다. 그러나 각도는 많은 시간을 두고 수련을 쌓아야 안으로 빠져 차고, 밖으로 빠져차고, 뒤로 빠져차는 각을 잡을 수가 있다. 태권도 경기를 관람할 때 거의 받아차기 기술에서 크고 감쪽한 묘기가 연출되는 득점 장면을 볼 수 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태권도 경기가 엉덩이 이상의 몸통 부위를 밀어서 넘어져도 득점을 주기 시작하였다.

김현성

(성동고등학교교치 · 구룡체육관장)



마드리드에서 애제자 김인경(핀급우승)과 필자.



나의 기억으로는 85년부터 89년까지 국내태권도 경기에서 유행되었던 것 같다.

1989년도에는 일부 지도자들 사이에 앞발 밀어차기와 뒷발 밀어차기의 기술은 공격자는 보호를 받아 좋으나 큰 각의 기술로 받아칠때 다치거나 넘어지므로 태권도 경기에 퇴보를 가져 왔다는 비판이 일어 90년도에 개정된 경기 규칙에서는 국내 경기에서는 허리부위와 등부위가 밀어차기로 넘어졌을때, 허용부위는 위험한 상태까지 갔을때 주심의 카운터에 의해서 득점이 주어지고, 등부위는 공격 금지 구역이 되었다. 이 결과 많은 발전을 가져와 각이 큰 회축이 살아나고 뒷차기 기술이 발전되었다.

이번 스페인 월드컵 대회는 개정되지 않은 W.T.F 경기규칙으로 경기가 진행되었다. 국제대회에 참가한 전임 코칭스텝이나 선수들은 각이 큰 동작을 많이 하여야 국제 경기에서 승리를 거둘 수 있다고 강조하였고 또한 서울에서 개최된 86년 아시안게임, 88서울올림픽대회, 89세계선수권대회의 경험상 국제대회에서의 경기는 국내대회 때와는 완전히 다른 스타일로 임해야된다고 생각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이번 스페인 월드컵경기에 있어서 한국 선수들은 각이 큰 회축과 받아 뒷차기, 선제 뒷차기를 많이 사용하는데 외국 선수들은 실리위주의 밀어차기 발차기가 완전히 보급되어 90년이전 국내 경기에서 보듯이 앞발 밀어차기와 뒷발 밀어차기가 주 공격 발차기가 되어 경기를 치루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미들급과 헤비급 경기에서 특히 두드러졌는데 독일의 헤비급 선수는 2m 5cm가 넘는 키에서 나오는 오른 앞발에 힘으로 계속밀어붙여 금메달을 따냈다. 긴다리로 밀어붙이는 힘은 황소같았으며 상대 선수의 기술에 한국선수는 속수무책이었다. 회축이나 뒷차기로 받아차기를 시도하다가 엉덩이나 허벅지에 걸려 넘어지는 모습의 연속이었고, 밖으로 빠져 돌려차기로 받아차기를 하다가 무릎이나 대퇴근에 받혀 다치는 모습들이 모양새가 좋지 않았다.

앞으로 밀어차기의 기술이 계속 허용된다면 중량급에서 한국선수들이 금메달을 따기는 무척 힘들것 같다고 보며 외국선수들에게 계속 밀리게 될 어두운 전망이다. 이를 대비한 기술개발이 필요한 시점이다. **태권**

# '88서울올림픽직후부터 '92 바르셀로나올림픽을 목표로 장기적이고 집중적인 투자

한국의 여자 태권도가 국제무대에서 흔들리고 있다. '85년 이후 미국·스페인 등 체력과 체력을 바탕으로 한 서구선수들의 급격한 경기력 향상은 한국 여자 태권도의 위상을 크게 위축시키고 있다. 더구나 금년 제9회 아시아선수권대회 여자부 우승을 기화로 국제무대에 「무서운 아이들」로 부상한 중화대북은 금년들어 월드컵대회에 마저 우승을 휩쓸면서 종주국의 위치를 빼앗아 가버렸다. '92바르셀로나올림픽을 대비한 상비군제도의 운영으로 내년도 그리스에서 개최되는 제3회 세계여자선수권대회에서도 선봉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9회 아시아선수권대회를 대비해 지난 4월부터 6개월간 중화대북에 초청받아 대표팀을 지도하고 11월 귀국한 김영인 코치(영신여고)가 중화대북 여자팀의 전력상승요인을 분석하였다.  
(편집자 주)

중화대북은 '88서울올림픽 직후부터 '92바르셀로나올림픽을 목표로 장기적이고 집중적인 투자를 하고 있다.

89년도 후반기에 대표선수단을 유망주로 세대 교체하고 '91세계선수권과 '92올림픽을 대비하여 집중훈련을 시킴으로써 금년에 이어 91·92년 각종 국제대회에서도 많은 번수를 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 여자대표팀의 전력 급성장 배경은 요인별로 파악해 보면 다음과 같다.

## 1. 대표선수 선발 및 구성

대표선발전을 통해 선발한 선수와 대표팀 코치

### 김영인

영신여고교사·전 국가대표팀  
코치·전 중화대북여자대표팀  
코치



왼쪽부터 '90월드컵금메달리스트, 핀, 플라이, 뎀텡, 페더, 가운데가 필자.('90 아시아선수권대회를 앞두고)

가 추천한 선수로 체급별 3~4명의 대표선수단을 구성, 훈련시킨다.

코치진에서 추천하는 선수는 지역별 대회와 전국규모대회 입상자 중에서 뽑지만 더러는 전혀 입상경력이 없어도 유망한 신인 중에 뽑히는 선수도 있다.

국제대회의 출전은 이들 3~4명을 훈련시키며 수시로 평가전을 가져 우수한 선수를 최종 결정하여 파견한다.

## 2. 훈련과정 및 내용

태권도의 경우 올림픽 정식종목과 동일한 대우를 받아 체급별 3~4명의 대표선수단을 구성하여 까오슝에 있는 국립북부훈련소에서 1년간의 장기 합숙 훈련을 시킨다.

지방출신이거나 학교거리가 먼 선수는 국립체대나 인근의 중고교에 위탁교육을 받게 배려한다.

훈련계획은 연간계획과 특정대회를 겨냥한 단기계획이 수립되는데 1.2차로 작성, 훈련 시킨다. 1차훈련에서 선수들의 장단점을 평가하고 2차에서 그에 맞는 별도의 계획을 작성하여 훈련하고 있다.

경기를 앞두고 각종 국제대회의 비디오테이프로 예상국가의 선수와 코치의 기술과 전술을 철저히 분석, 대비하고 있으며 입상 가능 체급에 대한 집중훈련으로 메달전략을 세운다. 또 지속적인 고강도 훈련을 통해 자신감을 고취시키고, 상대선수에 대한 이미지트레이닝과 3~4명간의 경쟁심리 유발에 의한 자발적 훈련 참여로 정신력도 강화시키고 있다.

## 3. 코칭스태프 구성

88년부터 전담코치제를 도입하여 각 파트별 담당코치 10명이 남녀 대표선수단을 관리하고 있다.

현재 남자팀 코치4명, 여자팀4명, 외국인코치1명, 행정코치1명으로 분류되어 있는데 이들은 각각 훈련담당(전체적인 훈련계획과 지도), 기술담당(개개인의 분석과 기술지도), 체력담당(웨이트 트레이닝 훈련처방, 체중조절), 의료담당(맛사지,

테이핑, 상해예방), 생활담당(협회와의 연락및 지원, 생활지도)으로 업무를 분장해 훈련을 시킨다.

이들은 연간계약제로 고정적인 급료를 받고 있으며, 협회에서는 이들에게 선수선발과 입·퇴출 결정권 등 대표선수단의 구성까지 일임하는 최대의 행정지원을 아끼지 않고있다.

## 4. 행정지원 체계

'91세계대회와 '92올림픽대회 상위입상(금 3~4개)를 목표로 하고 있는 이들에게 협회와 체육회, 스폰서, 언론 등 다각적인 지원체제로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협회에서는 코치중심으로 선수단을 운영하며 해외연수교육을 시키고 각종 국제대회에 6~8명의 코치를 파견하는 등 적극성을 띠고 있다.

체육회에서는 태권도를 올림픽종목과 동일시하여 태권도협회를 우선 지원하고 국제대회 입상자에 대하여는 막대한 포상금으로 선수들을 자극하고 있다.

다른 종목에 비하여 상위 입상이 가능하므로 대기업에서도 스폰서로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물질적 지원을 하고 있으며 언론에서도 코치와 선수에 대한 개인 소개와 활동사상, 훈련, 시합내용을 일일이 분석하여 대대적으로 보도하는 등 중화대북에서는 태권도가 최고의 종목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중화대북이 태권도에 거는 기대와 지원은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이다.

이에비해 한국의 여자태권도는 오히려 저변으로 인해 우수선수의 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있고, 다가올 국제대회를 대비한 세대교체 시기가 다소 늦은 감이 있었다. 또 대표선수들의 지속적인 훈련이 없어 하강세를 보이는 것은 당연하다 하겠다.

현재와 같은 선발전 방식과 훈련기간으로는 '91 세계대회와 '92올림픽에서도 중주국의 영예를 되찾기는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중화대북의 예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다각적인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본다. **태권도**



## 태권도 실업팀 창단 러시



노장의 분투, 보령군청팀 이정진선수('90전국체전)

각 시도에 태권도 실업팀 창단바람이 불고있어 일반부의 경기력 향상과 성인층에 대한 태권도 보급에 밝은 전망을 보여주고 있다.

91년 2월안에 창단예정으로 준비 중에 있는 팀은 대구, 전북, 대전의 남녀 각 1개팀등 4개팀으로 91년 상반기내에 태권도 실업팀은 8~9개팀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이들 팀은 해당 시도협회가 주축이 되어 의욕적으로 준비되고 있는데 대구시의 경우, 임원 2명, 선수 5명으로 91년 1월 중 「대구은행」팀을 창단시킬 예정이다. 대구시협회는 『전국체전과 중앙단체전, 국가대표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92년에는 선수 8명으로 확대시킬 방침』이라고 강한 의욕을 보이고 있다.

「대전시동구청」(남자) 과 「중앙투자신탁」(여자)등 2개팀을 추진하고 있는 대전시협회도 91년 1월 중 창단계획으로 준비 중에 있다. 동구청 체육회가 모체가 되는 「동구청」팀은 임원2명, 선수8명으로 출발하며, 「중앙투자신탁」은 한용석 대전시협회장이 9회 세계선수권대회 단장을 역임했던 인연으로 직접 진두지휘하고 있다고.

한편 전북에서는 협회와 도체육회의 강력한 지원으로 「크라운맥주」팀이 창단될 예정이다.

또 울산의 「현대정공」팀이 부활을 서두르고 있어, 태권도 실업팀은 기존의 「설악케이블카」, 「현대자동차」, 「보령군청」을 비롯하여 8~9개팀으로 확대되어 본격적인 실업무대가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대한태권도협회는 『중주국으로서 세계각국의 거센 도전을 막아내기 위해서라도 실업팀의 창단붐은 매우 바람직스럽다. 협회는 이들 실업팀의 활착(活着)을 위해 다각적인 지원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힌다.

### 본격적인 실업무대의 등장 예고

한편 각 팀은 큰 의욕을 가지고 창단을 추진하고 있으나, 실업무대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중앙협회 차원의 보다 적극적인 행정지원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현재 실업팀이 참여 할 수 있는 단체대항대회는 대통령기와 협회장기대회 2개뿐으로 실업팀이 소속회사 이름으로 참가할 수 있는 대회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현실이다. 이에대해 서울지하철공사 김영희감독은 『대회가 없는 기간에도 물론 훈련은 하지만 회사입장에서는 선수를 늘리고 있는 것처럼 보여 다소 눈치가 보이는 것도 사실』이라며 실업팀끼리 치를 수 있는 대회를 늘려주기를 요청했다. 더구나 전국체전용으로 운영되는 팀의 경우 연간 고작 1~2차례의 합숙훈련밖에 하지 않기 때문에 더욱 입장이 난처하다. 실업대항전이 개최될 경우 선수들이 보다 많은 대회에 참가하게 돼 소속 회사를 위해 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 실업팀의 정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여진다.

또 실업대항전의 신설과 더불어 강력한 홍보대책 수립을 요청하고 있다. 현대자동차 김종관감독은 『각 회사들이 팀에 투자를 해 주는 만큼 우리 선수단에서도 그 이상의 반대급부를 제공해야한다. 협회에서 대회시 각종 홍보매체들의 관심을 끌 수 있도록 정기적이고 재미있는 경기가 되도록 연구해 주었으면 한다. 언론매체를 통한 회사P·R이 실업팀 육성에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역설한다. 모든 팀 관계자들도 한결같이 실업선수들의 보다 많은 대회참가 기회부여와 홍보대책 마련이 태권도 실업팀 육성의 선결과제라고 주장한다.

이에대해 협회는 각 팀의 의견을 수렴키로 하고, 실업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 팀 관계자들은 한결같이 실업선수들의 보다 많은 대회참가 기회부여와 홍보대책 마련이 태권도 실업팀 육성의 선결과제라고 주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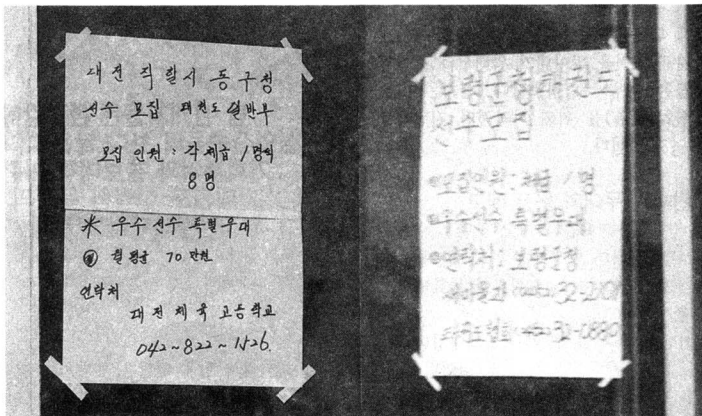
각 회사에서 팀에 더많은 재투자를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협회는 『단순히 연간 2-3회의 대회를 신설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히 보상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팀간에 리그전이나 과거 단체전 방식을 도입하는 등 다양한 경기방식과 언론매체의 관심을 끌 수 있는 시기선택을 하여, TV중계를 통해 각 기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홍보활성과 방안을 중점을 두고 연구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 선수모집에 큰 애로

한편 협회와 각회사들의 관심과 큰 의욕속에 팀 창단이 추진되고 있으나 각 팀은 선수모집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한다.

선수들이 대학졸업후나 군제대후 더 뛰고 싶어도 실업팀이 없어 일찍 은퇴하는 것으로 알려져왔으나 막상 실업팀이 창단리서를 이루자 팀에서 마땅한 선수를 찾지 못해 창단이 몇개월씩 늦어지기도 하는 모순이 생기고 있다. 모 팀의 경우 금년 상반기부터 경기장에 선수모집 공고를 내고 있으나 아직 마땅한 선수를 선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금년도 마지막 대회인 우수선수선발전에도 크라운맥주, 대전동구청, 보령군청 3개팀이 모집공고를 붙히는 등 선수스카우트에 치열한 경쟁을 벌여 눈길을 모으기도 했다.

각 팀은 월 평균 60여만원 수준의 대우와 은퇴



**협회장기식의  
대학·일반부 통합방식은  
극구 반대하고 있는데 체력적인  
문제도 있지만 후배들에게  
'이겨야 본전'이라는 정신적  
부담이 많기 때문이라고.**

후 소속사 일반직원으로 발령하는 좋은 조건을 내세우고 있으나 선수들의 조기 은퇴 경향으로 선수 모집에 어려움이 많다고.

이는 지금까지 실업팀이 활성화가 되어있지 않았기 때문에, 불과 몇 선수를 제외하고는 자의반 타의반 은퇴할 수 밖에 없었던 환경적 요인이 이 제는 관례화 되어버린 것으로 풀이된다.

또 각 소속팀에서 A급 수준의 선수만을 요구하는 태도 있다고 팀 관계자들은 얘기한다.

그러나 많은 팀이 생길 경우 스카우트대상이 B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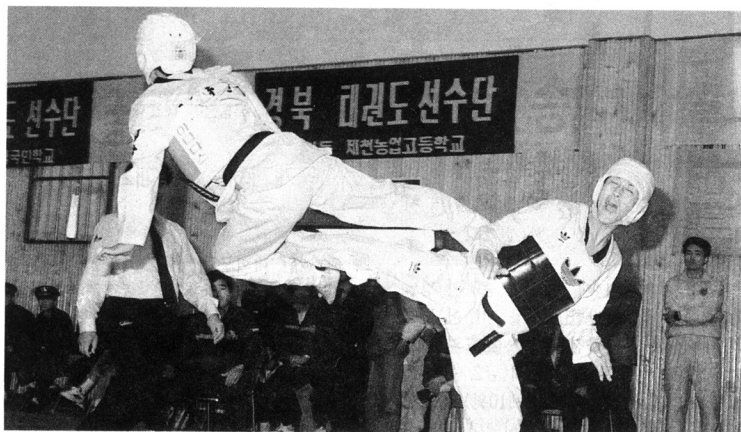
수준의 선수까지 확대되고, 고령(?) 선수가 많아짐에 따라 조로(早老) 현상도 점차 감소될 것으로 보고있다. 또 실업팀 관계자들은 협회장기식의 대학·일반부 통합방식은 극구 반대하고 있는데 체력적인 문제도 있지만 후배들에게 '이겨야 본전'이라는 정신적 부담이 많기 때문이라고.

현재 실업팀에 소속해있는 모선수는 『군체대후에도 선수로 뛰는 것을 다소 부끄럽게 생각하고 있을 게 사실입니다. 동료가 코치로 경기장에 나와있는데 자신은 선수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쑥스럽기도 하고... 더구나 고등·대학·일반부 통합경기인 경우 10살아래의 후배와 싸워야 하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실업팀끼리만 붙는 단체대항전이 생긴다면 달라지겠지요. 그런 소극적인 마음도 없어질 것이고, 30세까지도 선수생활이 가능할 것』이라며 실업무대의 등장을 고대한다고 말한다.

비록 많은 선결과제를 안고 있지만, 태권도계에도 실업무대의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다. 팀 창단에 따른 선수수급, 대회운영, 홍보관계 등 많은 숙제가 있지만 중앙협회에서는 팀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종합적인 대책 마련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태권**

## 충북에서 열린 큰 잔치, 서울 10연패 달성

제71회 전국체전 태권도경기  
(10.16~19, 충북 제천농고체육관)



제71회 전국체육대회가 우리나라 유일의 무해도(無海道) 충청북도에서 지난 10월 15일부터 21일까지 7일간 개최되었다. 10월16일부터 19일까지 제천에서 개최된 태권도 경기에는 15개시도에서 358명의 선수가 참가하여 열전을 벌였다.

79년 제8회 소년체육대회를 제외하고는 전국단위의 종합대회를 개최한 경험이 없는 충청북도는 이제까지 이렇다할 발전을 이룩하지 못했던 도(道)이미지를 씻고 도약의 계기로 삼고자 노력한 흔적이 곳곳에 배어 있었다.

도민들의 전체적인 호응을 얻기위해 충북 일원의 12개지역으로 분산 개최한 이번대회에서 태권도는 새로 건축한 제천농고 체육관을 배정받아 치루어졌다.

이번대회에서 충북은 태권도 단체2위의 성적에 힘입어 전체 종합순위에서도 서울, 경기도에 이어 3위를 함으로써 스포츠 약체도의 인식을 벗어던지는 큰 수확을 거두었다.

### 충북, 주최도로서의 면모 과시

81년 제62회 전국체전(경남, 창원)부터 종합우승을 도맡아온 서울이 이번 대회에서도 2위인 충북팀을 종합점수 270여점 차로 제치며 대회 10연패를 이룩, 무적함대의 위용을 자랑했다.

아물든 두터운 선수층을 배경으로 한 서울팀의 독주는 이번이 없었던 계속될 전망이다.

서울을 제외한 시도 선수단 임원들은 『서울시



폭풍전야. 대표자회의의 전경

에 우수팀들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서울을 제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하다. 결국 앞으로도 타 시도에서는 2위를 놓고 다툴수 밖에 없을것'이라고 말한다.

한편 서울을 제외한 14개 시도 중 충북과 경남이 이번대회에서 괄목할만한 성적을 거두어 눈길을 모았는데 충북팀은 1차전 부전승 시드의 덕도 보았지만 각 부에서 고른 입상을 해(금2, 은3, 동4)전년도까지 약체도('89, 70회 국제10위)라는 인식을 벗고 주최도로서의 면모를 과시했다. 경남은 전년도 4위에서 1계단 뛰어올라 3위에 입상함으로써 5년전부터 시작된 상승세가 이어져 태권도 강팀으로서의 위치를 굳혔다.

## 대학부 선수, 연고제 실시로 지방팀 전력강화

이번 대회부터 한국체대·체육과학대 외에도 모든 대학부 선수들이 자기의 소속팀을 떠나 연고지로 뛸 수 있게 참가요강이 바뀌면서 대학부에서는 지방팀의 전력이 한층 강화되며 더욱 치열한 접전을 벌였다.

전체 120명의 대학부 선수중 34명(28%)이 소속팀을 떠나 고향팀의 이름으로 출전하여 금3, 은2, 동4를 각자의 고향에 바치며 금의환향하였다.

## 공개계체·신형매트 호평받아

대한태권도협회는 계체에 따른 잡음 중식을 위해 이번 대회부터 공개계체를 공인하고 「하나기업」으로 부터 기증받은 공개계체를 사용하여 호평을 받았다.

계체기록이 전광판을 통해 공개되고, 실격시 부저음이 울리는 기능을 갖추고 있는 이 계체기는 체전사상 가장 많은 실격자를 양산해냈다. 전체 358명중 12명이 계체실격 되었는데, 이중 충북 일반부의 모선수는 동메달을 확보해 논 상태에서 50g오버로 실격 처리되는 바람에 소속팀과 주위 사람들을 안타깝게 하기도 했다.

역시 이번대회에 첫 선을 보인 경기용 매트는 가벼운 중량, 조립식으로 이음매를 처리한 신개발 품으로 설치와 운반이 용이하여 각 팀 관계자들의 호평을 받았다.

## 「경기장 질서문란 1호」로 위신 실추

협회는 전년도 70회 체전을 비롯하여 태권도경기장의 고질적 병폐인 경기장 질서문란 행위에 대해 다각적인 대처방안을 강구, 총력을 기울였으나 대회 첫날부터 관중시비 등의 불상사가 발생하는



번외경기 1위. 「질서상」은 대구시협회가 차지

가운데 전체 경기종목 중에서 가장 불명예스러운 「질서문란 1호」를 기록, 무도임을 자랑해온 태권도의 위신을 실추시켰다.

협회는 이번 체전을 경기장 질서확립의 시발점으로 삼기위해, 경기·심판·상벌 등 질서문란의 동기유발 요소에 대해 종합적인 대책을 세우고 각 시도를 순방하는 등 예년과 다른 적극적인 노력을 한 바 있다.

대회 2일째인 17일 오후부터 무너진 경기장 질서의 뒷 배경에는 좀더 강력히 대처하지 못한 집행부의 넓은 아량(?) 탓도 있었지만, 자소속 시도만을 위한 극렬한 이기심, 태권도인들 가슴 속에 깊게 뿌리내린 상호 불신감 등 제도나 집행부의 노력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근본적인 문제가 도사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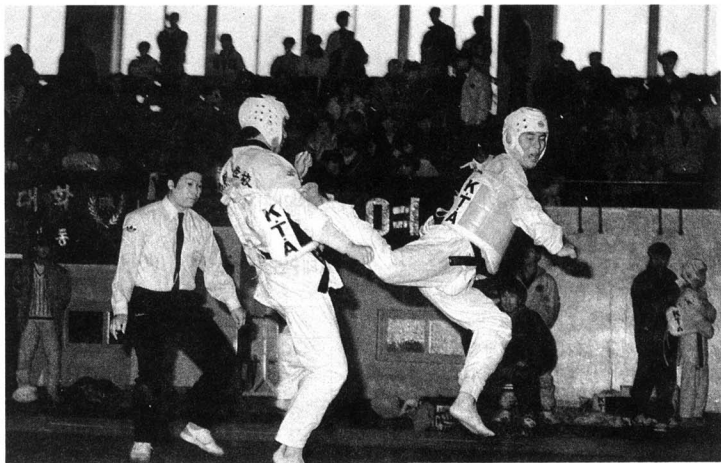
아뭏든 이번대회는 태권도 경기장의 질서 확립 체계를 세울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실재로 마감 지음으로써 또 1년의 유예기간을 기다려야 하는 아쉬움을 남기고 막을 내렸다. **태권**

#### ▲태권도 종합성적

순 위	시 도 명	종 합 점 수
1	서 울	1916
2	충 북	1646
3	경 남	1514
4	광 주	1380
5	부 산	1260
6	전 남	1125
7	경 기	1117
8	강 원	995
9	대 전	867
10	제 주	855
11	인 천	722
12	전 북	676
13	충 남	660
14	대 구	598
15	경 북	488

# 올해의 남녀 최우수선수상 한체대의 장혁, 은광여고의 이승민

'90년도 전국남녀우수선수선발대회  
(11. 7~9, 국기원)



## 1·2위자는 내년도 국가대표최종전에 출전

1990년도에 본회 및 각 연맹에서 주최 주관한 전국 규모 대회에서 입상전적이 있는 남녀 선수 292명이 출전한 가운데 전국남녀우수선수선발대회가 11월 7일부터 9일까지 3일간 국기원에서 열렸다.

이번 대회의 각 체급별 1,2위자는 내년도 국가대표 최종 선발전에 출전할 자격을 얻게 됨으로써 국가대표를 꿈꾸며 각고의 노력을 해온 선수들은 치열한 접전을 펼쳤다.

이번 대회의 출전 선수들 모두가 전국대회 입상전적이 있는 만큼 우열을 가리기 힘든 기량으로 경기에서는 팽팽한 각축전이 펼쳐졌다.

승패에 있어서는 득점에 의한 판정이 대부분이



지도상. 최우수선수상(좌, 문원재, 장혁, 이승민, 정해주)

였으나 통쾌한 K.O승은 한차례도 나오지 않아 아쉬움을 남겼다.

한편 전국체전에서 최초로 선을 보인 이번 대회에서 사용된 우세채점기는 우세에 대한 판정 시비를 극소화시키는데 기여, 열띤 선수들의 각축전에도 불구하고 질서정연한 가운데 올해의 마지막 대회를 마칠 수 있었다.

## 다양한 기술 보여준 서보훈과 맹성재의 핀급 준결승전

이번 대회에서 가장 적극적인 공격과 다양한 기술 발휘로 관중들의 박수를 받은 경기는 한체대의 서보훈과 경희대의 맹성재가 대결한 핀급 준결승전을 꼽을 수 있다.

1회전은 탐색전이 펼쳐지는 가운데 서보훈과 맹성재가 한두차례의 공격을 시도했으나 득점까지는 얻지 못한 채 2회전을 맞았다.

선제공격으로 기선을 잡고자 두 선수가 적극적인 공격을 시도하는 가운데 서보훈이 몸통 뺏차기, 돌려차기, 찍어차기 등 다양한 기술을 발휘하며 무려 3득점을 올리는 기염을 토했다. 이에 맞선 맹성재도 2회 종료물 앞두고 몸통 뺏차기를 성공시키며 1득점을 올려 3:1이 되었다.

3회전에 들어서자 지고있는 맹성재는 득점을 얻기 위해 여러차례 큰 동작을 구사하며 공격을 했으나 번번히 실패하는 안타까움 속에 서보훈이 역공으로 받아차기를 성공, 2점을 더 올려 결국 5:1로 서보훈이 판정승을 거두고 결승전에 진출했다.

서보훈은 결승전에서 리라공고의 박병준을 2:0으로 가볍게 누르고 금메달을 차지, 내년도에는 반드시 국가대표가 되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 한체대의 문원재코치, 은광여고의 정해주감독 지도상 수상

11월 9일 3일간의 열전을 마치고 거행된 시상식에서 남녀최우수선수상은 한체대의 장혁선수와 은광여고의 이승민선수에게 돌아갔다. 또한 탁월한 지도능력으로 우수한 선수를 배출한 한체대의 문원재코치와 은광여고의 정해주감독에게는 지도상의 영광이 주어졌다.

한편 이번 대회에서 체급별 1·2위자는 내년도 국가대표최종선발전예에 출전, '90년도 국가대표 1·2위자 및 '91년도 국가대표 1·2차선발대회 1·2위자 등과 함께 8명이 토너먼트 방식으로 경기를 펼쳐 국가대표로 선발된다.

▲남자부 체급별 1·2위자는 핀급 서보훈(한체대) 박병준(리라공고), 플라이급 정동현(한체대) 오영주(상무), 밴텀급 이안호(경희대) 신상준(청주대), 페더급 장혁(한체대) 강창모(동아대), 라이트급 윤정욱(경희대) 심우현(동아대), 웰터급 홍문주(동아대) 조재훈(인천전대), 미들급 윤순철(상무) 김제경(동아대), 헤비급 김현일(상무) 노신(상무)

▲여자부 체급별 1·2위자는 핀급 장이숙(상명여대) 이순희(대원여중), 플라이급 이화진(경희대) 강경숙(상명여대), 밴텀급 이승민(은광여고) 배은정(성신여대), 페더급 박진경(상명여대) 양은정(성신여대), 라이트급 석소정(체과대) 정은옥(상명여대), 웰터급 고재경(성신여대) 방경애(성신여대) 미들급 장철(경희대) 박은선(고양여중), 헤비급 추수연(은광여고) 김태희(문성여상)



# 한체대 · 경희대 · 동아대의 각축전 대회 마지막 순간까지 우승 점칠 수 없는 상황 연출

제 13회 연맹회장기타기 전국대학 대학 태권도대회  
(9. 28-29, 국기원)



안용규

(한국대학 태권도연맹 사무국장,  
대한체육과학대학 교수)



여자부 종합우승 상명여대

한국대학태권도연맹에서는 지난 9월 28일과 29일에 국기원에서 제13회 회장기 타기 전국대학 대학 태권도대회를 개최하였다. 개회식에서는 고인인된 김동석 회장의 명복을 비는 뜻에서 선수전원과 심판 및 임원들은 검은 리본을 달고 고인에 대한 묵념을 올리며 애도의 뜻을 표했다.

이번대회는 제11회 아시아 경기대회와 추석연휴, 전국체전을 앞두고 실시되어 선수들의 참가가 적을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총 26개교에서 309명이 참가하는 성황을 이루었다.

남자부경기는 A, B조로 나누어서 실시되었다. A조는 입상경력이 있는 선수들이, B조는 전국규모대회의 입상경력이 없는 신인들이 참가 했는데

대학의 태권도 활성화 방안으로 전년도 B조에서 입상한 선수도 출전을 허가하였다.

첫날 경기에서는 서로 우승을 다투는 한국체대, 경희대, 동아대 선수들의 각축전이 펼쳐졌다. 여대부에는 성신여대, 상명여대, 체육과학대가 우승 후보였고, 남자 B조 경기에서는 인천체전과 체과대와 명지실전이 우수한 기량을 보여주었다.

경기내용을 보면 펀급 맹성재 선수는 한국체대의 강봉석 선수를 이기고 올라온 인천전문대의 박기동 선수를 3:1로 판정승을 거두었고, 서보훈(한국체대)선수는 이경호(경희대)선수와 격돌하여 1:1의 득점상황을 보이며 막상막하의 경기를 펼쳤으나 서선수가 우세로 승리하였다.



남녀체급별 우승자

플라이급 경기에서는 김동은(조선대)선수가 전년도 우승자였던 박재성(한국체대)선수를 1:1동점에서 우세로 승리하여 좋은 출발을 보이며 4강에 진출하였다.

페더급 경기에서 김병갑(한국체대)선수는 이천우(청주대)선수를 이기고 김병철(한국체대)선수에게 양보를 받아 4강에 합류하였고 동아대의 강창모선수는 3:1로 인한순(인천전대)선수를 이기고 4강에 올랐다.

라이트급의 김명식(인천전대)선수와 박춘길(관동대)선수의 대결에서는 서로 주고받는 득점상황으로 모든 사람들의 눈길을 끌었는데 결국 박선수가 5:4로 김선수를 물리쳤으며, 웰터급 경기에서는 대학 1년생인 이현석(동아대)선수가 박상로(한국체대)선수를 3:1로 이기고 4강에 합류하였다.

여대부에서는 상명여대 선수들이 선전을 보이며 종합우승을 향한 청신호를 보내기 시작하였고 경희대와 성신여대의 추격도 만만치 않았다. 첫날 여대부경기에서 가장 돋보인 선수는 상명여대의 양인덕 선수로 양발 난타와 돌려차기 기술을 발휘, 관중들로부터 많은 박수를 받았다.

이틀째 경기에서는 서서히 종합우승의 윤곽이 드러나면서 부터 각 팀의 힘찬 응원과 선수들의 화이팅이 조화를 이루며 경기장을 한결 활기있게 하였다.

결국 남대부에서는 플라이급에서 동아대 박기찬 선수가 조선대 김동은 선수에게 패하게 되자 동아대의 종합우승에 먹구름이 끼기 시작했고 라이트급까지는 각 학교마다 한개씩의 금메달을 따내 좀처럼 종합우승을 점칠 수가 없었다. 그러던 중 웰터급에서 한국체대의 신광수 선수가 금메달을 목에 걸자 한국체대가 유리한 고지를 점령했다. 그러나 미들급에서 동아대의 김제경선수가 우승하고, 헤비급에서 경희대의 김봉근 선수가 우승, 결국 3개학교가 모두 금메달 2개씩을 확보하자 은메달과 동메달 순으로 종합순위가 결정되었다. 결과적으로 체급이 많이 분포되어 있는 한국체대가 종합우승을 차지하고, 2위는 경희대, 3위는 동아대에 돌아갔다.

여대부에서는 상명여대가 금3, 은2, 동1로 종합우승을 하고, 2위는 경희대(금2, 은2, 동2), 3위는 성신여대(금2, 동3)가 차지했다.

남대부 B조에서는 인천전문대와 체과대의 경쟁이 치열했는데 체과대가 금4, 은2, 동9개로 종합우승을 하였고, 2위는 인천전문대(금3, 은3, 동3), 3위는 명지실천(금1, 동1)이 차지했다.

예년과는 달리 금번 대회에서는 서로 확고히(?)우승을 점칠 수 없는 막상막하의 대등한 실력들을 갖추고 있어서, 앞으로는 일방통행적인 우승은 예견할 수 없었고 서울과 지방간에 실력차가 줄어들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태권**

# 내년부터 변경되는 국민학교부 체급별 한계체중에 대비해야 청주서원 · 서울강덕 남녀 종합우승차지

제16회 연맹회장기타기 전국국민학교 태권도대회

(10. 26-27, 국기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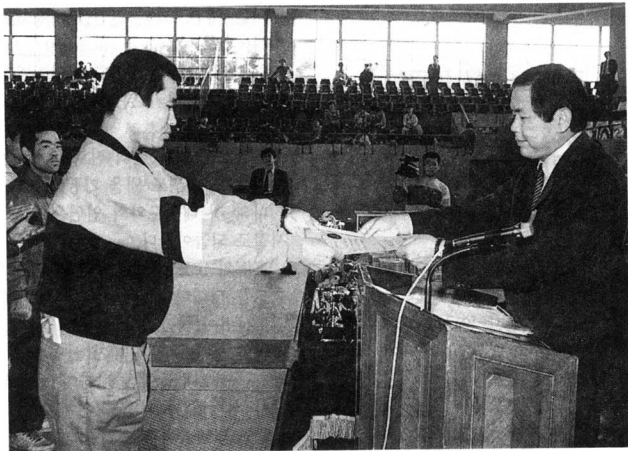


황성길

(국교연맹 편집위원)

결실과 수확의 계절인 10월에 2000년대의 주역 태권도 어린이들의 제16회 연맹회장기타기 전국 국민학교 태권도대회가 26일과 27일 이틀간 국기원에서 거행되었다.

전국 42개교에서 겨루기 324명, 품새 141명의 남녀 선수가 참가한 가운데 거행된 개회식에서 임정태 회장은 이번 대회가 「1990년도 국민학교 태권도의 결산과 반성의 마당이며 1991년을 맞이하



기 위한 준비와 계획의 대회가 되어야 한다」고 전제하고 국민학교 태권도의 지변확대와 과학적인 기술축적에 따른 적극적인 재정지원을 약속했다. 김운용 회장의 격려사를 대독한 홍중수협회 부회장은 밝고 씩씩한 태권도 어린이들의, 세계를 향하는 힘찬 기상을 널리 알려주는 좋은 본보기가 되어 달라고 격려했다.

경기에 앞서 실시된 체체에서 체중조절에 실패한 선수들이 많이 속출되어 아쉬움을 남겼다. 1991년도부터는 국민학교 어린이 체중에 따른 체급이 현실화됨에 따라 국민학교 지도자 및 선수들은 개정되어 시행될 체급 규칙을 무엇보다 철저히 숙지해야 할 것이다.

남자부 종합우승은 89년도 태권왕기와 체육부장관기를 휩쓴 청주서원국민학교가 저력을 과시하여 우승의 기쁨을 만끽했다. 1990년도 국민학교 태권도는 태권왕기(5월)에 우승한 서울금천국민학교, 체육부장관기(7월)에 우승한 청주한별국민학교와 더불어 춘추전국시대를 맞이한 셈이다. 이는 학교간의 기술교류의 원활함과 기술연마의 평준화에 기인한 것이며 학교 코치들의 태권도에 대한 애착과 피땀으로 이루어 놓은 결과였다고 본다. 여자부는 서울강덕국민학교가 우승을 차지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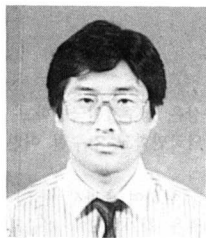
**1991년도부터는 국민학교 어린이 체중에 따른 체급이 현실화됨에 따라 국민학교 지도자 및 선수들은 개정되어 시행될 체급 규칙을 무엇보다 철저히 숙지해야 할 것이다.**

으며 최우수상은 청주서원국민학교 정호열 어린이와 서울강덕국민학교 김수현 어린이가 차지했다.

이번 대회를 위하여 출판사 「작가정신」에서 우량도서 1000권을 참가학교에 기증하였으며 동아 제약은 음료수 「포카리스웨트」를 무상으로 제공하며 선수의 사기를 높였다.

폐회식에서는 박점수(서울강덕국교 코치)외 40명을 1990년도 우수코치로 선정, 표창장을 수여했다. **태권**

# 고향에서 천대받는 또 하나의 聖者, 태권도



김창룡

국민일보 체육부기자

나는 태권도와의 인연을 평생 끊을 수 없을 것이다.

현재의 위치가 태권도 담당기자라는 시한적 상황을 떠나서 태권도는 내게 각별한 의미를 지니기 때문이다.

태권도는 내 人生의 진로를 바꾸는 계기가 되었고 지금도 태권도 덕을 가깝씩 보고 있다.

나의 첫 태권도와의 인연은 60년대말 국민학교 시절로 되돌아간다.

東海의 고도 울릉도에서 태어나 그곳에서 국민학교를 다니던 시절, 어느날 육지에서 훌쩍히 태권도사범이 나타났다.

하얀 도복에 검은 띠가 선명한 차림의 김정태사범은 동네사람들에 둘러싸여 하나씩 묘기를 선보이기 시작했다.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큰 형이 들고있던 반쯤탄 담배재를 20m 쯤 떨어진 거리에서 달려오며 모뎀발차기로 재만 땅에 떨어뜨렸을 때였다.

모두들 환호하며 박수를 보내자 우리도 덩달아 일어나서 까불고 흥내를 내면서 태권도의 멋에 빠져들었다. 나의 태권도와의 첫 사랑은 이렇게 시작되었다.

그러나 정말 내가 태권도를 본격적으로 파고든 때는 군대시절도 아니고 聖地이스라엘에 발을 디딘 85년초였다.

종주국인 한국에서 「천대받는」태권도가 이국땅에서 이처럼 큰 인기를 모으고 있으며 「블랙벨트」(유단자)는 가히 神격인 대우를 받는다는 사실이 처음에는 믿기지 않았다. 브루스 리(李小龍)의 액션영화가 세계전역에 東洋의 무예선풍을 불러 일으킨 이래 특히 전쟁이 끊이지 않는 이스라엘에서 무도(가라데든, 태권도든)의 인기는 대단했다.

빈털털이로 유학길에 나섰던 나에게는 굉장한 유혹이었다. 일반적으로 유학생들에게 이스라엘은 미국처럼 접시당기와 같은 아르바이트를 쉽게 찾을 수 없는 곳으로 알려졌다. 사범들은 히브리어(이스라엘 모국어)라는 언어장벽 때문에 쉽게 포기하고 돌아갔고 몇몇 유학생들이 태권도 흥내를 냈지만 유지하기 짝이없는 수준이었다.

결심을 굳히고 우선 몸만들기부터 시작했다. 뼈의 유연성을 기르기위해 매일 거의 한사발씩 식초

를 물에 타 마시며 밤낮 할것없이 태권도에 완전히 미쳐버렸다. 꿈속에서 발차기를 하다가 벽을 차서 옆방에서 사람들이 놀라서 튀어나오는 경우도 몇번있었다. 놀라운 사실은 당시 국내에서 태권도에 관한 책이 고작 몇 종류밖에 없었으나 이스라엘에는 유럽과 미국에서 영문으로 발간된 태권도 관련책자가 엄청나게 많아 쉽게 구입할 수 있었다는 점이다.

## 태권도로 이어온 유학시절

이스라엘의 북부 항구도시인 하이파市 카르멜 도장에서 검은띠를 두르고 별부끄럼없이 설 수 있기까지는 거의 9개월이 걸렸다. 키부츠 두군데서 태권도를 가르치며 카르멜도장에서 중급, 상급반까지 맡았으니 당시 내생활은 태권도가 전부였다.

특히 상급반은 쿡후, 가라테 등의 유단자들이 태권도의 다양한 발차기 기술을 배우기 위해 모여 실전으로 연습을 대신했던만큼 사범인 나로서는 돌아가며 상대하기가 수월치 않았다. 언어맞기도 많이했지만 새까만 눈의 동양인이 허공을 「날아 다니는」 모습을 보려 물려든 꼬마들의 기대(나의 어린시절을 연상케 하는)를 저버릴 수 없어 늘름한 사범의 모습을 보여주려고 최선을 다했다. 지중해의 밤하늘을 찢는 기합소리와 함께 땀으로 범벅이 된 몸을 이끌고 무수한 맞겨루기를 가졌다.

그중 이스라엘 가라테 헤비급 챔피언을 두번씩 차지한 야곱과의 스파링은 실전을 방불케하는 격전이었다. 바람을 가르는 소리를 내며 뺨은 앞차기와 탄력있게 튀어나오는 뒤차기는 확실히 위협적이었다.

그러나 사범이 밀린다는 인상을 주면 관원의 수는 금방 떨어지기 때문에 결정적인 순간에 꼭 한 번씩 나의 특기인 3연속 회전돌려차기 등으로 녀석을 코너에 쳐박곤 했다.

태권도의 인기는 이스라엘의 독립기념일에 나와 제자들이 함께 시범을 보인후 절정에 달했다. 여기저기서 좋은 조건을 제시하며 일주일에 두 번만 와달라고 애원하다시피 했으며 한 중학교에서는 외국인에게 파격적으로 정식 교사자격으로 초대하겠다는 제의까지 했을 정도였다.

물론 태권도가 이처럼 폭발적인 인기를 차지하

**이들이 무엇보다 큰 감동을 받은 것은 태권도가 보여준 예와 절도의 무도정신을 따르는 아이들의 수업태도였다는 것이다.**

게 된 것은 무엇보다 유대인들의 드높은 교육열에 편승한 탓도 있었다.

학부형과 선생들이 한번은 나의 태권도 수업에 참관하고 싶다가에 O.K했더니 구름처럼 몰려들었다.

이들이 무엇보다 큰 감동을 받은 것은 태권도가 보여준 예와 절도의 무도정신을 묵묵히 따르는 아이들의 수업태도였다는 것이다.

국민학교 4·5학년생들인 집안의 개구장이, 학교의 말쑥꾸러기들이 태권도 도장에 들어서는 순간 그렇게 대견한 아이들, 자랑스런 내 자식으로 변할줄은 상상도 못했다는 것.

수업시간을 빼먹거나 늘 지각하기 일췌인 자유분방한 그 곳 아이들이 시간에 늦지않게 도장에 들어서며 태극기와 이스라엘 국기가 걸려있는 벽을 향해 엄숙히 인사하고 자신의 옷가지를 가지런히 정돈한후 개인훈련에 열중하는 모습에 처음 놀라고 나와 함께 90분간 연습하면서 얼굴에 보송보송 맺히는 땀방울을 닦으면서도 불평 한마디없이 「이상한 말」(구령과 동작등은 모두 한국어로 함)에 맞춰 이뤄지는 동작과 때론 아이들 중의 하나가 앞에 나와 구령하는 모습 등에 두번째로 놀랐다는게 부모님들의 공통적인 얘기였다.

아이들중 특히 이단, 가이 등의 부모님들은 내가 이스라엘에서 대학원에 진학하면 학비는 물론 생활비까지 책임지겠다고 잡았지만 신문학 석사 과정이 예루살렘大, 텔아비브大 등에 개설되지 않아 나는 어렵게 영국으로 떠날 것을 결정했다.

돈관계에 그렇게 인색하다는 유대인들이 꼭 다시 돌아오라는 부탁과 함께 학비에 보태쓰라고 5백달러를 그냥 내놓는 사람도 있었고 부담스러우



이스라엘 유학시절 제자들과 함께 (왼쪽에서 두번째가 필자)

면 나중에 갚으라며 1천 달러를 조건없이 빌려주는 사람도 있었다.

처음에는 필요에 의해 태권도를 시작한 내가 태권도에 빠져들면서 태권도 때문에 받은 기대치 못한 부수적인 혜택이었다.

영국에서의 생활은 또 다른 시련기였으나 태권도를 통해 쌓은 정신력을 바탕으로 또 의외의 도움에 힘입어 학업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다.

학문의 어려움은 논외로치고 년 학비만 약6백만원이 지출되는 경비를 나는 도저히 충당할 수 없었다. 학교측에선 유일한 학비미납자인 나를 쫓아내겠다는 최후통첩까지 해둔 상태였다.

그런데 뜻밖의 은인을 만났다. 런던의 나와 같은 집에서 함께 머물며 알게된 런던대 학부1년생 케빌로스가 그 주인공. 나와 사귀지는 불과 2달밖에 되지 않았으나 태권도 블랙벨트라는 사실에 스스로 상당히 감명받은 이 친구가 3년내로 갚아달라는 계약서와 함께 남은 학비 약7백50파운드(약1천달러)를 대신 내준 것이다. 기적같은 일이었다.

나의 앞길에 뜻하지 않았던 이러한 도움은 태권도와의 인연 때문이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는 나는 태권도를 단순한 「파이팅 테크닉」연마차원을 넘어선 나의 철학으로 승화시키고자 노력했다.

## 일반대중을 대상으로 무도정신 함양에 눈 돌려야

AP통신에서 88년 창간사인 國民日報社로 직장을 옮긴후로도 가끔씩 밤늦은 시간에 아파트에서 몰래 연습을 하거나 도장에 나가 보았으나 태권도에 대한 국내의 인식이 참으로 잘못돼 있다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다.

우선 도장에 나가 연습좀 하러왔다면 「이상하

다」는 눈초리다. 국내 대부분 도장이 영리목적상 유치원과 병행하며 어린이들이 건강을 위해 잠시 배우는 곳으로 전락해 일반 성인들이 취미나 기타 이유로 태권도를 하는 경우는 거의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또 국내에서 태권도 유단자라고 소개하면 「머리는 비고 별 할일없는 어چه」정도로 내려보는 경향도 눈에 띄었다.

그러나 나는 태권도를 사랑하고 또 이용하고 있다.

지난해 「아프가니스탄 사태」를 취재하러 파키스탄에 갔을때 나는 많은 외국인자들로 부터 자발적인 도움을 받았다. 외국인들에게 태권도는 경이적인 스포츠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유단자라고 소개하면 서로 나와 친한 친구가 되고 싶어한다는 사실을 경험을 통해 깨달았다. 그래서 나는 외국에 여행을 가든 취재하러가든 꼭 도복 한벌 정도는 챙긴다.

나의 이러한 사적경험과는 별개로 현재의 태권도를 보면서 아쉬운 점이 한가지 있다. 그것은 판정시비에 따른 추태다.

태권도협회와 세계태권도연맹(WTF)이 채점상의 공정성을 높여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컴퓨터 채점기 개발 ▲상임심판원제 운용 ▲현장징계제도 등을 도입, 백방으로 노력하고 있는것으로 안다.

「무예」태권도가 「스포츠」태권도로 변해가는 과정에서 빛어지는 불가피한 잠음을 막아보려는 이러한 기술적인 개발에는 한계가 있다. 무엇보다 태권도를 배우고 시키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자세 전환이 급선무인것 같다.

태권도가 이제는 메달을 따야하는 국제적인 스포츠로 바뀌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않고 「점수 따기」에 급급해야하는 형편이지만 모든 사람들이 메달을 위해서 태권도를 수련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태권도 지도자들은 염두에 뒀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이제야말로 협회나 WTF는 철저한 스포츠로서의 태권도와 일반대중을 대상으로 무도정신을 바탕으로 한 무예 태권도로 발전방향을 이원화시킬 방안을 연구해야 할 것이다. **태권**

# 대한태권도협회 · 국기원 · 3개연맹

## 1991년도 사업계획(안)

월	일	사 업 명	장 소	주 관
2	9-11 22-23 25-27	제 4 회 "여명의 열흘"이란혁명기념 국제대회 1991년도 심판 보수 교육 1991년도 심판 강습회	이 란 국기원 "	대한 태권도협회 "
3	5-14 16 25-30	제 66 기 태권도 지도자 교육 '91년도 1차 고단자 심사대회(6-9단) 1991년도 전국 종별 태권도 선수권 대회	" " "	국기원 " 대한태권도협회
4	9-11 16-18 19-20 29-30	1991년도 국가대표 선수 1차 선발대회(남자) 1991년도 국가대표 선수 2차 선발대회(남자) 1991년도 국가대표 선수 1차 선발대회(여자) 1991년도 국가대표 선수 최종선발대회(남·여)	" " " "	" " " "
5	1-4 10-11 13-14 19-21 22-31 23-25 23-25	제 18 회 한국중고연맹 회장기 대회 '91년도 1차 고단자 보수 교육 1991년도 전국 여자 개인 선수권대회 1991년도 전국 국교 어린이 태권왕 겨루기대회 제 67 기 태권도 지도자 교육 제 18 회 대학연맹 회장기 전국 대학 개인대회 1991년도 월드컵 대회	" " " 미 정 국기원 " 유 고	중고연맹 국기원 대한태권도협회 국교연맹 국기원 대학연맹
6	15 17-25	제 2 차 고단자심사대회(6-9단) 제 26 회 대통령기 전국 단체대항대회	국기원 "	국기원 대한태권도협회
7	1-3 12-13	제 3 회 경희대 총장기 전국 남녀 고교 대회 제 12 회 체육부 장관기 전국 국교대회	" "	경희대 국교연맹
8	18-24 30-31	제 2 회 체육부 장관기 전국 중고 대회 2차 고단자 보수교육	미 정 국기원	중고연맹 국기원
9	2-11 9-12 26-28	제 68 기 태권도 지도자교육 제 27 회 협회장기 전국 남녀 단체대항 대회 제 14 회 회장기 전국 대학 대회	" " "	" 대한태권도협회 대학연맹
10	5 7-13 11-12 23-31	제 3 차 고단자 심사(6-9단) 제 72 회 전국 체육 대회 제 17 회 국교연맹회장기 전국 국교대회 제 10 회 남자 및 제 3 회 세계 여자 선수권대회	" " 국기원 그리아스	국기원 대한체육회 국교연맹
11	6-8 19-28	1991년도 전국 우수선수 선발대회 제 69 기 태권도 지도자 교육	국기원 "	대한태권도협회 국기원
12	7	제 4 차 고단자 심사(6-9단)	"	"



# 태권도 소식

## 대한태권도협회

김운용회장  
「위대한 올림픽」  
출판기념회



지난해 일본에서 출판된 이래 올해 4월 영문판으로 나온 「위대한 올림픽」이 한국어판으로 출간되어 12월 21일 하오 6시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출판 기념회를 가졌다.

「위대한 올림픽」은 서울올림픽유치에서 부터 끝날 때까지 IOC(국제올림픽위원회) 위원으로서 중책을 담당한 김회장이 저술한 것으로 서울올림픽의 생생한 역사적 기록이라는 점에서 그의 의미가 매우 높다.

이책에서 김회장은 『서울올림픽이 곧 위대한 올림픽이다』며 올림픽정신을 조명했는데 그는 특히 서울올림픽이 동서화합을 이룬 대회로서 동구 민주화와 한국의 북방외교에도 디딤돌 구실을 했다고 강조했다.

### GAISF회장에 재선

김운용회장은 10월 31일부터 11월 3일까지 모나코 몬테카를로에서 개최된 제24차 국제경기연맹총연합회(GAISF) 총회에

서 회장에 재선돼 3번째 연임회장이 되었다.

GAISF총회는 IOC에 버금가는 국제스포츠조직으로 75개 회원단체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개최돼 김운용회장의 유임과 함께 일부 임원진을 개편시키고 91년도 차기 총회 개최지를 호주 시드니로 결정했다.

### 미국버클리대 총장·부총장에게 명예4단증 수여

김운용회장은 11월 24일 국기원을 방문, 태권도 시범을 관람한 미국 버클리대 총장 창린티엔스와 부총장 왓슨씨에게 미국내 태권도 보급에 애쓴 공로로 명예 4단증을 수여했다.

### 91년도부터 국가대표선수단 선발규정 변경 - 체급별 8명이 토너먼트방식

91년도부터 국가대표 최종선발대회 진출자가 체급별 8명으로 조정되어 토너먼트방식으로 시행된다.

협회에서는 90년 3월에 경기규칙 개정을 통해 남자부의 경우 종래 각 체급별 5명씩 리그전으로 치르던 최종선발전방식을 7명이 겨루는 토너먼트방식으로 바꾸어 국가대표를 최종선발했다. 협회에서는 규칙개정에 있어 90년도 까지 국가대표선발전 1차전을 통해 1,2위자에게 최종진출자격을 부여하던 것을 91년도부터는 2차례의 국가대표 선발전을 통해 우수선수를 확보한다는 방침을 공시하였다.

따라서 91년도부터는 국가대표 최종선발대회에 남자부는 체

급별로 전년도 국가대표 1,2위자, 우수선수선발대회 1위자, 당해년도 국가대표 1,2차선발대회 1,2위자 4명 등 총 8명이 토너먼트방식으로 겨루게 된다.

등, 대학, 일반부 및 여자부는 기존의 체급과 동일하다.

개정된 부별체급은 다음과 같다.

(단위는 kg)

부별 체급	고등,부별 및 일반부	여자부	중학교남자부	중학교여자부	국민학교부
핀급	50까지	43까지	36까지	36까지	30까지
플라이급	50~54	43~47	36~40	36~39	30~32
밴텀급	54~58	47~51	40~44	39~42	32~34
페더급	58~64	51~55	44~48	42~45	34~36
라이트급	64~70	55~60	48~52	45~48	36~38
라이트웰터급			52~56	48~52	38~40
웰터급	70~76	60~65	56~60	52~56	40~43
라이트미들급			60~64	56~60	43~46
미들급	76~83	65~70	64~69	60~64	46~49
라이트헤비급			69~74	64~68	49~52
헤비급	83초과	70초과	74초과	68초과	52초과

## 중학교 남녀 및 국민학교부 체급 변경

내년부터는 부별 체급이 변경된다.

중학교부부가 중학교 남자부와 여자부로 나뉘어 경기에 있어 성을 구분하였다. 또한 국민학교부는 체격조건의 향상에 발맞추어 상향조정되었다. 한편 고

## '90서울도서전에 「태권도」 지 전시

책의 날을 맞아 대한 출판문화협회 주최로 「'90 서울도서전시회」가 10월 11일부터 17까지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에서 개최되어 「태권도」지가 출판전시되었다.

이번 도서전시회에는 6백 50여 출판사에서 모두 20여만권의 도서를 출판했는데 이중 1천8백여종을 모은 잡지광장에 스포츠물로는 「태권도」를 비롯한 22개의 잡지가 전시되었다.

태권도지는 국내 200만 독자를 대상으로 1971년도에 창간되어 매년 4회에 걸쳐, 그동안 총 74호를 발간해 왔다.

이날 전시된 스포츠 잡지 22종 중 아마추어경기단체에서 발간하는 간행지로는 「태권도」가 유일한 것이었다.



# 태권도 소식

## 부산직할시협회

### 제15회 부산직할시 교육감기타기대회

9월 25일과 26일 양일간에 사직 체육관에서 400여명의 많은 선수와 태권도가족이 참석한 가운데 제15회 부산직할시 교육감기타기태권도대회가 치루어졌다.

이날 경기는 국민부, 중등부, 고등부로 나누어 개인전및 단체전으로 치루어졌는데 부별 단체입상을 보면 국민부 1위 반여국교 2위 대연국교 3위 반송국교, 중등부 1위 영남중 2위 재송중 3위 해동중, 고등부 1위 동천교 2위 송도상고 3위 가야고교가 각각 차지했다.

### 제10회 부산직할시장기타기대회

11월 20일부터 22일까지 3일간 구덕체육관에서 제10회 부산직할시장기타기 태권도대회가 개최되어 선수와 태권도가족 등이 참가한 가운데 성대하게 열렸다. 개회식에서 최용수 협회장은 대회사를 통해 본 대회를 마련하여준 안상영 부산직할시장에게 감사를 드린다고 말하고 모든 태권도인들은 우리의 국기를 지키고 민족적 자존심을 지킨다는 사명감과 자존심으로 끊임없는 노력으로 연구개발에 힘써 줄것과 선수들은 평소 갖고 있던 기량을 마음껏 발휘하며 경기에서 지혜와 용기 성실을 가지고 선전분투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안상영 부산직할시장은 격려사를 통해 참가한 선수여러분은 부산태권도를 뿔어지고갈 주역이며 나아가 국위를 세계만방에 선양할 꿈나무로서 이들에게 주는 기대가 매우크다고 말하고 오늘 이 대회를 통해 새로운 기술이 창출되는 뜻있는 대회가 되도록 당부 하였다.

본 대회는 국, 중, 고, 대, 일, 여자부로 나누어 경기가 이루어졌는데 저마다 학교의 명예와 지역구의 대표로서 열띤 응원속에 손색없는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하여 대회가 더욱 열기를 가득차게 하였다.

### 부산태권도사범회 체육대회 개최

10월 28일 구덕체육관에서 전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회별로 배구, 족구 등 체육대회를 가지며 친선도모와 우정을 나누었다.

부산태권도 사범회는 부산시내에 소재한 체육관 관장과 사범자격증을 소지한 4단 이상의 사범 140명이 모여 지난 5월에 발족된 바 있다.

사범회는 부산태권도 발전과 저변확대를 위하여 상호간 체육관 운영방법과 기술을 교환하며 친목을 도모하고 있다.

(부산 윤성노 편집위원)

## 광주직할시협회

### 광주직할시 세종체육관 일행 4명, 중국연변대학 방문

우리동포들이 자치주를 이루

고 생활하는 중국 길림성 연길시에 자리잡은 연변대학의 김수산 체육학부장으로부터 초청을 받아 10월 29일부터 11월 6일까지 중국 방문을 하게되었다.

출국에 앞서 중국이 비수교국이라 정부승인이 무척 힘들었으나 마침내 10월 29일 세종체육관 문일호회장 박정태총재 김종삼관장 세종체육관본관 이기성 수석사범(광주협회이사) 일행4명은 아침9시 홍콩행 KAL기편에 탑승하였다.

10월 30일 17시 5분행 중국 민항기편으로 북경을 향해 출발하여 약4시간후에야 북경공항에 도착하였다. 그 어느 곳보다 검문검색이 철저하였다. 입국수속을 마치고 짐수레에 짐을 싣고 홍콩에서 연결해준 북경주둔 관공여행사 직원을 찾아보았으나 찾을 수가 없어 택시를 타고 호텔로갔다.

호텔에서 저녁을 먹을수있나 알아보니 식사시간이 끝났단다. 할수없이 호텔 밖으로 나와 찾아보니 아무것도 없었다. 소양교육에서 중국은 우리보다 모든 면에서 뒤떨어졌다고는 들었으



나 이렇게 생활품이 부족하고 생활이 불편할줄은 정말 몰랐다.

10월 31일 천안문광장을 구경하고 비행시간 5시간 연착후에야 답승하여 4시간후 연변에 도착하였다. 공항에는 김수산체육학부장 등 많은 교수들이 마중나와 있었다. 이들의 안내를 받아 우리 일행은 연변대학빈관에 도착하였다.

다음날 오전에는 연변대학의 체육대학에서 태권도부원들이 훈련하는 것을 참관하고 이들과 태권도의 역사 및 국제스포츠로

서 각광받는 태권도의 현황 등에 대해 대화를 나누었다. 또한 앞으로 연변대학에 태권도사범과편이 있을시에는 세종체육관에서 협조가 있을 것을 약속하였다.

다음날 우리일행은 두만강을 향해 달렸다. 몇시간후 두만강 다리에 도착하였는데 약 100m 거리의 다리만 건너면 북한이라고 하였다. 그래서 그런지 경계가 아주 심하였다. 참 이렇게 힘들게 중국에와 두만강에서 북한을 보니 정말 가슴이 아팠다. 북한 상공만 통과 할수있으면 남한과는 불과 2시간정도 밖에 걸리지 않을 것 같았다. 우리일행은 무거운 발걸음을 돌려 학교 빈관으로 돌아왔다.

저녁식사후 연변대학 태권도부 학생들이 찾아왔다. 그들은 밤이 깊은 줄도 모르고 태권도에 관해서 물었는데 태권도를 배우려는 열의가 대단하였다. 특히 세계대회 출전준제, 시합 겨루기의 득점, 감점 등에 대한 경기규칙 등을 궁금해했다.

태권도사범으로서 한번쯤 이런곳에서 지도하고 싶은 충동을



# 태권도 소식

받았다.

다음날 우리일행은 태권도부 학생들에게 태권도품새 시범을 보여주었다.

이 자리에서 문일호회장은 연변대학 태권도부원들에게 정부 승인을 얻어 사범과건문제, 태권도책자와 운동용품을 보내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하였다. 또한 내년 7,8월경에 세종체육관 시범단을 파견, 태권도시범을 보이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기성 : 광주직할시협회이사  
· 세종체육관 수석사범

## 대전직할시협회

가장국 · 오정중 · 대전체고  
우승기안아

### 제2회 대전시교육감기대회

제2회 대전직할시 교육감기 태권도대회가 11월3일과 4일 양일간 박경원 대전시 교육감, 한용석 협회장 등 대내외 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충남대학교 체육관에서 성대하게 거행되었다.

이번 대회에는 선수 367명, 임원 및 도장 관계자 그리고 학부모 등 다수가 참석하여 '90년도의 마지막 태권도 대회를 성황리에 마무리 지었다.

박경원대전직할시교육위원회 교육감은 격려사를 통해 『71회 전국체육대회의 부진을 씻고 앞으로 다가오는 제72회 전국체육대회에서는 기필코 상위권 입상을 신념으로 경기에 임해 줄 것과 태권도인들이 지역 사회의 발전과 청소년 선도에도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대회는 "새술은 새부대에 담아야한다"는 말대로 개정된 경기규칙에 의해 신진 심판을 대폭 기용했는데 심판 판정에 이의를 제기 하는 일 없이 순조롭게 진행된 수준급 대회였다.

대전체육고등학교 이계승 감독은 『태권도 경기 규칙의 개정으로 다소 혼란이 예상되었으나 협회 및 일선 지도자의 협조로 질서정연한 가운데 치루어진 모범 대회였다』고 평가했다.



## 충청북도협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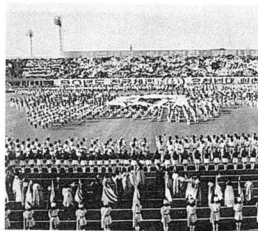
### 제71회 전국체전 태권도경기 종합2위 차지

청풍명월의 훈훈한 인정 속에 사상 처음으로 충북에서 개최된 제71회 전국 체육대회가 「군센 체력」 「힘찬전진」 「밝은내일」이란 슬로건 아래 타도에 비해 약한 도세를 극복하고 전 도민의 단결과 화합으로 성공리에 마치고 있다.

경기력에 있어서도 하위권에 서만 맴돌던 충북은 이번에도 종합 3위라는 경이적인 기록을 세웠다. 이는 과거 소년체전 7연패를 이룩한 충북의 저력을 과시한 것이라 하겠다.

특히 태권도경기는 본도 최북단에 위치한 제천시에서 10월 16일부터 19일까지 4일간 실시되었는데 본도 태권도 협회와 제천시 협회와의 유기적인 협조로 무사히 끝을 맺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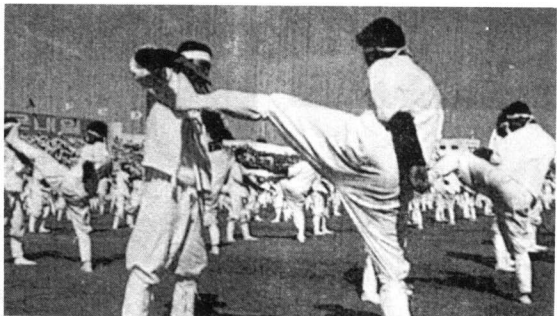
더욱이 제천시장은 전국 시도 임원들에게 환영만찬을 베풀어 주었고, 대회기간 중 매일 각 시도 선수 및 임원 전원에게 이고



장의 토산물인 도토리묵을 무료로 제공해 훈훈한 양반 고장의 이미지를 심어주었다.

태권도 경기력에 있어서도 서울 특별시에 이어서 충북이 종합성적 2위라는 놀라운 기록을 이룩하여 충북이 상위권에 진입하는데 큰 몫을 했다.

한편 전국체육대회 개막식 직후 공개행사에서 청주기계공고와 청주신흥고 학생 1,102명이 태권도 마스게임 「희망을 열며」라는 주제를 가지고 백만기 사범(청주공고교사)의 지도로 전개한 태권도 시범은 씩씩한 힘과 세련된 기를 바탕으로 젊은이의 힘과 꿈을 표현하여 화랑의 후예임을 상징적으로 나타내어 많은 사람들로 부터 박수갈채를 받았다.



이번 대회에는 호ות한 대전시의 정이 넘쳐 화기에애한 가운데 진행되었는데 경기뒷이야기와 미담사례를 모아 봤다.

●시합회 신재홍(7단) 총무이사는 지독한 감기와 몸살에도 불구하고 대회장을 끝까지 지키며 대회 준비에 만전을 기해 작은 고추(?)가 땀과 주위에서 한마디씩...

●용진체육관(관장 박재근)소속 박상길(가오중3년)군은 태권도 스승인 부친 박관장과 함께 코치, 선수로 출전, L-미들급에서 이종성(신탄중양중)군을 압도적으로 물리치고 결승에 올랐으나 송재현(중앙중)선수와 접전 중 오른쪽 골절로 아깝게 은메달을 차지했다. 박군은 부상에도 불구하고 비닐끈으로 묶은 후 선전하여 이를 지켜본 태권도인들은 외골수인 아버지와 "부친자전"이라고 격려의 박수를 보냈다. 이 감투정신을 높이 사 대성고등학교 태권도선수로 스카우트되는 행운을 안아 부자싱글별급.

●대전문성국민학교(감독김동철)는 2명의 미니 선수단(?)으로 금1(김장열), 은1개(김태성)를 획득하여 최고의 성과를 올린팀이 되기도. 자매체육관인 오현도장에서 임상선수 2명에게 1년간 부설 컴퓨터 학원 무료 수강증을 교부, 선수의 사기증진과 주위의 부러움을 사기도.

# 태권도 소식

폐회식 공개행사 때에도 대회 끝막음을 한 「택견시범」은 우리 고유의 택견을 유일하게 전승해 온 충주중학교 800여명의 학생들에 의해 펼쳐졌다.

이렇듯 충북은 오래 전부터 전해 내려오는 고유무술인 태권도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고 후진양성에 계속 힘써 그동안 수많은 태권도인을 배출하였고, 국가대표 선수를 배출, 충북의 명예는 물론 국위선양에 이바지했다.

대만 고ungs시 태권도 위원회 임원 충북방문

충청북도 태권도 협회의 초청으로 자유중국 고ungs시 태권도 위원회 임원 21명이 임준홍 단장의 인솔로 지난 11월3일부터 7일까지 4박5일간의 일정으로 본도를 방문하였다.

대만의 고ungs시 태권도 위원회와는 1978년 12월8일 故 정갑순 충청북도 태권도 협회장재직시 자매 결연을 맺은후 계속 2년에 한번씩 상호 초청 및 방문으로 오가면서 두 나라간의 친선과

우의를 다져왔다.

고ungs시 태권도위원회 일행은 민속촌을 비롯한 문화 유적지를 두루 살펴며 태권도인들과 친선을 다지고 시범경기를 통해, 태권도의 기술향상을 도모한뒤 귀국했다.

‘충북 태권도인의 밤’행사개최

해마다 연말에 태권도인이 모두 한자리에 모여 태권도인간의 결속과 친목을 다지는 ‘태권도인의 밤’ 행사가 11월 3일에 있었다.



정학금을 수여하는 진중윤회장



금년에는 전국체전을 본토에서 처음으로 치루었고, 우수한 성적을 거둔 가운데 행사가 끝나 다른 해보다 다소 일찌기 흥겨운 태권도인의 자축연 행사를 갖게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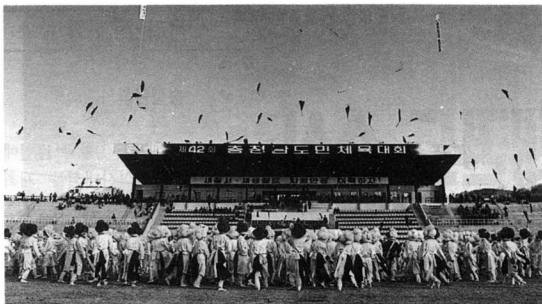
특히 이번 태권도인의 밤에는 지난 제71회 전국체전 태권도 경기 운영에 봉사한 인사 및 우수선수로 선정된 메달리스트들에게 각종 시상과 장학금이 전달 되었다.

이날 행사에서는 헌신적인 봉사로 체전을 성공적으로 치루는데 애쓴 김학렬(충북국교 연맹부회장), 김경태(본도협회이사), 추정엽(·) 지민규(협회지도사법), 박승동(체천협회지도사법), 박상규(체천동명교지도사법) 씨에게 공로패가 수여됐고 20명의 운영요원에게는 표창장이 전달 되었다.

또한 전국체전때 우수선수로 메달을 획득한 9명에게는 장학금이 지급되었다.

이번 행사때에는 때맞추어 본도 협회를 방문한 대만 고웅시 태권도 위원회 임원들의 환영식도 겸해 더욱 뜻있고 흐뭇한 시간을 가졌다.

〈충북 박한규 편집위원〉



체육대회가 개최되었다.

이번 대회에서는 공주시가 우승을 차지했고, 서산시 준우승, 보령군 3위, 홍성군이 4위를 차지했다.

### 제8회 도지사기타기시군대학 천안시우승

11월 15일부터 18일까지 대천 학생체육관에서 개최된 도지사기타기시군대학대회는 태권도관계인사 및 선수들이 경기장을 가득 메운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이번 대회에는 초·중·고·대학·일반·여자부에 20개시군에서 982명의 선수들이 참가한 가운데 열전을 펼쳤는데 우승의

영광은 천안시에 돌아갔고 준우승은 논산군, 3위는 홍성군이 차지했다.

### 대명중 전교생 태권도 수련

대천시 대명동 소재 대명중학교(교장 서채석)는 지난 3월 20일에 태권도팀을 창단한 이래 900명의 전교생에게도 주2회 태권도를 지도하면서 태권도를 적극 육성하고 있다.



선수부로 구성된 태권도팀은 이제두감독, 이병희코치의 지도 아래 매일 오전과 오후를 이용 강화훈련을 실시하며 태권도명문팀으로 성장하기 위해 땀을 흘리고 있다.

〈충남 서인원 편집위원〉

## 충청남도협회

### 제42회 도민체육대회 공주시 우승

11월 1일부터 3일까지 3일간 공주에서는 충청남도 20개시군에서 만 23세 이상의 일반부선수 137명이 참가한 가운데 도민





# 태권도 소식

## 전라남도협회

### 승품단심사대회

전남협회에서는 9월과 11월에 두차례의 승단심사대회를 개최하였다.

9월 30일 전남·동부지역 승품단 심사대회는 태권도훈련장과 여수전남실내체육관에서 실시되어 1,014명이 응심한 가운데 988명이 합격했다.

품단별 합격자수는 1품 388명, 2품 107명, 3품 22명, 1단 269명, 2단 120명, 3단 62명, 4단 19명, 5단 1명이다.

한편 11월 25일에 태권도훈련장과 목포대학교 실내체육관에서 실시된 승품단심사대회에는 813명이 응심하여 768명의 합격자를 배출했다.

품단별 합격자수는 1품 273명, 2품 68명, 3품 7명, 1단 229명, 2단 141명, 3단 39명, 4단 10명, 5단 1명이다.

고흥 풍양국·여수중 회장기, 여수시 도지사기 차지

제7회 회장기타기 초중학교 태권도대회 및 제11회 도지사기타기 시군대항태권도 대회가 10월 27일과 28일 양일간 태권도훈련장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대회에는 회장기타기대회에 개인 130명, 초등부단체 6팀, 중등부단체 6팀 도지사기타기대회에 15개시군이 참가했다.

입상전적을 보면, 중등부 1위는 여수중, 2위 유달중, 3위 수북중, 초등부 1위 고흥풍양국민학교, 2위 여수마평국민학교, 3

위 목포연동국민학교가 차지했고 도지사기에서는 1위 여수시, 2위 보성군, 3위 영광군이 차지했다.

### 전남추계종별대회

11월 10일과 11일 이틀간 전남추계종별태권도대회가 담양국민학교에서 개최되었다.

치열한 경쟁이 펼쳐진 가운데 부별 우승의 영광을 차지한 선수는 중등부에 이종민(여천화양중) 정도전(여천화양중) 김승철(여수중) 임성민(여천화양중) 장운(함평월야중) 강종용(여수중) 김훈(담양중) 마정진(여수중고중) 양유석(완도약산중) 김구(영광중), 고등부에 송지홍(여수한영공) 김원준(구례고) 임창현(여수한영고) 박홍철(여수한영고) 김춘호(완도수산고) 김수호(화순능주고) 유경태(보성고) 신희아(완도약산고)

<전남 김현수 편집위원>

## 경상북도협회

제1회 상주시·군 협회회장기 태권도 대회

### 회장단 친초금 회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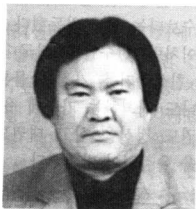
상주시·군 태권도 저변 확대와 기량 향상을 위하여 제1회 상주시·군 협회회장기 태권도 대회가 10월13일부터 14일까지 상주실내체육관에서 관계 기관장 및 협회 임원, 내빈, 초·중·고 선수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90년 3월 상주시·군 태권도

협회 창립 총회를 가진후 처음  
맞은 대회로 경기는 초·중·  
고, 각체급별 개인전과 국민학  
교별 단체 대항전으로 치루어  
졌다.

이대회에 참가한 선수들은 학  
교와 나 자신의 명예를 걸고 그  
동안 연마한 우수한 기량과 역  
량을 유감없이 발휘하였다.

이날 김정규 초대회장은 『태  
권도인의 긍지를 새롭게 인식하  
여 질서와 도의를 더욱 무겁게  
아는 훌륭한 태권도인이 되자』  
는 당부와 아울러 300만원을 찬  
조하였으며, 이안장학회 이사장,  
국제개발원 이사장인 이재훈 고  
문은 격려사에서 『본고장 태권  
도의 발전으로 국기를 선양하  
자』며 선수를 위하여 장학금  
300만원을 내놓았고 각 체급별  
우수자에게 각 10만원씩의 장학  
금을 전달하였다.



상주시 김정규 회장

또한, 부회장과 이사진에서  
350만원을 찬조해 참가선수들의  
사기를 드높였다.

이날 행사에서 국민학교 단체  
대항 우승은 양정국교, 준우승  
은 함창국교, 3위는 낙동국교가  
차지했다.

부별 우승자를 보면 초등부에  
박성호(상명국) 김용진(청리국)  
김현국(낙동국) 박정관(양정국)  
임형진(청동국) 황인준(상주남



부국) 채화동(함창국) 이주왕  
(상주국), 중등부에 김기창(중  
동중) 김성근(낙운중) 김병윤  
(낙운중) 황덕성(낙운중) 김재  
영(남산중) 김지호(상주중) 권  
호영(공검중) 박주영(청리중)  
이정완(함창중) 김인수(청리중)  
김진우(남산중), 고등부 안정찬  
(상산고) 박상호(함창고) 박상  
호(상주고) 김시업(상주고) 안  
상화(상주고) 김승웅(상주고)  
이섭(함창고) 안희광(상주공  
고), 여자부 박혜영(공검중) 이  
은숙(공검중) 정연옥(상주여고)  
최선녀(상지여중고)가 각각 차  
지했다.

#### 경북 남, 여 우수선수 선발대회 및 유공자 시상

한해동안 각종대회에서 입상  
한 우수선수들만 출전해 최우수  
선수를 뽑는 90년도 경북 남, 여  
우수선수 선발대회가 11월 22일  
과 23일 경북실내체육관에서 개  
최되었다.

이날 개최식에서는 예조해 상  
임부회장이 대회를 통해 『한

해를 마무리하는 대회로 최선을  
다하여 좋은 성적을 얻을 것파  
이 대회가 91년도 각종대회에  
좋은 성적을 기대하는 마음의  
준비를 하는 대회가 되라』고 당  
부 하였다.

이번 대회에는 초등부 68명,  
중등부 63명, 일반부134명(고등  
부, 대학부 통합), 여자부 21명  
등 총 286명이 출전해 체급별  
강자를 놓고 열전을 펼쳤다.

시상식에서는 초등부에 임형  
진(청동국), 중등부에 장진(금  
오중), 일반부에 손유남(영천  
고), 여자부에 이은숙(공검중)  
이 최우수선수상의 영예를 차지  
했다.

또한 이날 제28회 도민체전  
개최지인 경주시태권도협회와  
제1회 상주시군 태권도협회장이  
타기 대회 유공자 시상식이 아  
울러 거행되었다.

#### ▲ 수상 유공자

경주시태권도협회

회장: 최대환(성동체육관장)

전무이사: 최귀돌(불국사체육  
관장)

총무이사: 최병준(협성체육관

# 태권도 소식

장)

이사: 이진(문화체육관장)

상주시.군 태권도협회

화랑체육관 사범: 이상달

화서체육관 사범: 박희석

청리체육관 사범: 김호중

승리체육관 사범: 김훈태

은척체육관 사범: 위성영

〈경북 신용우 편집위원〉

## 경상남도협회

### 故 박응용부회장에 9단 추서

경남협회 박응용부회장이 지난 9월 6일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유명을 달리했다.

故 박응용부회장의 영결식은 이순달회장을 비롯한 태권도관계 인사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남태권도협회장 및 가독교식으로 엄숙히 거행되었다.

대한태권도협회에서는 故인의 태권도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기려 9단을 추서하였다.

#### ▲故박응용부회장 약력

- 1958. 태권도 창무관 경남 중앙도장 개관
- 1978. 경남태권도협회 이사
- 1980. 국기원 7단 승단
- 1980. 경남태권도협회 전무 이사
- 1982. 경남태권도협회 재무 이사
- 1985. 경남태권도협회 이사
- 1986. 경남태권도협회 부회장
- 1988. 국기원 8단 승단
- 1989. 마산시 태권도연합회 고문
- 1989-90. 국기원 고단자 심사 위원 역임.

## 20일간 유럽순회 경기

경남태권도협회 임원과 선수 일행은 11월 15일부터 12월 4일 까지 유럽 3개국(영국, 벨기에, 독일) 순회 경기를 가졌다.

11월 15일 출국, 첫기착지인 영국에 도착한 선수단 일행은 런던 관광과 함께 17일 영국대표팀과 태권도 경기를 가졌는데 2체급에서 K·O시키는 기염을 토했다. 한편 18일에는 런던과 맨체스터 사회체육센터에서 200여명의 성인 태권도인을 대상으로 태권도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또한 벨기에 브루셀에서는 열광적인 관중들의 환호속에 벨지움팀과 시합을 가졌다.

11월 23일 독일의 슈투트가르트에 도착한 선수단은 다음날 독일대표팀과 친선경기를 가졌는데 신체적인 면에서 우리나라 선수보다는 훨씬 월등했다.

이처럼 선수단은 각국대표팀과 친선경기를 가짐은 물론 세미나도 개최하는 가운데 유럽에 태권도 정신을 심고 태권도 기술을 유감없이 발휘했다.

〈경남 황길성 편집위원〉



## 제주도협회

### 제71회 전국체전 출전 금1, 동5개 획득

제주도협회에서는 지난 10월 16일부터 19일까지 충북 제천농고체육관에서 개최된 전국체전 태권도경기에 출전, 금1·동5개로 종합 10위를 차지했다.

일반부 웰터급에서 우승, 체전 2연패로 제주도 선수단에 4번째 금메달을 안겨준 진정우(상무)선수는 제주 태권도의 간판.

서귀중양국교 시절부터 태권도를 시작, 84년 제주에서 열린 제13회 전국소년체전에서도 우승, 부산 체육고에 스카우트돼 꾸준히 전국대회에서 입상하며 태권도계의 유망주로 성장하였다.

1백84센티의 훔칠한 키에 오른발 받아차기가 주무기인 진정우선수는 한국체대 재학중 지난해 4월 상무에 입대, 국가대표로 선발돼 '89년도 제3회 월드컵 게임과 올해 5월 제9회 아시아 선수권대회에서 우승한 전적을 갖고 있다.

### 제6회 회장배타기전도대회 남주중 10체급 석권

11월 8일과 9일에 제주시민회관에서 개최된 회장배타기전도대회에서는 서귀중양국민학교, 남주중, 남주고, 제주대가 부별 우승을 차지한 가운데 막을 내렸다.

중등부우승을 차지한 남주중은 86년도이래 도내 전대회를



남주중 전경

휘쓸며 20연승 행진을 기록했다. 남주중은 이번 대회에서 중등부 11체급 중 라이크웰터급을 제외한 10개 체급에서 금메달을 획득하는 기염을 토했다.

고등부에선 남주고가 올해 고교선수로는 유일하게 제14회 연세대총장기 전국대회에서 은메달을 획득했던 고병국이 웰터급에서 우승한 것을 비롯해 핀급 김병석, 플라이트급 고용석, 밴텀급 고성권, 라이트급 강운만 등이 5개의 금메달을 따내 금메달 2개에 그친 오현고를 제치고 종합2연패를 차지했다.

80명의 선수가 출전 각축전을 벌인 초등부에선 서귀중양국교와 대정국교, 서귀서국교가 각2개씩의 금메달을 따냈으나 은메달1개가 많은 서귀중양교가 대회 첫 우승의 감격을 누렸다.

서귀중양국교는 핀급에서 이정식이 첫 금메달을 뽑고 밴텀급에서 이창원이 은메달에 머물렀으나 웰터급에서 이광석이 오우정(서호교)을 판정으로 제압 두번째 금메달을 획득함으로써 우승했다. 준우승은 동메달이 한개 앞선 대정국교가 차지했으며, 김현섭, 회섭 형제가 나란히 우승하며 선전한 서귀서교는 3위에 그쳤다.

초등부 여자 통합전에선 고희아(서귀중양국교)가 오선화(아라국교)를 맞아 찍기공격을 효과적으로 펼쳐 판정승, 첫 금메

달을 목에 걸었다.

이와함께 표선중 오지혜는 여자부 핀급에서 언니인 소화정(세화고)을, 허애숙(함덕중고)은 라이트급에서 김효정(대정여고)을 꺾어 우승했다.

대학, 일반부에선 제71회 전국체전 동메달리스트인 정태호, 성의천이 활약한 제주대가 종합우승, 대회 4연패를 안았다.

이번 대회 최우수 선수상은 고등부 페더급에서 우승한 오현고 서배홍이 수상했다. 지도자상은 장승국, 이광훈, 안영익, 최철영씨가 각각 받았다.

부별우승자명단

초등부 : 유정식 이광석(서귀중양국), 김희섭, 김현섭(서귀서국), 김정선(토명국), 고재필(서귀교), 강승철 김정준(대정국)

중등부 : 황용길 김병수 조철주 고대휴 오현국 이광원 변경수 허영수 양성흡 오명훈(남주중), 오용석(표선중)

고등부 : 김병석 고용석 고성권 강운만 고병국(남주고), 서배홍 강대용(오현고), 라용균(대정고)

일반부 : 이창원 황성철 전동호(신촌체), 양승관 정태호 성의천 김정규 강운신(제주대)

여자부 : 고희아(서귀중양국), 오지혜(표선중), 고기순(남원체), 박정미 윤덕희(대정여고), 김연희 허애숙(함덕중고) **태권**

(제주 정한수 편집위원)

# 태권도 소식

## 국기원

### 고단자 보수교육 신설

국기원은 91년부터 6, 7, 8단을 대상으로 고단자 보수교육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국기원은 그간 고단자 심사에 앞서 당일 오전 3시간의 교육을 갖고 심사에 임하도록 해왔으나 짧은 교육기간으로 그 효과가 충분하지 못하다고 판단하여 91년부터 연간 2차례의 고단자 보수교육 프로그램을 신설하였다.

주로 승단심사를 앞둔 고단자들이 참가할 것으로 보이는 이 교육은 유단자 품새와 논문작성법에 대해 16시간으로 실시된다. 교육비는 2만원.

### 컴퓨터 시스템 교체

국기원은 방대해진 단(段)관리 업무에 대한 효율적 관리를 위해 91년도 상반기내에 컴퓨터를 교체기로 하고 준비작업에 착수하였다. 7,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새로 도입되는 이컴퓨터는 「삼보알파2000」으로 각 부서에 퍼스널 컴퓨터를 연결, 전산업무가 확장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업무관리가 예상된다고 관계자는 말한다. 또, 향후 대한태권도협회에도 컴퓨터가 도입될 때를 대비하여 프로그램의 연결이 가능하도록 구성될 것이라고 밝혔다.

### 사범교육, 72시간으로 환원

국기원은 현행 40시간으로 실시하던 사범교육을 91년부터 72

시간으로 다시 환원키로 하였다.

이는 사회체육지도자로서의 보다 우수한 사범배출을 위해, 태권도교육의 특수성을 강화하는 알찬 내용으로 변경하여 10일간 72시간으로 구성된다.

국기원은 89년말 3급생활체육지도자교육이 신설됨으로써 교육내용의 중복을 피하기위해 사범교육을 5일간 40시간으로 축소한 바 있다.

## 세계태권도연맹

### 제1회 소련컵대회 감독관 파견-지도자교육 및 심판교육 병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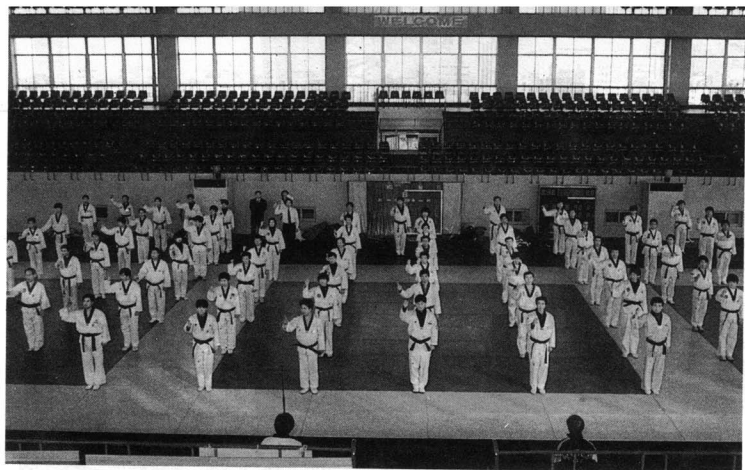
세계연맹은 11월 3일부터 4일까지 소련의 우크라이나공화국 심페로폴시에서 개최된 제1회 소련컵대회에 송상근사무차장의 2명을 감독관으로 파견하여 대회의 준비와 운영전반에 걸쳐 지도케 하였다.

소련내 WTF계 최초의 대회가 된 제1회 소련컵대회에는 15개 공화국에서 162명의 선수가 참가하여 성황리에 마쳤다고 한다.

대회에 앞서 10월 24일부터 31일까지 8일간 실시한 지도자교육과 심판교육에는 각 공화국에서 124명의 교육생이 모여 교육을 받았는데, 높은 열의로 인해 전반적인 성과가 매우 컸다고 세계연맹은 평가하였다.

### 국제심판 보수교육 실시

세계연맹은 12월 17일부터 20일까지 국기원에서 국내의 국제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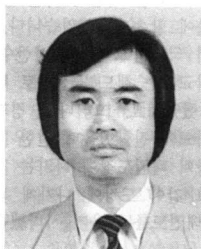
국제심판 보수교육(국기원)

관들을 모아 보수교육을 실시하였다.

국내의 1, 2, 3급 총 127명의 국제심판 중 84명이 참가한 이번 보수교육에서는 개정된 경기규칙의 해설과 심판신호실기를 강습하였다.

91년에는 미주지역과 동남아시아의 국제심판보수교육을 계획하고 있는 세계연맹은 지난 10월 13일부터 17일까지 제8회유럽선수권대회가 열린 덴마크에서도 보수교육과 강습회를 실시한 바 있다.

**'90생활체육유공자상 수상  
-최만식 경기부장**



세계연맹 최만식 경기부장이 12월 21일 프레스덴타 국제회의실에서 체육부로부터 '90생활체육유공자상'을 수상하였다. 최부장은 77년 외국어대 영어과를 졸업하고 85년부터 연맹에 경기부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 김지향(경기 광명상고 1년)
- 원선진(경기 효원고 1년)
- 지 환(전남 여수고 3년)
- 유수진(경기 오산여중고 3년)
- 안성주(대전체고 2년)

**국민체육진흥공단**

**86·88메달리스트 전통혼례무료 실시**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는 86·88대회 및 '90 북경아시아경기대회 메달리스트들에게 올림픽공원 평화의 광장 수변무대에서 무료로 전통혼례를 올려준다.

전통혼례는 식장준비에서부터 신부화장, 초례상차림, 의상대여, 원판사진, 비디오촬영, 혼례행사사진, 폐백실사용 등을 진흥공단에서 무료로 제공하게 된다.

'86아시아게임과 '88서울올림픽대회에서 메달을 따냈던 태권도 선수들이 올림픽 공원에서 전통혼례를 올린다면, 그날의 영광을 되새기는 뜻깊은 결혼이 될 것 같다. **태권**

**기 타**

**태권도선수9명 체육장학생 선정**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수여하는 체육장학생에 태권도선수 9명이 선정되어 장학금 혜택을 받게 되었다.

'89년도와 '90년도 상반기에 실시된 국제대회 및 국내대회의 입상자로 학업성적이 평균 60점이상인 중고등학교 재학생 중에서 선정된 체육장학생은 다음과 같다.

▣ 중학부

- 정정래(인천 구월중 2년)
- 김영길(부산 재송중 3년)
- 심기선(경기 태성중 3년)

▣ 고등부

- 박경숙(제주 서귀포여고 1년)

# 체육을 위해, 체육인을 위해 일할것...

민자당 체육청소년전문위원 최창신씨



## ■ 최창신

1945년 전북전주출생, 경기고·고려대 영문과·한양대 대학원 졸업(체육학전공), 서울신문사 기자, 체육부초대 대변인·체육과학 국장·지도국장을 역임, 현재 민자당 체육청소년전문위원.

**고교때 태권도 시작, 승단은 늦었지만 운동에 소질이 있어 고단자도 거뜰히 이겨**

집권 여당인 민자당과 체육부

의 정책수립에 있어 가교역할이라 할 수 있는 민자당 체육청소년 전문위원 최창신씨는 태권도 4단의 태권도인이다.

『지금도 가까운 곳에 옛날과 같은 분위기의 태권도장이 있으면 태권도를 수련하러 다니고 싶습니다.』며 태권도를 수련하던 시절로 되돌아가고 싶다는 최창신위원.

『어린 시절부터 태권도를 배우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도장 입관비도, 도복을 살

돈도 부모님께 달라고 할 처지가 못될만큼 어렵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국민학교때는 육상선수로, 중학교때는 핸드볼 선수로 뛰기도 했었지요. 그러다가 경기고등학교에 진학했을때 친한 친구 몇명이 태권도장에 나가는 것을 보고 같이 도장에 나가게 되면서 태권도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태권도는 늦게 시작했고 비록 승단은 늦었지만

워낙 운동에 소질이 있어서 그보다 한참 높은 단의 동료를 쉽게 이기기도 했다고.

『2급이었을 때였지요. 승단심사를 보는데 나만 대련을 시키지 않는 것이었어요. 왜 그런지도 모르고 심사를 마쳤는데 그제서야 관장님께서 절 부르시더니 2단자와 대련을 시키셨어요. 쉽게 K.O승을 거두었지요. 다시 3단자를 부르시더니 대련을 해보라 하셨는데 또 제가 이겼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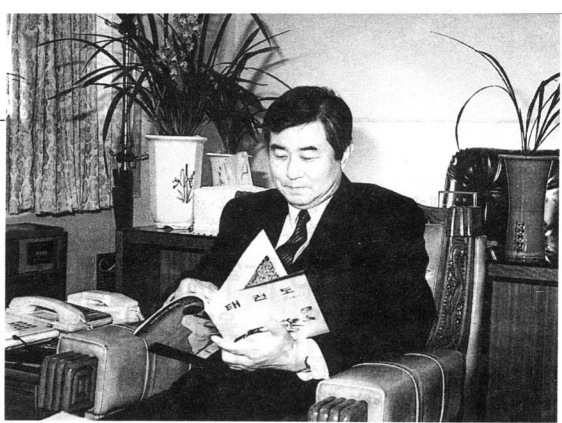
### 국내의 대회에도 수차례 출전, 무패를 자랑하던 그가 단 한차례 패배의 경험을 갖고 있는데...

고려대학에 다닐 때에는 각종 국내의 대회에도 수차례 출전하였다.

국내대회에서 무패를 자랑했던 최창신위원에게 유일하게 한차례의 패배를 안겨준 시합은 지금도 생생히 기억에 남아 있는 즐거운 추억거리이다.

최위원에게 패배를 안겨준 장본인은 현재 동성고 체육교사이며 종교연맹 전무이사인 김인수 씨.

당시 해병대 소속으로 출전한 김인수씨와의 대전은 막상막하의 접전 끝에 무승부를 기록했다. 당시 경기규칙은 무승부일 경우 체중이 적은 사람에게 승리가 돌아가게 되었다고. 지금은 다른 김전무보다 최위원의 신체가 훨씬 좋아보이지만 당시에는 최위원이 시합전날 체중 미달로 계체실격을 당할까봐 물한동이를 마시고 출전했을 정도



로 체중이 적게 나갔으므로 승리는 몸무게를 달아보나마나였다.

계체실로 걸어가는데 김전무가 『나는 지면 백령도로 쫓겨간다.』고 침통하게 최위원에게 한마디를 던지더라는 것. 당시 대학생이었던 그는 『나야 저도 상관없지만 군인인 그를 백령도로 쫓아보낼 수는 없다.』는 의리감으로 그에게 승리를 내주었던 것.

지금도 그때 그 기억을 떠올리며 두사람은 즐거운 해후를 갖고 한다.

최위원은 대학졸업 후 1969년도에 서울신문사에 입사했는데 3년간 사회부기자로 있다가 1972년부터 체육부로 옮기기전인 1985년도까지 체육부기자로써 태권도를 담당했다.

1985년도에 체육부가 신설되면서 초대대변인으로 발탁된 그는 이후 1989년 1월에 체육과학국장, 1990년 2월에 체육지도국장을 역임한 뒤 지난 11월 12일부로 민자당 체육 청소년 전문위원으로 자리를 옮겼다.

### 태권도의 올림픽 정식종목 채택 추진에 신중론 제기

그는 태권도인이자 정부의 체

육행정 실무자로서 태권도의 올림픽 정식종목 채택 추진에 대하여 다소 신중론을 제기한다.

『태권도계에서 국기인 태권도를 정식종목으로 채택시켜 우리의 문화유산을 전 세계인의 스포츠로 심는다는 것과 많은 메달을 확보해 국위를 선양한다는 측면에서 올림픽정식종목채택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문을 여는 최위원.

그러나 최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올림픽종목이 아닌 지금도 태권도는 이미 140여개국에 널리 확산되어 세계인이 즐기는 무도스포츠로서 각광받고 있다. 이 사실만으로도 우리의 문화가 이식되었다는 것은 더 설명할 필요가 없다는 것.

기술적인 측면에서 볼때 한국의 태권도는 각종 국제대회에서 우위를 자랑하고 있으나 올림픽종목으로 채택된다면 낙관할 수 없다. 또한 각국에서 정책적으로 올림픽종목으로 육성시키더라도 스포츠과학이 엄청나게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내에 기술적인 측면에서의 발달뿐만 아니라 태권도장이 활성화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해외에 파견된 한국인 사범들이 지금까지 누려온 중주국 사범으로서의



위상이 단시일내에 무너져 버릴 것이다. 이는 유도가 올림픽종목이 된 후의 실상을 보면 자명해질 것이라고 본다. 따라서 태권도의 무도성을 살린 전세계태권도의 생활화 실현이 올림픽정식종목채택보다 한국의 위상을 더 공고히 할 것이라는 것이 그의 견해이다.

### 국내의 일선 도장이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시급

그래서 그는 태권도계가 『국내의 일선 도장이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제가 운동하던 시절만 해도 태권도는 중·고생 이상의 성인층의 운동이었습시다. 지금은 유치부 또는 국고 저학년층을 중심으로한 일과성(一過性) 학원이 되어버렸습니다.

전국민을 대상으로한 무도교육의 장으로 활성화되기 위해서 협회에서는 기술개발위원회나 자문위원회 등을 구성해 태권도 교육프로그램 등을 개발하는 등 도장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에서 정책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세계 각국에서 도장을 운영하는 사범들의 재교육에도 관심을 가져 이들의 위상을 높여주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는 국가의 체육정책이 생활체육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과도 같은 맥락에서 정부와 태권도계가 함께 태권도를 생활체육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을 강조한다.

## 태권도의 무도성을 살린 전세계태권도의 생활화 실현이 올림픽정식종목채택보다 한국의 위상을 더 공고히 할 것

『국가의 생활체육 정책은 총체적의미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종목별 생활체육 확산정책은 종목별로 계획이 수립되고 실천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따라서 태권도계는 전 국민 생활체육화를 위해 방안을 강구하고 실천하는 과정에서 한단계씩 정책지원을 요청하는 식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 생활체육과 엘리트체육을 조화시키는 것이 앞으로의 과제

또한 경기단체의 법인화가 추진되고 있는 시점에서 그는 『경기단체가 법인화됨으로써 직제를 개편, 엘리트 스포츠의 관리뿐만 아니라 생활체육활성화방안을 추진하는데 역점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는 생활체육의 바탕위에 엘리트체육이 발전할 수 있도록 토양을 개선해야 합니다.』라며 경기단체는 생활체육과 엘리트체육을 조화시키는 것이 앞으로의 과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최위원은 체육에 대한 남다른 철학을 갖고 있다. 그는 민주시민을 키우기 위해서는 체육의 역할이 크다고 강조한다. 즉 자유와 평등을 원리로운 민

주주의 사회에서 민주시민이 갖춰야할 덕목으로 협동정신, 준법정신, 질서인식을 꼽을 수 있는데 이러한 덕목을 키우는 교육의 장은 체육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장관의 아들이건 노동자의 아들이건 똑같은 여건에서 함께 뛰놀리는 가운데 자연스럽게 이러한 것들이 습득되어진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는 체육을 중요시하는 교육, 체육을 통한 민주시민의 육성을 강조한다.

그가 체육인이듯이 그의 부인 김영자씨는 1968년도 멕시코올림픽과 1972년도 뮌헨올림픽에 참가한 배구국가대표출신이다. 또한 그의 동생들도 태권도유단자로서 최덕신씨는 KBS체육부 기자로 태권도를 담당하고 있고, 최유신씨는 정회여성 체육교사로 협회 기술심의회 기획본부 위원이기도 하다.

최위원은 체육의 위상에 대해서 『도양이 척박한 가운데에서는 아름다운 장미가 피어나지 못하는 것과 같이 우리나라에서는 체육이 대접받기 어려운 문화적 환경 속에서 자랐다. 지금은 경제적 성장과 함께 86·88 이후 체육에 대한 인식이 급속히 성장되고 있으나 아직도 그 가치가 30퍼센트밖에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진단하면서 『앞으로 나머지 70퍼센트의 가치를 찾기위해 체육인 스스로가 앞장서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는 한편 『나의 여건이 허락하는 한 체육을 위해, 체육인을 위해 일할 것』이라는 굳은 의지를 보여주었다.



# 정형외과의 권위자이며 태권도인들의 주치의

## 도영병원장 김도영박사

### 태권도인에게는 무료진료도

도영병원의 원장이자 정형외과장을 맡고 있는 김도영박사는 정형외과 분야에서는 권위자로 널리 알려진 의학계의 중진이지만 태권도인들에겐 가장 가까운 주치의이기도 하다.

전국민 의료보험이 실시되기 이전까지만해도 도영병원은 태권도장의 사범이나 도장 수련생들이 부상을 당했을 경우 거의 무료로 진료를 해주거나 입원을 했을 경우 의료보험 혜택을 주어 치료를 받도록 해왔다. 지금이야 누구든 의료보험 혜택을 받기 때문에 별로 빛이 나지 않지만 의료보험이 없던 시절에 사범들이 맘놓고 드나들 수 있도록 도영병원의 문을 개방해 놓고 한가죽처럼 태권도인을 돌보았던 것이다.

### 전쟁통에 부산에 피난, 포로 수용소에서 사환노릇하며 태권도 배우기 시작

김박사가 태권도를 배우기 시

작한 것은 전쟁의 와중에서였다.

1950년도에 6.25사변이 일어나면서 부산으로 피난을 내려간 그의 일가족은 여느 피난민과 마찬가지로 목숨을 부지하기에 바빴고 당시 중학교 3학년생이었던 그도 생활전선에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1951년도 초에 부산 거제리 포로수용소 병원장실에 사환으로 취직을 하게 되었던 것.

통제된 생활 속에서 포로들은 저녁이되면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 몇명의 고단자의 구령에 맞춰 태권도를 배우게 되었는데 평소 운동에 관심이 많았던 김박사도 포로들 틈에 끼어 태권도를 시작하게 되었다.

김박사가 운동에 관심을 가진 것은 「작은 키」 때문. 1미터 63센티밖에 되지않은 키 때문에 운동이라든 해서 건장한 체구를 가져야겠다고 생각했다는 것.

포로 수용소에서 시작하게 된 태권도는 바로 내가 찾던 종목이 이거다 싶을 만큼 흥미를 갖게 했는데 여기서 그는 1여년을



### ■김도영박사

1936년생(5단) · 고려대의학 박사학위(정형외과) 해운중령(군의원) 예편 · 현재 도영병원장, 고려대 의과대학외래교수 · 서울시 병원회원장, 대한병원협회 부회장 · 동방아동복지회 이사, 장애자재활원 이사

“  
**전국민 의료보험이  
 실시되기전까지만해도 도영병원은  
 태권도장의 사범이나 도장 수련생들이  
 부상을 당했을 경우 거의 무료로  
 진료를 해주거나 입원을 했을 경우  
 의료보험 혜택을 주어 치료를 받도록 해왔다.**  
”

하루도 빠짐없이 태권도를 수련하게 된다. 그러나 1953년 휴전과 함께 서울로 환도하게 되면서 태권도를 일시 중단한 그는 고려대 의과대학에 입학하면서 다시 태권도를 수련하게 된다.

몇달간의 수련후 김박사는 「초단보」단증을 받게 된다. 실력으로 봐선 초단인데 도장 수련 연한으로는 그에 못미쳤기 때문에 도장에서 내려준 단증이였다.

『제가 운동할 때만 해도 도장에서 위계질서는 무척 엄격했습니다. 태권도 수련을 마치면 후배는 물을 떠다가 선배의 발을 씻겨줄 정도였지요. 위계라는 것이 단의 서열순으로 지켜졌기 때문에 무단(無段)의 제계임시로 단증을 발급해 초보자들과는 다른 대접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었지요.』

이렇게해서 그는 태권도사에서는 전무후무한 「초단보」증 소유자가 된 것이다.

### 해병대에 태권도 보급

『시험 바로 전날도 태권도를 수련하지 않고 공부에 매달리던

오히려 정신집중이 되지 않았습니니다. 매일 운동하던 사람이 하지 않으면 몸이 말을 듣지 않듯이 말입니다. 한시간 정도의 태권도 수련으로 맘을 홀리고 나면 정신이 그렇게 맑아질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태권도 수련을 해야만 공부도 열심히 할 수 있었다는 김박사의 태권도에 대한 열정은 많은 친구들을 태권도인으로 끌어들였고 대학2학년 때에는 동료들과 뜻을 모아 군인들에게 태권도를 보급하면 전투력을 강화시키지 않겠느냐는 장대한 포부를 갖고 김천에 있는 해병부대에서 태권도 시범을 보이기도 했다. 이 시범을 계기로 해서 김박사는 대학졸업후 군의관으로 해병대를 지원하게 되었다. 해병대에 입대하니 마침 그의 부대 참모장이 같은 도장의 선배인지라 그와 함께 해병대에 태권도를 보급시키자는데 의기투합하여 그의 부대에서 태권도를 수련시켰을 뿐만 아니라 해병부대가 있는 포항과 인천에도 도장을 열고 태권도를 지도하기에 이르렀다.

이렇게 군인들에게 태권도를

보급한 그는 1970년 12월 30일 해군중령으로 예편, 의사로서 병원을 개업함과 아울러 도장도 개설해 후배에게 도장운영을 맡기는 대신 자신은 진료에 지친 밤늦은 시간에도 도장을 찾아가 태권도를 수련하였다.

이렇게 해서 50대에 이르는 나이에도 매일 태권도를 수련해 온 그는 『규칙적인 운동이 나의 생활에 활력을 불어일으켜주고 매사에 의욕을 갖도록 해주었다』고 한다.

태권도와 함께 해온 그의 인생. 그에게는 태권도가 어떤 의미였고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첫째는 인내심, 둘째는 위기를 극복하는 의지, 셋째는 겸손하게 인생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배웠다.』고 말하는 김박사.

유단자로서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살아온 김박사는 「태권도인은 주먹을 함부로 쓰면 안된다」는 사범의 가르침대로 『대학 시절, 저녁에배를 마치고 같은 방향에 사는 여학생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집으로 향하는 길이었지요. 캄패 몇명이 시비를 걸어오며 주먹이 날아왔는데 그 주먹썩씨가 하도 유치해 상대할 가치도 없어 그냥 맞아주고 말았지요.』라고 옛일을 회상하는 그에게서 유단자로서의 그의 긍지가 어떠한가를 엿볼 수 있었다.

하지만 그가 태권도의 솜씨를 유감없이 발휘, 미국의 신문에 까지 대서특필된 사건도 있었다.

1964년도에 미국 오를랜드 해



그가 앉은 책상이나 많은 책들이 꽂혀있는 책장이며, 환자용 침대 등 모든 장비가 20여년은 된지한 낡은 것들이다. 그러나 진료에 간편한 수술복을 입고 환자를 맞이하는 김박사의 온화하고 질박한 모습과 잘 어울려 어느 환자라도 김박사를 믿고 진료를 맡길 것 같은 분위기를 갖게한다.

군병원에 수련의과정에 있을 때였다. 미 군의관 중에 레슬링선수 출신으로 키가 2m에 달하는 장신인데다 덩치가 큰 동료들이 있었는데 그의 가슴팍까지 밖에 오지않는 김박사를 마주칠 때마다 그 큰손으로 머리를 누르고 눌러댔던 것. 그의 버릇을 고쳐 줘야겠다고 버티던 김박사는 그에게 「얼굴이나 몸에 닿지 않게 입에 문 담배를 발로 차보자」는 제의를 했다.

날을 잡아 동료 군의관들이 모인 가운데 지는 사람은 승자를 선배로서 존중해 모실 것을 선포하고 담배차기를 시작하게 되었다. 이왕하는거 완전히 꿀탕을 먹이자는 생각에 미국인 군의관이 입에 담배를 물고 라이터를 켜는 순간 짹새게 몸을 날려 왼팔로는 담배를 오른팔로는 라이터를 차버렸던 것. 깜짝 놀란 군의관은 다시는 그를 놀려대지 못하였고 이 사실은 삼시간에 해군병원에 퍼져 오를랜

드 지방 신문에서는 태권도 세계챔피언이 해군병원에 나타났다고 대서특필했던 것. 신문기자들로부터 태권도챔피언이 아니냐며 인터뷰를 요청받아 당시 곤혹스러움을 겪기도 했다고...

### 태권도만큼 신체적·정신적으로 좋은 운동은 없다고 장담하는 김박사

김박사는 정형외과 의학박사이자 평생 태권도를 수련해온 태권도인으로서 태권도만큼 신체적·정신적으로 좋은 운동은 없을 것이라고 장담한다.

또한 현대의학의 발달과 함께 태권도에 대한 각종 연구논문이 발표되면서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고 주장 한다.

그래서 그는 의과대학에 재학 중인 큰아들 영배, 대학졸업반인 딸 혜리, 미국 유학 중인 막내 아들까지 모두 유단자로 키워왔다. 뿐만 아니라 의과대학에

다니는 태권도장의 후배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며 태권도인을 키우고 있다.

김박사는 도영병원의 원장이지만 그의 원장실은 여느 과장실과 다름이 없을만큼 검소하다. 그가 앉은 책상이나 많은 책들이 꽂혀있는 책장이며, 환자용 침대 등 모든 장비가 20여년은 된지한 낡은 것들이다. 그러나 진료에 간편한 수술복을 입고 환자를 맞이하는 김박사의 온화하고 질박한 모습과 잘 어울려 어느 환자라도 김박사를 믿고 진료를 맡길 것 같은 분위기를 갖게한다.

김박사는 바쁜 의료 중에도 모교에 출강하고 있으며, 저서로 「한국의 의료보험」을 냈고 전우신문에 연재한 칼럼을 모아 「진중의학코너」 칼럼집을 냈다. 또 진중중 틈틈히 써온 수필을 모아 의사의 사랑을 일컫는 「제5의 사랑」이란 수필집을 낸 바 있다. **태권**

# 스페인 유학시절 태권도 지도하며 문학박사학위 취득

“그당시엔 먹고 살기 위한 방편이었으나  
이젠 내 생명의 필수수단”

고려대 민용태 교수



민용태

- 47세 (5단) · 외국어대 및 동대학원 스페인어과 졸업
- 스페인 마드리드대학 국가 문학박사학위 취득(1975) · 마드리드대학 교수
- 외국어대교수역임 · 현 고려대교수

## 주 3일은 도장에

많지 않은 성인 태권도 수련자들 중에서 고려대 스페인어문학과 교수이자 시인으로 널리 알려진 민용태교수는 매주 월 수 금 3일

은 청량리에 있는 문무체육관에 나가 태권도를 수련하고 있는 태권도인이다.

문무체육관에서는 민용태교수와 함께 그의 강의를 듣는 고려대

와 외대 대학원생 10여명이 태권도복을 입고 함께 태권도를 수련한다. 스페인문학을 전공하는 대학원생들의 필수과목(?)으로 태권도가 채택된 것은 오로지 민교

수의 태권도에 대한 긍지와 함께 지성인에게서는 특히 운동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그의 철학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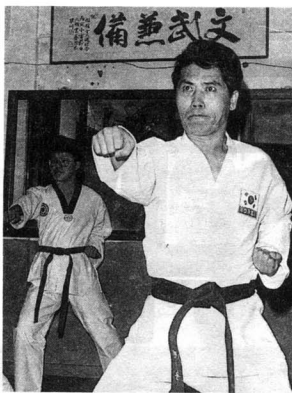
『나이가 들수록 더욱 소중해지는 것이 건강입니다. 가장 왕성한 젊음을 자랑하는 20대 중반이 지나면 그 때부터 사람의 몸은 서서히 노화를 시작한다고 봅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이 기우는 속도는 가중되는데 반면 정신적인 압력은 커지게 마련이지요. 특히 정신적인 노동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는 육체와 정신의 조화를 위해 운동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외국에서는 성인들이 각종 스포츠를 즐기는 것이 생활화되어 있는 반면 우리나라 성인들은 스포츠와는 거리가 상당히 멀다. 그가 지도하는 대학원생들 중에도 직접 뛰며 운동하는 학생은 거의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는 학문의 길로 나아가갈 그들에게 꾸준한 연구와 학문 정진, 집필 등은 머리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한 것이다.

### 태권도수련이 삶의 원동력

그는 47세의 나이에 비해 훨씬 젊어 보인다. 30대 중반 정도로만 보아도 잘 본 것처럼 보일 만큼 젊다.

『젊어 보이는 것은 내 얼굴에서 아직도 일그러지지 않은 웃음을 담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태권도 수련을 통하여 육체적인 건강 뿐만 아니라 살아가는데 있어 자신감을 얻었고 수련을 통한 정신적 스트레스 해소는 궁정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살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그러다보니 자연히 젊음을 유지할 수 있지 않았나 봅니다.』



니다.』

누구보다도 많은 강의, 왕성한 집필력, 각종 인터뷰, TV어학강좌 등으로 학계에서는 가장 바쁜 교수 중의 한사람으로 꼽히는 그는 이렇게 태권도 수련이 바로 삶의 원동력이 되었다고 한다.

### 유약한 지성인의 모습을 탈피하기 위해 태권도 시작

그가 태권도를 배우기 시작한 것은 광주고등학교 재학시절, 인생의 방향을 정하면서였다.

고교시절 이미 학생잡지인 「학원지」를 통해 시가 당선될 정도로 시인으로서의 자질을 보였던 그는 장래에 자신이 시인이 되던가 아니면 학계에 나아가갈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것. 당시 그는 “낭만주의적 시인의 유약성”을 벗어나고자 태권도장을 나가기 시작했다. 또한 평생 그의 자화상이 유약한 지성인으로 보여질 것을 당당히 거부하였던 것이다.

태권도 수련과 함께 고3때부터 시작한 것이 냉수마찰. 외대 스포케 인어과를 졸업하고 대학원에서 스페인문학을 전공한 그는 1968년

스페인유학길을 떠나는 날 아침까지 계속 태권도와 냉수마찰을 했다고 한다.

『대학시절엔 도장에 매일 나가진 않았지만 태권도를 하지 않으면 잠이 안왔지요. 잠자기 전에 하숙집 옥상에 올라가 매일 태권도를 했는데 그래서 하숙집 친구들 사이에선 달밤에 체조하는 친구라고 별명이 붙어다녔지요.』

### 스페인에서 태권도 사범으로 어려운 유학생활극복

이후 1968년도에 스페인유학길에 오른 민용태교수에게 있어 태권도는 먹고 살기 위한 최대의 방편이 되어 주었다.

『집에서 논세마지기 팔아 유학비를 마련하고나니 그야말로 한푼도 남지 않았습니다. 뭐든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공부를 하고야 말겠다는 의지하나만 갖고 유학길에 오른 가난한 유학생이었지요.』

그래서 그는 그야말로 안해본 것 없이 닦치는 대로 일을 하며 학비를 벌었고 먹고 살았다고 하는데 1970년대에 들어와 태권도가 무도스포츠이자 호신술로 알려지게 되면서 태권도장을 열게 되었다.

『태권도는 정신수양과 호신술이라는 측면에서 대단히 각광받는 스포츠 였습니다. 당시 태권도 수련층은 스페인 국왕에서부터 장관, 대학교수 등 상류층인사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당시 도장 입관비만 해도 15만원, 매달 수련료 7만원을 받은 것으로 기억되는데 그만큼 태권도가 고급 스포츠로 인식되었던 것입니다. 물론 도장 시설면에서도 헬스클럽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태권도 수련실, 체력단련실, 사우나실, 맛사지실 등이 갖춰져 있었지요. 상류층 인사들을 상대로 하는만큼 한국인 태권도 사범들의 사회적 지반도 강할 수 밖에 없었지요。」

민교수는 지금도 그때를 돌이켜보면 당시에 태권도를 지도하지 않았다면 10년이 넘는 유학생활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었을까 싶다며 태권도 덕을 단단히 보았다고...

## 한국인으로서의 최초로 국가 문학박사학위 취득

1975년도에 그는 마드리드대학

에서 한국인으로서의 최초로 국가 문학박사학위를 받았고 마드리드 대학교수로 재직하다가 1979년에 귀국, 모교인 외국어대 스페인어과 교수로 스페인문학을 강의했다. 이후 1987년도에 고려대 스페인어문학학과교수로 자리를 옮겼다.

스페인문학의 제1인자라고 불리는 민용태교수는 스페인문학의 특성을 「생명과 직관력이 뛰어난 문학」이라고 소개한다. 스페인에서는 르네상스 이후 뛰어난 문학이 많이 배출되었다고 하는데 세계적으로 유명한 3대 인간형으로 불리는 돈키호테형과 돈후안형, 햄릿형 중에서 돈키호테형과

돈후안형이 스페인 문학에서 창조되었다고 한다.

## 건강한 젊음으로 왕성한 집필력 과시

한편 민용태교수는 시인으로서도 활발한 시작활동과 함께 8권의 시집을 발간했는데 1971년도에 스페인에서 내놓은 시집 「멘몸으로」는 태권도를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고. 당시 썼던 시 중에 아직도 기억에 남는 것은 “내 허리에는 항상 검은 띠”라는 구절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고뇌의 끝이 내려주는 상징과도 같은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한다.

4권의 스페인어 시집외에도 최근 몇년간 한국에서 내놓은 시집으로는 「시간의 성」 「시비시」 「풀어쓰기」 「푸닥거리」 등이 있고 수필집으로는 「남성을 보호하라」 「색깔있는 메세지」 「에로티시즘 시학」 등이 있다.

많은 연구논문 외에도 대표평론집으로 「서양문학 속의 동양」 「서중남미 문학론」 등을 낸 바 있는 민용태교수는 누구보다도 건강한 젊음으로 열정적인 집필력을 보여주고 있다.

『제가 이렇게 다른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태권도 수련 때문입니다. 예전엔 태권도가 먹고 살기 위한 방편이었으나 이젠 내 생명의 필수수단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민교수는 『스페인에서 한국인의 자존심을 한껏 키워주고 태권도인으로서의 자부심을 갖게 해준 태권도가 국내에서 경시되고 있는 오류가 가장 안타깝다.』며 말을 맺었다. **태권**

# 역학적 분석을 통해 태권도의 효율적 기술 규명

한국체육과학연구원 성낙준연구원



## ■ 성낙준

- 1957년 충북 진천출생(4단) · 인천고 · 서울대 체육학과 및 동대학원 졸업 · 박사과정수료 · 현재 한국체육과학연구원 연구원 재직

### 태권도 전담연구원으로 역 학관련연구

체육과학의 이론개발과 정립을 위한 기초연구, 경기력 향상을 위한 응용연구 등을 담당하고 있는 한국체육과학연구원의 성낙준연구원은 많은 종목 중에서도 태권도 전담연구원으로 지

목되는 태권도인(4단)이다. 성낙준연구원은 태권도의 경기력 향상과 직결되는 기술의 역학적 분석을 통해 가장 효율적인 발기 기술을 규명하는 등 운동역학 분야의 연구를 계속해 왔다.

그는 '86아시아게임을 앞두고 국가대표선수들이 훈련원에서

합숙훈련을 하는 동안 발차기별 수행시간과 속도, 강도를 분석함으로써 득점과 연결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발기 기술을 규명한 결과 돌려차기와 발차기 순으로 효율적인 기술이라는 것을 밝혀 내기도 했다.

성낙준연구원이 운동 역학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은 태권도를 수련하던 시절부터.

중학교 때 같은 집에 사는 친구가 태권도장에 나가는 것을 보고 같이 따라나가게 되면서 태권도를 배우기 시작했는데 이후 고2때까지 수련하는 동안 왜 이렇게 손을 뺏어야 하며 발을 뺏어야 하는지 궁금했다고...

그후 서울 대학교 체육학과에 진학, 계속 학문의 길로 나가겠다고 결심하면서 태권도를 수련하면서 가졌던 궁금함을 풀고자 전공을 운동 역학으로 택하게 되었던 것.

10여년 전만 해도 운동역학에 대한 접근이 쉽지 않았다. 왜냐하면 역학에 대한 이론적 이해도 적었을 뿐더러 역학적 분석에 필요한 실험장비도 구하기가 힘이 들었던 것이다.

서울대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한 「태권도 찍어 차기의 역학적 분석」을 준비할 때도 장비구입 때문에 무척 애를 먹었다고.

『태권도 동작을 측정할 고속 촬영기, 고속비디오 시스템을 시중에서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영화를 찍는 영화사를 찾아가면 있겠다 싶어 영화사로 쫓아가 사정을 했지요. 그래서 장비를 빌리고 그것도 모자라 고속카메라를 작동할 수 있는 카메라기사까지 모셔와 대련하는 동작을 찍었습니다.』

이렇게 10여년 전만 해도 그가 그토록 고생했던 것에 비해 지금의 체육과학 연구자들에게는 이러한 그의 경험이 생소할 정도로 엄청난 과학의 발달과

**발차기별  
수행시간과 속도,  
강도를 분석함으로써  
특점과 연결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발기술을  
규명한 결과 돌려차기와  
발차기순으로 효율적인  
기술이라는 것을 밝혀  
내기도 했다.**

기자재의 다량 생산, 분석에 필요한 첨단 컴퓨터의 개발 등으로 연구를 더욱 용이하게 하고 있다.

**운동역학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어려움 있으나 공학의 발달과 함께 하루가 다르게 발전할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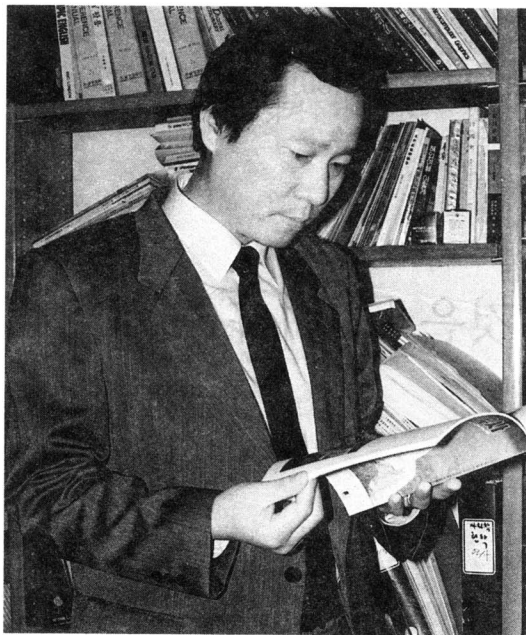
성낙준연구원은 운동역학이 공학의 일분야인 역학을 인체에 적용하여 역학적원리에 따라 연구하는 것인 만큼 공학에서 기

하급수적으로 발달하는 역학의 영향으로 운동역학도 하루가 다르게 변모 발전할 것이라고 전망한다. 그러나 공학에서 나온 역학의 이해와 응용이 운동역학에 활용되는데 있어 어려움이 따르는 것은 무엇보다도 인체가 복잡 미묘하기 때문이다.

『기계는 그 구조가 아무리 복잡하더라도 움직임은 단순하지만, 사람의 움직임은 상태에 따라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운동역학의 어려움은 이렇게 일차적으로 연구 대상이 사람이라는 것 때문이기도 하지만 역학적 원리를 가지고 분석해 나가는데 있어 연구자의 역학원리에 대한 정확한 이해, 응용이 따르지 못하는 한 해석에 어려움이 있다.

『체육과학은 무엇보다도 공학, 의학 등 인접 학문의 이해와 응용이 광범위하게 활용되는 것이며 과학적인 체육이론이 더욱 깊이 요구됩니다. 대학의 체육학과와 커리큘럼에서 이러한 인접학문이 수용되어야 하는데 체육과학연구자들에게 이러한 지식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 대학이나 연구소에 프로젝트를 주고 연구성과 얻는 투자 필요

성낙준연구원은 태권도의 기술 연구를 통하여 경기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몇몇 연구원의 연구논문 발표만으로는 실행될 수 없다는 지적이다.

『미국의 경우 올림픽트레이닝센터에서 종목별 연구과제를 일선 연구소나 대학에 의뢰해 이 결과를 지도에 적용시키면서 경기력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선 한국체육과학연구원에서 이러한 연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만 연구력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태권도협회나 연맹에

서 연구주제를 선정, 연구소나 대학에 프로젝트를 주고 연구성과를 얻어 태권도 기술개발 및 이론정립을 해 나가는 방법이 요구됩니다.』

물론 이렇게 하자면 우선 연구비의 충당이 문제이겠지만 이러한 투자가 없는한 경기력향상이란 답보상태에 머무를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태권도의 경우 태권도 지도시 지도자의 경험에서 경험으로 전수되어질 뿐 훈련계획서 또는 지도서 하나 체계적으로 발간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국가 대표를 지도하는 대표팀 코치도 그가 지금까지 선수를 지도한

경험에 비추어 훈련계획서를 작성하고 지도하는 수준입니다.』

## 스포츠과학화를 위해 일선 지도자들은 우선 「기록」하는 습관 들여야

이렇게 말하는 그는 일선 지도자들에게 우선 스포츠 과학화를 실현하기 위해서 「기록」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병원에 가면 환자 진료카드가 보존되어 있듯이 지도자들은 선수들에 대한 카드를 작성, 체력·기술·신상·병력 등 조목별로 기록해 언제 어느 지도자가 그 선수를 지도하게 되더라도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제도가 정착되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태권도가 대학의 전공 학문으로까지 성장했으나 「학」으로 불리기까지는 철학, 역사 등 인문과학적인 측면 뿐만 아니라 생리학, 역학, 트리이닝학 등 기술부문에 대해서도 체계적인 이론적 배경위에서 태권도라는 운동기능이 연구되어야 한다』며 대학에 진학한 많은 태권도인들이 『태권도라는 기능만을 배우는데 그친다면 태권도학을 배웠다고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내년이면 「높이뛰기의 역학적 분석」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하게 될 성낙준연구원은 그동안 학위논문 준비 때문에 태권도 연구에 다소 소홀했다며 앞으로 계속 태권도 연구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태권**

##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로

### I

국가의 중추(中樞)는 행정기관이다. 행정기관의 존립사유는 그 조직이 방대할수록 다양해지고, 기능 또한 미분화된다. 그러나 다양한 존립사유나 모든 기능은 궁극적으로 「국민을 위한」이라는 명제로 귀결된다. 이는 행정기관의 존립기반이 바로 국민이기 때문이다.

입법기관이자 국민의 「대표」라 하는 국회는 입법의 기능외에도 국민으로부터, 행정기관에 대한 「감시 기능」을 위임받았다.

얼마전에 끝난 예산국회는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감시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다하여 언론으로부터 무수한 매를 맞아야 했다. 국민들이 낸 세금을 행정기관이 얼마나 더 효율적으로 「국민을 위해」 사용하는가 지도·감독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空事多忙(?)—하는일 없이 바쁜—하신 관계로 「국민을 위한 기능」을 다소 소홀히 하는 바람에 계량불허(計量不許)의 온갖 욕을 다 들을 수 밖에 없었다.

결국 행정기관과 더불어 국회의 존립기반과 사유, 모든 위임받은 기능도 「국민을 위한」이라는 대명제로 귀결됨을 알 수 있다. 또 행정부건 입법부건 이

**조직원의 「안정된 장래를  
보장, 또는 약속」해 주고, 「모든 상태  
(status)를 레벨 업(level up)」  
시켜주어야 한다는 전제 아래  
그 줄 수 있는 이익이 형태를  
갖추어야 한다.**

명제를 망각하거나 소홀히 할 때(다른 명제를 더 우선순위에 둘때)는 그 존립사유가 없어지며 기반이 되는 국민들로부터 불신과 지탄을 받고 무용론(無用論)까지 대두된다.

이것은 국가 뿐만 아니라 모든 공사(公私)조직과 단체가 해당되는 명제이다. 모든 조직의 기반은 그 모임의 개체인 조직원 개개인의 직·간접적인 이익을 대변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거론코자 하는 것은, 조직은 「조직원을 위해」라는 너무도 당연한 것을 설명하자는 것이 아니고 「어떤 것」이 진정 조직원을 위하는 것이 무엇인가 「진정한 이익」인가에 대해 이야기 하고자 함이다.

조직이 조직원에게 줄 수 있는 이익은 유형적(有形的)인 것과 무형적인 것, 또 직접적인 것과 간접적인 것 등 다양한 형태로 존재한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조직원의 「안정된 장래를 보장, 또는 약속」해 주고, 「모든 상태(status)를 레벨 업(level up)」시켜주어야 한다는 전제 아래 그 줄 수 있는 이익이 형태를 갖추어야 한다는 점이다.

단순히 조직이 존재한다는 사실 하나로 주어지는 자그마한 유·무형적, 직·간접적 이익이 모든 이익을 대변한다고 말할 수는 결코 없는 것이다.

물론 모든 조직이 출발할 때는 그 「전제」를 당연한 목표로 생각하나 조직의 속성상(특히, 제한된 환경내의 조직일수록) 매너리즘에 빠져 곧바로 「조직의 존재」가上記한 「전제」인양 건강부회(牽強附會)하는 우(愚)를 곧잘 범하고는 한다.

더불어 우리 스스로 어느새 이러한 愚에 거의 둔감해져 있다는 사실은 대단히 놀랄만 하다.

조직의 발전은, 단순히 조직원과의 직·간접적인 이익교류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조직원의 「장래와 레벨 업」을 위한 부단한 연구·노력에 따른 「미래지향적 발전의지」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하고자 한다. 그것은 바로 조직의 저력으로 연결된다 하겠다.

## II

우리 태권도계가 경기단체를 조직하여 출범한지 만30년. 而立이라 하는 청장년기에 들어선 우리 태권도계의 저력과, 재도약 시점에 선 우리 조직의 발전의지를 반추해 보고자 한다.

30년전 선배 사범들이 모여 중앙협회가 결성되었고, 시도지부의 조직에 이어 70년대 국기원이 건립되었다.

29억 9천 3백 만원,  
이 금액은 89년 1년간 태권도계의 중추라 할 수 있는 중앙협회와 시도지부, 국기원이 「회원을 위해」 집행한 총액이다.

14억 7백만원,  
이 금액은 89년 국방부와 기타 심사를 제외한 시도·중앙협회를 거쳐 수합된-회원들로 부터 수합된-순수 심사수입이다. 이 금액의 40%는 시도지부, 15%는 중앙협회, 45%는 국기원에 각각 배분되어 집행하였다. (89년 기준)

조직의 발전은 단순히  
조직원과의 직·간접적인 이익교류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조직원의  
「장래와 레벨 업」을 위한 부단한  
연구·노력에 따른 「미래지향적  
발전의지」에 의해 이루어진다.

\* 90년부터 시도 45%, 중앙 15%, 국기원 40%로 변경

우리는 여기서, 시도지부는 차치하고라도 중앙협회와 국기원이 절반이 넘는 55%의 배분(90년 기준)을 가지고 과연 얼마만큼 前述한 「전제」를 위해 효과적으로 계획을 세워, 집행을 하고 있는 지 알아보고 하자.

조직의 「발전의지」를 파악하는 한 방법으로, 관례화된 사업과 조직유지비등 「현재중심형」과 연구·개발·기획 등 「미래 중심형」의 두 기준으로 계획수립과 예산 배분 형태를 분석하기로 한다.(90년 사업계획 및 지출예산안 기준)

먼저 중앙협회의 경우(90년 전체 예산안 6억 7천 6백만원), 수많은 예산항목을 일일이 열거할 수는 없으나, 관례사업과 사무비를 비롯한 조직 유지비가 전체 예산안의 94.52%로, 미래지향형의 예산(군이 명목을 붙여 뽑자면 회의비, 교육비, 기심회 연구비, 장학금 등) 5.48%보다 17배가 더 많은 실정이다.

국기원의 경우(90년 예산안 10억 1천 8백만원), 현재중심형의 예산이 93.11%로 미래지향형의 예산 6.89%보다 13배가 많아,

두 단체를 합산할 경우 14.8 : 1의 비율을 보이고 있어 미래지향적 예산배분율이 매우 낮은 실정이다.

일선 중앙 모임간지 기사는 태권도계에 연구와 기획을 담당하는 부서가 없음을 지적한 바 있다. 어떤 조직을 보다 활성화시키고 전체 사회의 각 분야에 뒤떨어지지 않도록 선도하기 위해서는 연구와 기획

· 개발에 많은 투자를 해야한다고 강조하였다.

그러나 이 두 단체의 예산 집행 부문을 보면 전체의 94%가 현재의 정례화된 사업내지는 조직유지비로 충당된다. 89년을 기준하여 전체 예산의 55%를 심사비에 의존(국방부 및 기타 심사 포함)하고 있으나 일선 회원들을 위해 연구·집행한 결과는 필자의 몽매함 때문에 별로 찾아 볼 수가 없다.

주요 재정이 연간 백몇십명의 체육특기자 혜택을 주기위해 주로 쓰여지고, 고풍스러운(?) 건물 하나 유지하는데 거의 쓰여져서야 태권도계의 발전을 기약할 수가 없다.

일선의 사범과 해외 주재 사범들의 불만은 국내 태권도계에 변변한 지도지침서나 역사·철학 등 제대로 갖춰져 있는 분야가 드물다고 불평이다. 오히려 종주국인 한국보다 외국에 태권도에 관한 연구서가 더 많다고 말하기도 한다.

이제 겨우 협회 출범 30년만에, 또 올림픽 종목 채택을 목전에 두고 튼튼하면 재도약을 다짐하는 태권도계가 이렇게 침체되고 정체된 사업계획을 가지고 조직원들을 「레벨 업」시켜주길 기대하기는 실로 난망이라 하겠다.

### III

국회와 유사한 기능을 가진 「대의원 총회」도 마찬가지로 지이다. 일선의 요구를 직접 듣고 그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익년도 사업계획에 반영시키도록 자극하는 것이 총회의 사명이건만, 모여서 박수치고, 식사하

단순히 존재한다는 것,  
 대(對)회원 서비스차원의 소극적  
 지원으로는 회원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없음을 간파해야 한다.  
 최소한 그들에게 보다 나은  
 미래를 보장해주고, 이끌어주고,  
 경쟁력을 강화시켜주고, 레벨 업  
 시켜주는 차원의 적극적 지원으로  
 나아가야 한다.

고, 잘해야 미봉에 가까운 질문과 답변 수준으로 무엇을 기대할 수 있는가?

자도(自道)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한 회의가 아니라 태권도계의 앞날을 좌우하는 총회 자리에서 어떻게 그리 신년도 사업계획 검토시간보다 기타사항 토의시간이 더 길수 있는 지 궁금하다.

왜, 연간 전체예산 94%의 돈이 오로지 기존 조직 유지에 우선적으로 쓰여져야 하는가? 조금이라도 더 일선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쪽으로 연구·개발하여 사용되어야 할 것이다. 일선의 도장은 주로 20여 평 규모의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 생활체육시대의 도래와 함께 2천년대 체육시설로 유지가 가능할 도장은 얼마나 될 것인가. 결국 타 생활체육종목과의 경쟁에서 뒤떨어질 경우 뒷골목의 어린이 놀이방 정도의 수준으로 전락될 수 밖에 없다.

필자는 태권도계에서 구체적인 중·장기 계획이라는 것을 그 어디에서도 한 마디 들어본 바 없다. 오로지 올림픽, 올림픽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는 만능키(key)로 생각한다면 그것은 절대절명의 오산이다. 올림픽 종목 채택의 후광이 식기도 전에 우리 태권도계는 진정한 모습의 숙제와 적을 만나게 될 것으로 본다. 올림픽 채택이라는 외형변화에 따라 우리가 내적으로 준비해야하고, 풀어야 할 숙제는 채택 그 자체보다 몇 배가 더 어렵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시도지부·중앙협회·국기원은 모두의 존립기반과 존립이유가 「회원의 진정한 이익을 위해」 있다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

협회가 「경기 추진하는 프로모터」, 국기원이 「경기장, 심사장 또는 단증공장」으로만 그쳐서는 안된다. 급격히 변모하는 사회에서 우리 회원들의 이익을 보다 「진정하게」대변해 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단순히 존재한다는 것, 대(對)회원 서비스차원의 소극적 지원으로는 회원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없음을 간파해야 한다. 최소한 그들에게 보다 나은 미래를 보장해주고, 이끌어주고, 경쟁력을 강화시켜 주고, 레벨 업 시켜주는 차원의 적극적 지원으로 나아가야 한다.

사범들은 궁금해 한다.

앞으로의 사회의 흐름과 체육의 관계, 태권도계에 미치는 영향, 그들의 장애...

사범들은 원한다.

그에 대응하는 태권도계의 준비, 자신들의 정신적·물질적 준비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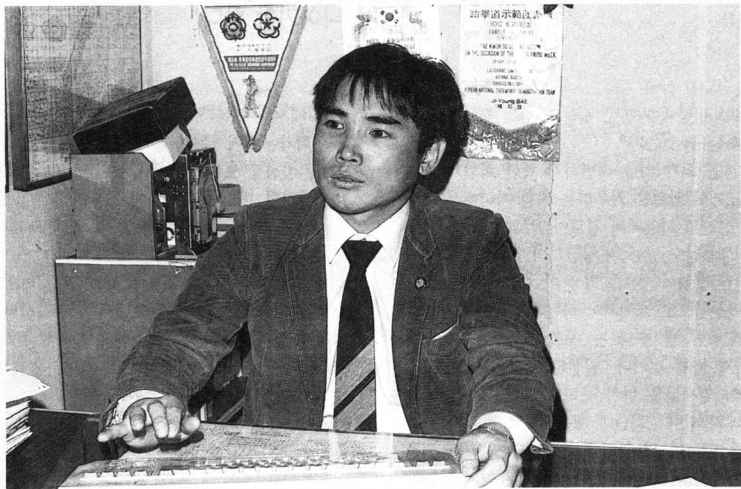
사범들은 요구한다.

그것에 부응하는 지도형태, 지침서, 교육체계의 정립.....

그래서 그들은 더욱 아이들을 부지런히 가르친다. 위임받은 행정기관에서 연구하고 개발하여 행(行)해 주기를 기대하며.

진정으로 행정기관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볼 시점에서 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로」 **태권**



정보의 홍수 속에 살고있는 우리에게 이제 컴퓨터는 더이상 남의 이야기가 아니다.

도장 경영을 위한 정보의 관리나 체계적인 수련생 관리를 위해 컴퓨터는 점차 빠른 속도로 우리 태권도계에도 다가오고 있다.

더구나 생활체육시대의 도래와 함께 타종목의 체육시설 또는 인근 도장과의 경쟁이 심화될 수 밖에 없는 실정에서 체계적인 도장경영을 위해 컴퓨터는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필수적인 수단이 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태권도장의 수련생 관리 프로그램을 독자개발하여 사용하고 있는 체육관이 있어 눈길을 모으고 있다.

청호체육관 신성한 관장. 그는 88년부터 체육관 운영에 컴퓨터를 도입, 학부형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으며 금년 9월 4차례의 수정끝에 수련생 관리 프로그램을 완성하였다. 8여개 체육관에도 이 프로그램을 배포하여 매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고 말하는 그는 앞으로 이 프로그램을 필요로 하는 도장에는 무료로 제공하겠다고 밝힌다. <편집자 주>

## ▲태권도장을 경영하며 컴퓨터에 관심을 갖게 된 동기는?

-도장에서 관원들을 지도해보니까 보통 1년 정도의 수련으로 1품을 따면 태권도에 대해서 다 배운 것처럼 여기고 수련을 중단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태권도의 수련은 장기적으로 이루어져야만 고도의 기술과 힘이 합쳐지고 무도정신을 겸비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수련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던 중 그 제작과정에서 컴퓨터의 필요성을 느꼈고, 또 사회가 요구하는 변화에 부응하기 위해 더욱 필요할 수 밖에 없다고 봅니다. 나름대로 태권도장의 발전과정을 '70년대는 시설의 보수, '80년대는 각 도장마다 수련프로그램의 개발, 장차 90년대는 운영형태의 전산화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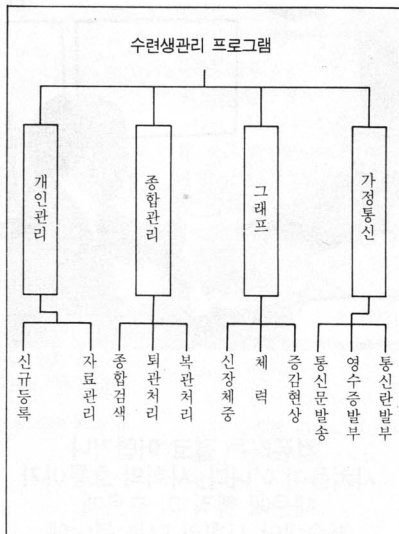
## ▲ 태권도장 뿐만아니라 우리사회의 모든 분야에 까지 컴퓨터가 필요하게 된 원인은?

-요즘을 정보화시대라고 하는데, 쏟아지는 정보를 일일이 수기(手記)나 머리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수기방식으로는 5~6년전 자료는 고사하고 1년만 지나도 엄청나게 많은 자료를 처리하고 검색하기 어렵습니다. 이것을 컴퓨터는 10년이상의 자료까지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고 찾아줍니다. 예를들어 국민학교때 수련을 하다 중단하고 중학교때 다시 복관하는 경우 그관원의 과거 체력이나 수련정도를 바로 찾아내 수련의 연속성을 갖게 하는등 교육에 절대적인 역할을 합니다. 또 이러한 점이 학부모들에게 크게 어필할 수 있는 도장 경영의 포인트이기도 합니다. 이는 도장뿐만 아니라 개인의 모든 자료에도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컴퓨터는 이제 남의 얘기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 사회의 흐름이기 때문에 우리 태권도장들도 빨리 이 흐름에 편승해야 사회의 다른 분야에 뒤떨어지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 ▲ 이 수련생 관리프로그램의 특징은?

-재무관리를 제외한 도장관리, 수련생 개인관리 측면의 모든 자료를 이 프로그램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전체관원의 명단, 입관일자,



학교, 학년, 성별, 주소, 생년월일, 급, 품검색과 퇴, 복관자의 명단 등 종합관리 항목과 관원의 신상명세, 가족사항, 생활기록, 심사결과, 체력, 체력 등의 개인관리 항목이 있습니다. 개인의 체력과 체력을 전체 수련생에 대해 그래프 및 수치를 비교, 분석할 수 있으며, 통신문과 영수증 제작 등 그외에도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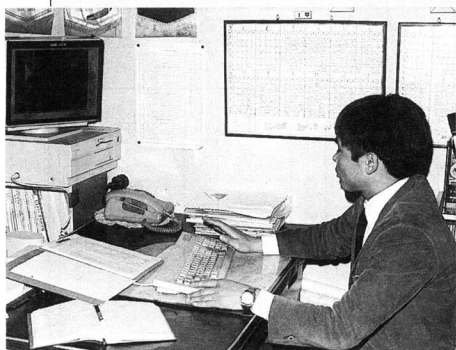
## ▲ 프로그램 개발과정과 기간은?

-'89년 3월에 착수하여 중간에 만들어진 프로그램을 사용해보며 4차례의 수정작업을 통해 금년 9월에 현재의 프로그램을 완성했습니다.

## ▲ 이 프로그램이 구체적으로 어떤 도움을 주고 있습니까?

-도장경영의 측면에서는 무엇보다 인원관리에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출입관원들의 증감현황 등 연간 및 월별로 정확한 현황을 파악하고, 또 3년간의 입, 퇴관 현황을 대비하여 경영에 크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컴퓨터는 결코 어렵거나  
사치품이 아니다. 사회의 흐름이기  
때문에 빨리 이 흐름에  
편승해야 사회의 다른 분야에  
뒤떨어지지 않을 것”**

교육적 측면에서는 수련생에 관한 모든 자료를 분석하여 개인에 대한 체격, 체력, 수련정도를 수시로 손쉽게 비교, 평가할 수 있으며 모든 평가내용을 수치화함으로써 학부모로부터 신뢰도를 크게 높이고 있습니다.

또 통신문 작성에 있어 반복되는 일손을 대신해 주고 활자화된 통지표를 통해 신뢰성을 주는 등 도장 경영에 다각적이고 절대적인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간 8개의 체육관에 배포하여 사용중인데 대단히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고들 합니다.

**▲ 개발과정에서의 어려웠던 점은?**

—일반적으로 컴퓨터 자체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선입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작되어진 프로그램을 가지고 운용하는 것은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누구나 2-3시간이면 웬만한 조작이 가능합니다. 다만 자신이 제작코자 하는 프로그래밍 과정 자체가 어려울 따름입니다. 이는 전문가로서의 소양과 많은 시간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웬만한 프로그램은 모두 개발되어 상품화되어 있기 때문에 사용하는데는 어려움이 없다고 봅니다.

따라서 우리 태권도인들도 컴퓨터에 대해 긍정적인 생각을 가져왔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 컴퓨터 설치 비용은?**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기종으로 몸체와 프린터를 포함해 약120만원이면 설치가 가능할 것입니다. 좀 더 나은 기종은 150-160만원 정도...

**▲ 초보자가 컴퓨터를 운용하는데 필요한 교육기간과 교육비는?**

—제작된 프로그램을 활용하고자하면 지시하는 대로만 조작하면 되니까 스스로 몇시간만 만져보면 가능합니다. 하지만 보다 다양한 운용을 위해서는 학원에서 약1개월 가량의 ‘도스(DOS)과정’을 이수하면 충분할 것으로 봅니다. 교육비는 약 5-6만원 정도.

**▲ 현재 새로 연구중인 프로그램은?**

—비만측정프로그램에 착수하고자 합니다. 저와 함께 일하는 그룹에서 공동으로 제작키 위해 자료를 모으고 있는데 이는 주로 학부모 등 성인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더욱 도장에서 필요로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 향후 태권도장에도 컴퓨터가 일반화되면 상품판매가 있다고 보는데 무료로 복사해 주는 이유는?**

—아직은 태권도계에 컴퓨터가 낮지 않은 상태이고, 또 우리 태권도인들이 현대사회에서의 경쟁력강화를 위해 보다 빨리 컴퓨터를 가까이 했으면 하는 바램으로 보급차원에서 무료로 복사해 드릴 생각입니다. 가능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연락을 주셨으면 합니다.

**▲ 연락처 : 청호체육관 신성환 관장  
(415-4906) 태권**

## '94히로시마아시아게임 종목 채택 불투명



“각국의 지지  
얻기위해 최선  
의 노력 기울  
여야”

대한올림픽위원회(KOC)  
국제기구과장 윤광로

**북**경아시아게임에서는 우리에게 생소한 우수, 세팍타크로, 카바디 등이 정식종목으로 채택된 가운데 27개 종목의 경기가 펼쳐졌다.

4년 후에 열릴 '94히로시마아시아게임에서도 태권도는 정식종목 채택여부에 낙관할 수만은 없는 입장이다.

북경아시아게임 중에 열린 제9차 OCA(아시아올림픽 평의회)총회에 KOC실무자로 파견된 국제기구과의 윤광로과장은 『이번 총회에선 OCA집행부 임원선출을 위한 차기총회가 6개월이내(91. 3. 27)한에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개최하기로 되어 따라 차기 대회의 준비사항만 보고되었다.』고 한다.

정식종목 채택은 히로시마조직위가 서면요청된 사항을 접수 검토한 후 OCA스포츠개발위원회와 협의후 '92바르셀로나 올림픽대회 기간동안 개최된 '92

OCA총회에서 최종 승인될 예정이다.

정식종목 채택에는 무엇보다도 개최국의 권리행사가 두드러지게 작용하는데 히로시마조직위는 일본의 전통무술인 가라테를 채택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이에 대해 윤과장은 『북경조직위에서도 개최국으로서의 권리를 최대한 이용, 자국의 전통무술인 우수를 정식종목으로 채택할 때에 동남아 각국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카바디와 세팍타크로를 동시에 편승시킨 것과 마찬가지로 일본측도 아랍권과 동남아를 의식해 태권도를 동반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한편으로 일본이 최대 강력한 한국에게 유리한 태권도를 채택시키기 보다는 오히려 가라테와 태권도를 모두 배제시키고 일본에 널리 보급되어 아시아최강급인 연식정구를 채택할 가능성도

높다고 내다보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태권도가 정식종목으로 채택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태권도는 일본과 중국을 제외한 전OCA회원국에 널리 보급되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들 각국이 총회에서 태권도의 정식종목 채택에 지지발언을 한다면 그 가능성이 매우 높다. 다만 이들의 지지를 얻기 위한 노력, 일명 『로비』의 승패는 우리측의 노력여하에 달렸다는 것이 윤과장의 지적이다.

『예를 들어 OCA전회원국에 서신을 발송해 태권도의 채택을 위해 히로시마조직위측에 지지서면을 발송해줄 것을 요청해 과반수 이상이 이에 동조해준다면 조직위에서 이를 접수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태권도의 경우, 각국에 널리 파견되어 있는 사범을 활용해 지지서한을 작성, 직접 NOC회장의 사인을 받도록 하여 그곳에서 발송하는 방법도 효과적일 것이라고 봅니다. 내용에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사인만 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닐테니까요』

이렇게 나름대로의 방법까지 내놓으며 태권도의 채택에 관심을 보인 윤과장은 『'92바르셀로나대회를 마지막으로 시범종목이 없어집니다. 이번에 아시아게임에 채택된다면 '96올림픽정식종목에 채택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최대한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태권**

# 1985년도부터 태권도를 교기로 남학생 전원 유단자 배출

전남보성고등학교



유대용 교장



전교생이 태권도를 수련하는 모습

**보**성장을 끼고 대대로 선비의 얼이 깃든 봉화산 마루에 터전을 잡은 보성고등학교는 1966년 3월 5일 보성여자고등학교로 개교한 이래 1985년 3월 1일 보성고등학교로 개명되었다. 1,163명의 재학생과 62명의 교직원인 「성실 협동 창조」의 교훈 아래 내 고장 내 나라의 영광을 실현시키려는 굳은 의지로 혼연 일체가 되어 노력한 결과, 1989년도 예는 87명이 4년제 대학·120명이 전문대학에 합격하여 명실 상부한 명문고등학교로 발돋움하게 되었으며, 지금도 불철주야 교명을 더욱 빛내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

1985년 3월 1일 교명 변경과

함께 국기 태권도의 수련을 통하여 심신을 단련시키고 자아발전과 바른 인격 형성을 위한 목적으로 태권도를 시작하게 되었고, 1교 1운동·1인 1기의 신장을 위한 중목으로 태권도를 지정하여 남학생 전원의 유단자화·우수 선수 발굴에 심혈을 기울였다.

현재 김현국 교사와 6년 동안 줄곧 보성고등학교의 태권도 사범으로 초빙된 이용우 보성종합체육관 관장의 지도아래, 지와기를 겸비한 태권도의 수련으로 우렁찬 함성이 봉화산을 뒤흔들고 있고, 10명의 태권도부 선수들이 보성종합체육관에서 맘을 홀리고 있다.

태권도 수련은 1학년 남학생이 1년동안 매일(월요일-금요일) 방과후 1시간씩 수련하여, 1학년 수료시 승단 심사를 거치게 됨으로써 보성고등학교 남학생 전원은 유단자가 되어 졸업하게 된다.

연도별 유단자 수를 보면, 85년 119명, 86년 124명, 87년 128명, 88년 132명, 89년 138명으로 총641명이 배출되었다. 그리고 태권도부 선수들은 방과후 2시간씩 보성종합체육관에서 수련하여, 금년에 도지사기 대회 준우승 등 각종 대회에서 입상하고 있어 전망을 밝게 하고 있다.

태권

〈전남 김현수 편집위원〉

# 전교생 주3회 태권도 수련 태권도부 전국대회에서 입상자 배출

## 제주 남주중학교



황윤희 교장



태권도부선수들과 뒷줄왼쪽부터 김창환지도교사·황교장·이광훈코치

제주도 서귀포시 동홍동에 위치한 남주중학교는 한라산을 경계로 산남지역의 유일한 사립중학교로 12학급에 총학생수가 593명인 소규모 학교이다.

“참되게 살자”하는 교훈아래 황윤희 교장을 비롯한 모든 교사들이 따뜻한 사랑과 정열로 교육에 힘쓰고 있다. 이 학교에 태권도가 시작된 것은 1984년 3월, 태권도를 교기로 하여 일인일기(一人一技)교육의 일환으로 전교생에게 태권도 교육을 실시하면서부터이다.

전교생은 주3회씩 태권도수련을 통하여 심신을 단련하게 되었고 선수 중심의 태권도부가 창단되었다.

태권도부는 김창환체육교사의 지도아래 창단 1년후부터 전국 규모대회에 출전, 입상자를 배

출하는 실적을 올렸다.

'85년 전국 춘계 종별대회에서 김운중선수가 플라이급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것을 비롯하여 86년에는 강승수(현재 한국체대 재학)선수가 헤비급에서 은메달을 차지하는 등, 88년까지 전국 종별대회에서 금1개, 은2개, 동3개를 획득하였다.

또한 86년부터 제주도에서 개최하는 교육감기, 협회장기, 개인선수권, 소년체전 등 4개대회 전체를 석권하기 시작, 그후 이들 대회에서 단 한번의 우승을 놓치지 않고 무려 20연속 종합우승을 기록했다.

특히 전국소년체전에서는 3년(15~17회) 연속 금메달, 4년(14회~17회)연속 메달획득 기록을 세우면서 전체 6개(금3, 은1, 동2)의 메달을 따냄으로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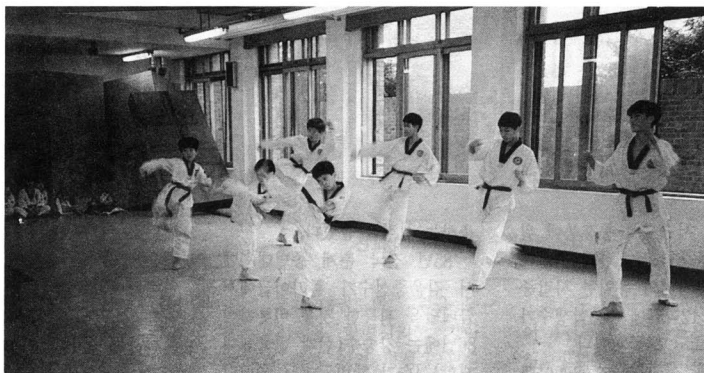
제주소년체육사에 적지 않은 공헌을 했다.

이처럼 화려한 대회성적을 거둔 것은 1년 내내 쉬지않고 훈련하는 선수와 지도교사의 의지가 집결됐기 때문이다. 태권도부 창단 후 7년째 지도를 맡고 있는 김창환체육교사는 『학교수업이 끝난 후 2시간 동안 체력단련 및 정신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서귀포 시내 태권도장의 관장 및 사범들과 같이 기술훈련지도에 임하고 있다.』고 한다. 덧붙여 『전국소년체전이 폐지되면서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어 전국규모대회에 2년 동안 출전하지 못해 다소 아쉬움이 있지만 언젠가 부활되리라 믿으며 더욱 훈련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한다. **태권**

〈제주 정한수 편집위원〉

# “태권도교육으로 비행청소년의 범죄예방 가능”

살레시오 근로청소년회관에서 태권도 지도하는 하태은 중위



영등포구 대림1동에 위치하고 있는 살레시오 근로청소년회관.

평범한 가정에서 자랐으면 대부분 국민학교에 다닐 아이들이는데 부모의 가정불화로 인해 가출하거나 고아원에서의 이탈자, 거리의 부랑아 등이 수용되어 있는 곳이다.

근로청소년회관은 이렇게 가정에서 소외된 청소년들을 맡아 낮에는 이들이 자립할 수 있는 목공기술을 가르치고 밤에는 학교와 같이 검정고시를 볼 수 있도록 학과목이 설정되어 있다.

규칙적인 생활 속에서도 학과목 선택은 자유로운데 이중 태권도를 배우는 학생은 30여명.

교사들은 주로 대학원생이나 대학생들로 무보수로 지도하고 있는데 이들 중 체육과목을 맡고 있는 하태은 중위는 경희대 태권도학과를 졸업한 태권도인.

그는 현재 ROTC 장교(중위)로 한양대학교 학군단교관(훈육관)이며 한양대 태권도부 코치도 겸하고 있어 바쁜 일정속에서 월요일 저녁 8시부터 9시까지 태권도를 지도하고 있다.

『이곳에 있는 어린이들을 잘 교육시킨다면 청소년 비행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주로 가정불화 등 가정에서 소외된 만큼 성격상 단순하면서도 거친 경우가 많습니다. 이들에게 태권도의 도교육을 알기쉽게 반복교육을 시키는가운데 정신을 순화시켜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태권도의 실기만을 차치 잘못 가르치면 이들이 폭력의 수단으로 사용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아이들을 대하면 더욱 더 태권도 정신을 강조하게 됩니다.』

아렇게 태권도를 지도하며 이 아이들로 하여금 좀 더 바른 인간형성을 가꾸어 주도록 노력하는 하태은 중위는 태권도 교육시 실기이전에 정신수양 10분, 태권도 실기수련 30분, 실기후 정신수양 10분을 배정하고 있다고 하는데 무엇보다도 정신교육은 『마음을 비우고 도장문을 열고 들어와야 한다』고 강조한다.

마음을 비우는 것은 사람의 마음 속에 있는 탐욕, 불만, 거짓등을 다 버린 뒤 신성한 마음 자세를 갖는 것이라며 태권도인이 흰색도복을 입는 이유가 바로 마음을 신성하게 비우기 위함이라고 한다. 그리고 인사하는 법, 옷을 접는법, 신발정리등을 시키며 가장 기본적인 생활도덕부터 가르친지 1여년이 지나는 동안 『청소년들의 마음이 따뜻해진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들과 같은 열악한 환경의 청소년에게 태권도교육을 시킨다면 범죄예방이 가능하다

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고 한다.

이는 하태은 중위 한사람만의 생각이 아니다.

다른 과목의 교사들과 원장으로 계신 노승피 신부도 『아이들이 많이 변했다.』며 긍정적인 평가를 보내고 있다.

지난 89년 3월부터 태권도를 지도해 왔는데 그동안 3차례의 승품심사를 실시하였다. 2달전인 10월 27일에는 이곳의 아이들과 독산동 군인아파트의 태권도 수련생들이 함께 품새와 겨루기를 하며 자매결연을 맺었다.

『아이들이 환경은 달라도 같이 태권도를 수련한다는 것 때문에 금방 동질감을 느끼며 좋아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들간에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따뜻한 마음이 오고간다면 앞으로 더욱 좋아질 것이라고 봅니다.』

이렇게 청소년에게 태권도교육을 통해 좀 더 밝은 사회를 만



하태은씨

드는데 남다른 노력을 기울이는 하태은 중위는 『태권도 지도자들이 엄청나게 많이 배출되었다는 점에서 일선 지도자들의 영향력은 막강하다고 봅니다. 태권도 사범들이 소외된 아동들을 대상으로 교육시키는데 조금만 더 관심을 갖게 된다면 그것 자체가 사회를 밝게 하는 가능이라고 봅니다. 다만 이러한 아동일수록 인내심을 갖고 쉽고 재미있게 반복교육을 지속적으로 시킬 수 있도록 남다른 준비를 해야할 것 입니다.』고 했다. **태권**



**태권도 사범들이 소외된 아동들을 대상으로 교육시키는데 조금만 더 관심을 갖게 된다면 그것 자체가 사회를 밝게 하는 가능성이라고 봅니다. 다만 이러한 아동일수록 인내심을 갖고 쉽고 재미있게 반복교육을 지속적으로 시킬 수 있도록 남다른 준비를 해야할 것 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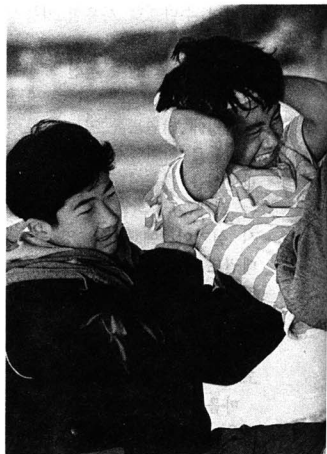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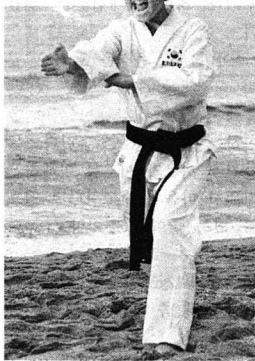
# 태권도 소년의 기상높인 영화「코리언 보이」 봄방학 때 개봉

한국의 전통무예인 태권도 수련 소년을 주인공으로 한 영화 「코리언 보이」가 신영기업에 의해 제작되어 개봉을 앞두고 있다.

주인공 강혁진 역을 맡아 실제 태권도의 기술을 보여주고 태권도 소년의 기상을 펼쳐보인 김진수는 현재 태권도 3품으로 서울 보광국민학교 6학년에 재학중인 어린이이다.

「코리언 보이」는 중학교 진학을 앞둔 주인공 강혁진이 허약한 체질에 공부에만 전념하는 나약한 어린이였으나 할아버지의 맥을 이어 태권도를 연마하는 삼촌에게 태권도를 전수받아 강인한 면모를 갖게 되면서 불의에 대항하고 세계무술대회에 나가 일본의 가라데, 홍콩의 쿵후, 미국의 복싱, 태국의 킥복싱 선수를 차례로 누르고 태권도가 승리하게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코리언 보이」를 제작한 임선 감독은 『한국의 전통무예인 태권도 수련 소년을 통하여 폭력과 갈등으로 오염된 기성사회에 경각심을 불러 일으키고 동심의



**허약한 체질에  
공부에만 전념하는  
나약한 어린이가  
태권도를 배워 강인한  
면모를 갖게 되면서  
불의에 대항하고  
세계무술대회에 나가  
승리하게 된다는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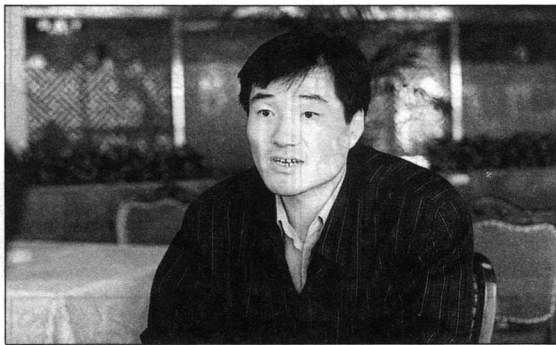
어린이들에게 한국적인 뿌리를 깊이 심어주는 가운데 밝고 힘찬 기상을 심어주려했다」고 기획의도를 밝혔다.

제작사인 신영기업은 『이 영화를 세계시장에 수출, 세계속에 한국인의 이미지를 높이고 '92바르셀로나올림픽선수촌에 기증, 태권도 홍보에도 기여하겠다』는 포부를 보였다. **FA21**

# 모로코에 태권도의 정신과 기술을 심고 5년만에 영주 귀국

## “아랍권에선 처음으로 여자태권도선수 육성”

김상천사범



『모로코에도 이젠 태권도의 뿌리가 튼튼히 내렸습니다. 올해 전아랍선수권대회에선 이집트·요르단 등과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로 실력이 향상되어 종합3위라는 괄목할만한 성적을 냈습니다. 지난 5년간의 태권도 지도가 어느 정도 성과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니 이젠 물러날때가 되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외무부 파견으로 '85년 7월에 모로코로 나가 태권도를 보급해온 전세계채택인 김상천사범이 만 5년만에 영구 귀국했다.

모로코 체육부 태권도협회 수

석사범검 대표팀코치였던 김상천사범은 정작 이제부터 국제무대에서 두각을 나타낼 수 있는 시점에서 물러선다는 것이 쉽지 않은 결단이었다고...

모로코 정부로부터 보수인상 등 대우개선의 제의도 있었으나 모로코의 2만여명에 달하는 수련생과 600여명에 이르는 유단자가 배출되어 이젠 모로코인들이 자생력을 키울 수 있도록 자리를 내줄 때가 되었다는 것이 모로코에서의 은퇴를 결심하게 되었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그는 가장 화려한 시기에 은막에서 은퇴한 스타처럼 모로코를 웃으면서 떠나올 수 있었다.

김상천사범은 모로코에서 태권도의 저변확대, 경기력 향상뿐만 아니라 아랍의 문화적 풍토상 격투기종목에서 여자가 선수로 뛰는 것을 상상하기 어려운 지역에서 여자선수를 발굴, 육성시켜 아랍지역에서는 최초로 제1회세계여자선수권대회에 출전시킨 장본인이다.

국민학교 시절, 몸이 약해 태권도를 시작한 김상천사범은 동두천중, 동대문상고, 성균관대 경영학과를 거치며 선수로 활약하는 동안 1979년도와 1982년도에 개최된 제4회 및 제5회 세계선수권대회에서 2연패를 차지하며 국위를 선양한 공로로 16명의 태권도 경기력 향상 연금수혜자 중 한사람이 되었다.

『도복을 벗었을 때는 순한 양과 같고 도복을 입으면 성난 호랑이와 같이 되어야』고 일러준 동두천의 박재철사범을 존경한다는 김상천사범.

그는 해외파견을 원하는 후배들에게 『외국에 나가 돈을 벌겠다고 생각한다면 반드시 실패할 것』이라며 『한국의 태권도를 심겠다는 의지를 갖고 태권도를 지도하는 것이 선행된 뒤에 학업이나 사업을 병행시키는 것이 이상적』이라고 덧붙였다. **태권**



# 태권가족



이향원



아니! 네 처하고 같이 온다더니...?

야속이 어긋났나 봐요



그래 산돌 재미는 어떠냐?

헤~ 나쁘다고야 할수없죠



태권도는 계속열심히 하고...?

에이~ 너님도 참!



결혼했음 그만이지 함들께 그럴 무...

아이고 네가 그렇지...

범외와의 전쟁이 한창인 지금 우리자산을 돌아보게 하는 현장의 화면을 보겠습니다



대로에서 날치기가 여인의 핸드백을 강탈하고 있습니다

어머니!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보고만 있는 어처구니 없는 현장입니다

아! 저런 아저 내가 보던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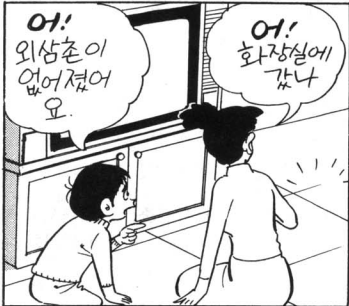
도둑보다 방관하고 있는 이 연결들이 더 분노를 느끼게 하고 있습니다

엄마 거기 외삼촌 아냐

으아



아니! 앤 왜 꼬고 그러니 대키봐



누님,  
천아 부탁이다  
TV에서 본 것  
안본걸로 해주세요.  
진짜 진짜  
태권도 사나이 되어서  
오늘의 오명을 꼭  
벗고야 말 겁니다  
아이고 말겁니다  
참피해!



## 출장은 위험해



**그 편지가  
평국씨의 집에  
배달된 것은 평국씨가  
출장을 다녀오고  
사흘이 지나서였다.**

글 · 유재용  
그림 · 이향원

그 편지가 평국씨의 집에 배달된 것은 평국씨가 출장을 다녀오고 사흘이 지나서였다. 평국씨가 퇴근해서 집에 돌아오니 아내가 편지를 내밀었다.

「어디서 왔지?」

평국씨는 편지를 받아 들며 물었다.

「글쎄요. 어디서 온 편지지는 당신 보다 내가 더 궁금해요」

대답하는 아내의 말투가 예사롭지 않았고 표정도 새침해 보였다.

평국씨는 마음 속으로 고개를 가우뭇해보며 편지 위로 눈길을 옮겼다. 편지의 발신지는 포항이었고, 발신인은 박순옥이었다.

평국씨는 이번에는 마음 속으로가 아니라 드러내 놓고 고개를 가우뭇했다. 포항이라면 그가 며칠 전에 출장 다녀온 곳인데 박순옥이란 이름은 기억에 없었다. 누가 보아도 여자임이 틀림없는 박순옥이란 사람이 과연 누구일까.

평국씨의 머리 속에는 자동적으로 연상작용이 일어나며 몇몇 여자의 얼굴이 떠올랐다. 포항지사에 근무하는 여직원들과 포항지사 남작직원들의 아내로 들었던 술집의 아가씨들이었다.

「어서 뜯어 보세요. 누군지 글씨를 꼭 정성 들여 썼군요」

아내가 말했다. 평국씨는 정신을 가다듬으며 편지를 살펴보았다. 이미 아내가 편지를 개봉해 내용물을 꺼내 보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편지는 봉해진 채였다.

평국씨는 문득 방에 들어가 혼자서 은밀하게 편지를 개봉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지만, 아내의 눈길을 의식하고는 그 자리에서 편지봉투를 열었다. 봉투 속에서 나온 편지지는 낮간지러우면서도 가슴 설레게 하는 분홍색 꽃편지였다.

〈김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우리 집에 다녀가신지 이삼일 밖에 안 되는데 이삼년이 된 것 같아 편지를 띄웁니다. 그리고 우리 집에 처음 다녀가신 손님이신데도 열번 스무번 찾아오셨던 단골손님처럼 여겨져서 이렇게 편지를 띄웁니다. 선생님이 술좌석에서 한마디 한마디 하실 적마다 얼마나 재미있고 우스웠던지 우리는 몇시간 동안 줄곧 배꼽이 빠져 달아날까봐 잔뜩 움켜잡고 있어야 했습니다. 김선생님의 자상하고 따뜻하신 얼굴빛과 음성이 잊혀지지 않아 망서리다가 편지를 써서 띄웁니다. 선생님 주소는 선생님이 술기운에 말씀하신 것을 외워서 적어 놓았습니다. 선생님 사무실 이겠지요? 답장 주시면 반갑고 고맙고 영광이겠습니다. 선생님을 또 뵈을 날이 있기를 손꼽아 기다리겠습니다.〉

#### 포항에서 순옥 올림〉

「이 편지 보낸 사람이 누군지 도무지 생각이 나지 않는 걸」

평국씨는 솔직하게 말했지만, 얼굴이 자꾸만 달아오르려고 했다.

「내가 읽어봐도 되겠어요?」

아내가 말했다. 전에는 남편에게 오는 편지에 간섭하려 하지 않았다. 그러나 출장 뒤의 여자이름 편지해 불안해진 모양이었다. 보여 주지 않겠다고 한다면 쓸데없이 의심을 사게 될 것이었다. 평국씨는 편지를 아내에게 넘겨 주었다.

「정말 이 편지 보낸 여자가 누군지 짐작할 수 없어요?」

편지를 읽고 난 아내가 남편의 얼굴을 뻥히 쳐다보며 물었다.

「정말 모르니까 모른다고 하지 뭐가 대단한 일이라고 거짓말을 하겠어요?」

「당신 포항에서 하루밤 주무시고 오셨어요. 하루저녁에 술집을 몇군데나 돌았지요?」

「별걸 다 묻는군. 두 군데였어」

「겨우 두 군데에 이 편지 보낸 여자를 짐작할 수 없단 말이에요?」

「정말 거짓말 한 게 아니라두.」

보여 주지 않겠다고  
한다면 쓸데없이  
의심을 사게 될  
것이였다.  
평국씨는 편지를  
아내에게 넘겨  
주었다.



**때때로 옆에 앉은  
아가씨에게  
회사이름을 알려 주는  
일은 있었지만  
집주소를 알려 주는  
일은 없었다.  
혹시 두번째 술집에서  
그런 실수를  
저지른 것은 아닐까.**

「편지 곳곳에 그 여자와 당신의 눈길이 마주친 자국이 있는데도요?」  
아내의 의심은 점점 깊어지며 가지를 치고 있었다.

「겪은 대로 낱말이 말하겠소.」

그날 아침 서울을 출발한 평국씨가 도착한 것은 오후 2시였다. 곧바로 지사에 가서 퇴근시간 전에 공무를 끝낼 수가 있었다. 마음 만 먹으면 서울 오는 막차를 탈 수 있는 시간이었다. 하지만 일박이일의 출장 길이었다. 출장지에서 하루밤 묵도록 회사의 허락을 받은 터였다. 이런 경우를 누가 마다 할 것인가.

포항지사의 남자 직원 두 사람이 평국씨가 모처럼 맞게 된 <객지에 서의 하루밤>을 위해 안내자가 되겠다고 자청했다.

당연히 술집이었다. 대부분의 남자들에게 있어서 객지의 하루밤은 술을 빼놓으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대접 하는 사람도 대접 받는 사람도 그것을 상식으로 여겨왔다. 술값이 비싸고 싼 것과 관계없이 색다른 분위기를 지닌 술집에서 술을 마실 수 있다면 특히 융성한 대접으로 평가 되었다.

평국씨가 첫번째로 안내 되어 간 술집에서는 갖가지 생선회가 술안주로 나왔다. 술시중 말시중 들어 주는 아가씨도 셋이나 자리를 함께했다. 평국씨는 술기운이 기분 좋게 몸에 번지는 것을 느끼며 동석한 포항지사 남자 직원들과 술집 집대 아가씨들을 상대로 재담, 만담, 농담을 재간껏 쏟아 놓았다. 그날이라고해서 다른 때 하지 않던 일을 특별히 한 것은 아니었다. 평국씨 뿐 만 아니라 모든 남성들이 술자리에서 취하는 태도였다. 재담, 농담, 만담을 주고 받고 웃음을 터뜨리고...

동석했던 아가씨들도 한마디씩 거들며 웃어대곤 했지만 세명 가운데 누가 막순옥인지 가려 낼 수가 없었다. 그리고 언제 집주소를 가르쳐

주었는지 기억해 낼 수가 없었다. 때때로 술자리에서 옆에 앉은 아가씨에게 회사이름을 알려 주는 일은 있었지만 집주소를 알려 주는 일은 없었다. 한테 어느 틈에 자신의 입으로 집주소를 외워 냈을까.

혹시 두번째 술집에서 그런 실수를 저지른 것은 아닐까. 첫번째 술집에서 열시 쯤 나와 술기운에 휩쓸려 떠나려가듯 두번째로 간 곳은 카페였다. 입가심을 한다며 맥주를 마시면서 두명인가 세명의 아가씨를 상대로 첫번째 술집에서 했던 만담 농담을 재탕했었다. 하지만 두번째 술집에서 만난 아가씨들은 얼굴도 기억할 수 없었다. 하지만 그 어간에서 정신없이 집주소를 털어 놓았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었다.

평국씨가 두번째 술집에서 나온 시간은 자정 쯤이었다. 지사의 직원들이 안내해 준 여관에 방을 정하고는 돌아가겠다는 직원들을 붙잡아 앉히고, 바둑판을 갖다 달래 놓고 바둑을 두다가 쓰러져 잠이 들었다. 그뿐이었다.

「정말 그뿐이에요?」

묻는 아내의 음성은 한결 누그러져 있었다.

「맹세코 그것 뿐이오」

「당신, 집에서는 농담 한마디 안 하시면서 술집아가씨들 앞에서는 대단한 재담가가 되시는가 보군요?」

「아, 그게 아니야. 술기운에 싱거운 소리 하는 거지.」

그것으로 아내는 물러 앉았다. 평국씨는 아내 앞에서 편지를 찢어 버렸다. 박순옥이라는 여자가 누구일까, 하고 여전히 궁금해 하면서…

이튿날 아침, 평국씨가 출근한 뒤, 평국씨의 아내는 포항에 사는 친구에게 시의전화를 했다.

「…순옥아, 편지해 줘서 고마와. 우리 평국씨 말야. 가정에 충실한 남편이란단. 단지 예방주사 한방 놓아 드린것 뿐이야……」 **태권**



### 유재용

- 1936년 강원도 김화출생
- 1965년 조선일보 신춘문예 동화당선
- 1968년 『현대문학』에 소설 『商地帶』로 추천완료
- 1980년 현대문학상, 이상문학상 수상
- 1982년 대한민국문학상수상
- 1985년 조연현 문학상수상
- 1987년 동인문학상수상

### ■ 주요작품집

『꼬리달린 사람』, 『聖域』, 『관계』, 『누님의 消像』, 『聖河』, 『침묵의 땅』 등

「…순옥아, 편지해  
줘서 고마와.  
우리 평국씨 말야.  
가정에 충실한  
남편이란단.  
단지 예방주사 한방  
놓아 드린것  
뿐이야……」

# 어린이태권도교육이 I.Q와 학업성적에 미치는 영향



김석련  
서울 대성중학교교사

중학생을 대상으로 태권도 수련자와 비수련자와의 지적능력과 학업성적면을 비교한 본 논문은 태권도인의 평균지능지수가 비수련생보다 5점이상, 성적면에서도 평균 3점 이상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태권도의 교육적인 가치를 규명했다고 볼 수 있다.

여기에서는 지면관계상 본 논문을 요약해서 신는다. <편집자주>

## I. 서론

동방 예의지국의 철학적 사상을 바탕으로 많은 어려움 속에 발전해 온 우리 민족 고유의 전통 무예인 태권도는 배달 민족의 뜻깊은 자랑거리이다.

우리 민족을 통해서 지구촌의 약 120여개국에 널리 보급되어 온 태권도는 오늘날 각종 국제 대회를 통하여 한국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느끼게 하고 있다.

이제 한국이 세계적인 태권도의 중주국이라는 차원에서 볼 때 태권도에 관한 과학적인 연구와 더불어 학술적인 가치와 우수성을 인정받아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종래의 기능 위주와 결과 중심적이면서 지시적, 권위주의적인 지도 방법에서 탈피하여 사회 체육의 일환으로 교육적 가치성을 인정받는 태권도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그래서 진정한 무예 정신을 되살리고 심신 양면의 효과적인 지도 방안

을 모색하기 위한 교육적 프로그램의 연구 개발에 박차를 가해야 할 때라고 본다.

따라서 본 연구자는 우리나라 태권도 수련 인구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어린이들이 중학교에 진학한 후 태권도 수련자와 비수련자와의 지적 능력과 학업 성적면의 비교에 있어서 어떠한 차이가 발생하는가를 알아 봄으로써 태권도의 가치성을 규명하고 이를 통한 보다 효율적인 태권도 지도 방안 연구에 도움이 되고자 본 연구에 착수하게 되었다.

## II. 연구방법

### 1. 연구 대상

연구 대상은 서울 대성중학교 1학년 재학생 15개 학급으로 4년간에 걸쳐 60개 학급의 3255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그 내용과 출신 국민학교별 분포도는 (표-1), (표-2)과 같다.

(표-1) 연구대상

〈단위:명〉

년도별	유 단 자				비유단자	대상인원
	1품	2품	3품	합계	합 계	년도별합계
1987	66	20	7	93	767	860
1988	70	35	14	119	706	825
1989	86	35	7	128	670	798
1990	72	34	6	112	660	772
합 계	294	124	34	452	2803	3255

(표-2) 연구 대상 인원의 출신 국민학교 분포도

번호	학교명	1987	1988	1989	1990	계
1	충 암	4	0	3	0	7
2	갈 현	225	329	350	351	1255
3	구 산	48	79	35	18	180
4	늑 번	40	2	5	3	50
5	대 은	49	6	4	46	105
6	금 화	0	0	1	1	2
7	대 조	79	150	74	73	376
8	미 동	1	0	0	1	2
9	북 가 좌	1	0	0	2	3
10	북 한 산	37	24	6	20	87
11	불 광	9	6	22	12	49
12	상 신	5	1	1	0	7
13	신 도	131	84	90	80	385
14	안 산	0	0	1	1	2
15	역 촌	44	5	6	4	59
16	연 가	0	0	0	1	1
17	연 신	12	13	45	31	101
18	연 은	0	1	0	1	2
19	연 천	0	0	10	9	19
20	은 평	31	8	7	7	53
21	창 천	1	0	1	0	2
22	홍 제	0	0	1	1	2
23	대 성 동	0	0	1	0	1
24	명 지	0	1	2	2	5
25	선 일	55	55	46	48	204

번호	학교명	1987	1988	1989	1990	계
26	예 일	38	22	26	21	107
27	은 혜	37	33	40	34	144
28	서울사대부속	0	0	0	1	1
29	창 덕	0	0	0	1	1
30	매 동	0	0	0	1	1
31	서 빙 고	0	0	0	1	1
31	신 용 산	0	0	0	1	1
33	금 북	0	0	1	0	1
34	홍 연	0	0	1	0	1
35	신 자	0	0	1	0	1
36	장 평	0	0	1	0	1
37	은 석	0	0	1	0	1
38	고 은	0	0	2	0	2
39	신 북	0	0	2	0	2
40	신 사	1	2	3	0	6
41	인 황	0	2	2	0	4
42	홍 익	1	0	0	0	1
43	홍 은	2	0	0	0	2
44	이대부속	0	0	1	0	1
45	경 기	1	0	0	0	1
46	용 암	1	0	0	0	1
47	덕 수	2	0	0	0	2
48	리 라	1	0	0	0	1
49	홍 제	1	0	0	0	1
50	승 곡	1	0	0	0	1
51	상명사대부속	0	1	0	0	1
52	대 동	0	1	0	0	1
53	독 립 문	1	0	0	0	1
54	신 명	0	0	1	0	1
55	삼 양	0	0	1	0	1
56	경 회	0	0	1	0	1
57	용 산	1	0	1	0	2
58	제 동	0	0	1	0	1
59	상 도	0	0	1	0	1
	계	860	825	798	772	3255



## 2. 연구 기간

본 연구의 기간은 1986년 12월부터 1990년 8월 까지 약 4년간에 걸쳐 조사분석 하였으며 그 내용은 (표-3)과 같다.

(표-3) 연구 기간

연구 일정	연구내용 및 절차
1986. 12~2월	연구계획수립
1987. 3~4월	학급별 태권도 유단자 조사 지능검사(I.Q.) 통계자료분석 학기말 학급별 개인평균 성적 통계자료분석
1988. 5~6월	
1989. 7~8월	
1990.	
1990. 8.15~20일	년도별 통계자료 처리 및 비교분석
8.20~30일	보고서 작성

## 3. 연구 방법

서울 시내에 거주하는 59개 국민학교를 졸업한 학생들 중 서울D중학교에 진학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매년 학기 초에 태권도를 국민학교 시절 1년 이상 수련하여 국기원에서 발행한 공인 품증을 소지하고 있는 유단자 학생들을 확인 조사하여 수련 군으로하고, 태권도를 배우지 않은 학생들을 비교 군으로하여 학교에서 매년 실시하는 지능지수(I.Q.)검사 자료와 학기말 학급별 성적 일람표를 근거로하여 4가지 항목으로 나누어 비교 분석 하였으며 항목별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학년 1학기 초에 매년 실시 하는 지능지수(I.Q.)검사 자료를 비교 분석하였다.
- 매년 실시하는 학기말 전과목 개인 평균 성적을 비교 분석 하였다.
- 지능지수(I.Q.)와 개인 평균 성적을 일반적 개념인 최우수, 우수, 보통, 보통이하의 4그룹으로 각각 나누어 비교 분석 하였다.
- 지능지수와 전과목 개인 평균 성적을 전체 및 년도별로 비교 분석 하였다.
- 태권도 유단자군과 비유단자군의 지능지수와 전과목 개인 평균 성적의 자료를 이용하여 그 유의성을 검정 하였다.

## 4.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에서는 연구방법 측면에서 다음과 같

은 제한점을 가지고 착수 하였다.

- 1) 본 연구의 조사 대상은 서울특별시내 소재하고 있는 D중학교 1학년에 재학중인 학생으로 태권도 유단자 학생들과 비유단자 학생들로 구분하여 연구 분석 하였다.
- 2) 본 연구는 태권도 유단자와 비유단자로 구분해서 대한 사립학교 연합회에서 검인정한 지능지수(I.Q.)검사 자료와 학교에서 실시하는 학기말 전과목 개인 평균 성적 자료를 4년간에 걸쳐 동일 조건하에서 비교 분석 하였다.
- 3) 조사 대상 학생 중 자료 처리 분석이 곤란한 일부 학생은 제외 되었다.

## III. 연구 결과 및 고찰

전체적 개인 지능지수(I.Q.) 비교 분석 결과 1987년 부터 1990년 까지의 4년간에 걸쳐 총 60개 학급의 3255명의 중학교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태권도 유단자군 452명, 비유단자군 2803명을 구분하여 년도별 개인 지능지수와 전 교과과목에 대한 학기말 개인 평균 성적을 비교 분석한 것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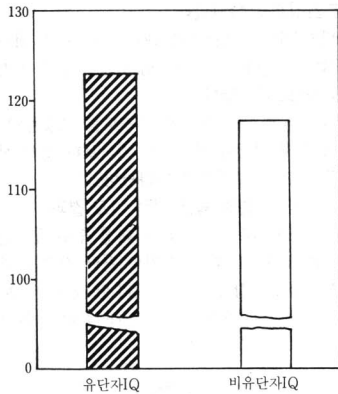
### 1) 전체적 개인 지능지수 비교 결과

(표-20)에서와 같이 연구 대상 인원 총 3255명 중 태권도 유단자 수가 452명(13.89%)으로 이 중 1품이 294명(9.03%)으로 1인 평균I.Q.122.79, 2품인 학생이 124명(3.81%)으로 121.67, 3품인 학생이 34명(1.05%)으로 129.85의 1인 평균I.Q. 분포를 나타냈다.

(표-20) 전체적 지능지수 비교

내 용	대상인원수	I.Q. 총점	1인평균 I.Q.
1품	294	36099	122.79
2품	124	15087	121.67
3품	34	4415	129.85
유단자전체	452	55601	123.01
비유단자전체	2803	330417	117.88

I.Q



(그림-1) 유단자군과 비유단자군 지능지수 비교

이 결과로 볼 때 태권도 수련자들의 지능지수가 1품과 2품인 학생들은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으나 3품인 학생들은 1품과 2품인 학생들에 비해 월등히 I.Q.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452명의 유단자군 평균 지능지수는 123.01로, 비유단자군은 117.88로 나타나 국민학교 시절에 태권도를 수련해서 유단자 품증을 취득한 학생들 집단이 태권도를 수련하지 않은 학생들 집단보다 1인 평균 I.Q.가 5.13점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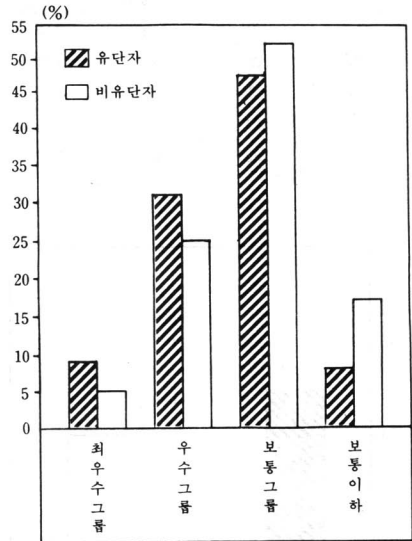
## 2) 전체적 그룹별 지능지수 비교 결과

(표-21)에서와 같이 연구 대상 인원 총 3255명 중 최우수 그룹(I.Q.150이상), 우수 그룹(I.Q.130~149), 보통 그룹(I.Q.100~129), 보통이하 그룹(I.Q.99이하)의 4가지로 분류하여 비교 하였다.

최우수 그룹은 총 유단자 수 452명 중 42명(9.2%), 비유단자 수가 총 2803명 중 133명(4.74%)으로 나타났다, 우수 그룹은 유단자 수가 141명(31.19%), 비유단자 수가 701명(25.01%), 보통 그룹은 유단자 수 216명(47.79%), 비유단자 수 1497명(53.41%), 보통이하 그룹은 유단자 수 53

(표-21) 전체적 그룹별 지능지수 비교

I.Q구분	유단자	%	비유단자	%
최우수그룹 150 이상	42	9.29	133	4.74
우수그룹 130~149	141	31.19	701	25.01
보통그룹 100~129	216	47.79	1497	53.41
보통이하 99 이하	53	8.53	472	16.84
합 계	452	100	2803	100



(그림-2) 그룹별 유단자군과 비유단자군 지능지수 비교

명(8.53%), 비유단자 수 472명(16.84%)으로 각각 나타났다.

이 결과로 볼 때 최우수 그룹에서는 태권도 유단자군이 비유단자군에 비해 4.55%(2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우수 그룹에서도 역시 유단자군이 비유단자군에 비해 6.18%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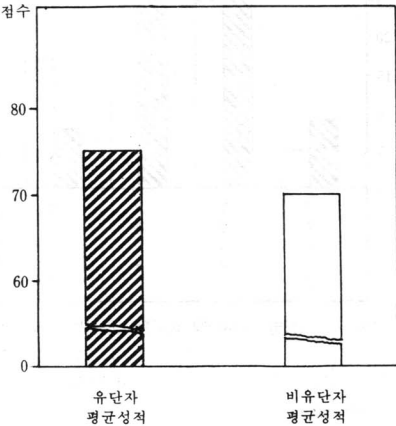
반면 보통 그룹과 보통이하 그룹에서는 비유단자군이 유단자군에 비해 5.62% 8.31%(2배)가 각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3) 전체적 학기말 개인 평균 성적 비교 결과

(표-22)에서와 같이 유단자 총 452명을 대상으로 태권도 수련 경력별 1품, 2품, 3품으로 구분하여 학기말 전과목 개인 평균 성적을 비교한다. 유단자 전체 평균 점수와 비유단자 전체의 평균 점수를 비교 분석하였다.

(표-22) 전체적 학기말 평균성적 비교

내 용	대상인원수	개인평균성적총합	1인 평균성적
1품	294	22212	77.55
2품	124	9252	74.61
3품	34	2625	77.21
유단자전체	452	34089	75.42
비유단자전체	2803	201119	71.75



(그림-3) 유단자군과 비유단자군의 평균성적 비교

태권도 유단자 중 1품인 학생 수는 294명으로 유단자 전체의 65.04%로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였고 학기말 평균 점수는 77.55점, 2품인 학생 수는 124명(27.43%)으로 평균 74.61점, 3품인 학생

수는 34명(7.52%)으로 가장 적었으며 평균 점수는 77.21점으로 나타났다.

유단자 수 총 452명에 대한 1인 평균 성적은 75.42점, 비유단자 수 총 2803명의 평균 성적은 71.75점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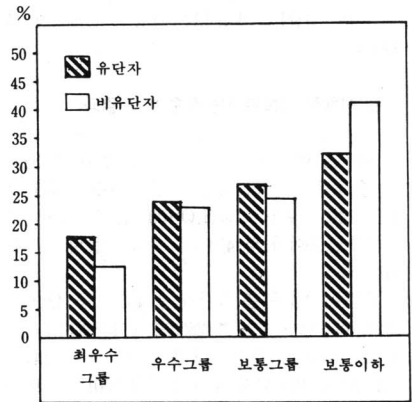
따라서 국민학교 시절에 태권도를 오랫동안 수련한 유단자 집단이 비수련자 집단보다 평균 성적 3.67점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4) 전체적 그룹별 평균 성적 비교 결과

(표-23)에서와 같이 연구 대상 인원 총 3255명 중 전 교과목에 대한 학기말 평균 점수를 최우수 그룹(90점 이상), 우수 그룹(80-89점), 보통 그룹(70-79점), 보통이하 그룹(69점 이하)의 4가지로 구분하여 비교하였다.

(표-23) 전체적 그룹별 평균성적 비교

그룹별 성적 구분	유단자	%	비유단자	%
최우수그룹 90점 이상	79	17.48	333	11.88
우수그룹 80~89	107	23.67	652	23.26
보통그룹 70~79	120	26.55	663	23.65
보통이하 69점 이하	146	32.30	1155	41.21
합 계	452	100	2803	100



(그림-4) 그룹별 유단자군과 비유단자군의 평균성적 비교

태권도 유단자 수 총 452명 중 최우수 그룹은 79명(17.48%), 비유단자 수 총 2803명 중 333명(11.88%)으로 나타났고, 우수 그룹에 속하는 유단자 수는 107명(23.67%), 비유단자 수 652명(23.26%), 보통 그룹에 해당하는 유단자 수는 120명(26.55%), 비유단자 수는 663명(23.65%), 보통이하 그룹은 유단자 수가 146명(32.30%), 비유단자 수가 1155명(41.21%)으로 각각 나타났다.

이 결과로 볼 때 최우수 그룹과 우수 그룹 및 보통 그룹에 속해 있는 학생들은 태권도를 수련한 유단자군이 비유단자군에 비해 5.6%, 0.41%, 2.9%가 각각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보통이하 그룹에서는 비유단자군이 유단자군 보다 무려 8.91%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VI. 결론 및 제언

### 1. 결론

본 연구에서는 서울 시내에 거주하고 있는 59개 국민학교를 졸업한 학생들 중 서울 D중학교 1학년에 진학한 학생들을 1987년-1990년까지 4년간에 걸쳐 연구 조사하였다.

총 60개 학급 3255명을 연구 대상으로하여 학교 기원에서 공인된 태권도 유단자 품증을 소지하고 있는 학생들을 조사하여 태권도 수련군으로 하고, 품증을 소지하고 있지 않은 학생들을 비수련군으로 분류해서 대한 사립학교 연합회에서 검인정한 지능지수(I.Q.)검사 자료와 학교에서 매년 실시하는 학기말 전과목 개인 평균 성적일람표 자료를 가지고 비교 분석해 본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1) 1인 평균 지능지수(I.Q.) 비교에 있어서 태

권도 수련군이 비수련군 보다 5.13점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 그룹별 지능지수(I.Q.) 비교에 있어서 I.Q. 150이상인 최우수 그룹에서는 태권도 수련군이 비수련군 보다 두배나 높은 비율을 나타냈으며 지능지수 99이하인 보통이하 그룹에서는 태권도 수련군이 비수련군에 비해 절반 가량 적은 비율로 나타났다.

3) 개인 평균 성적 비교에서는 태권도 수련군이 비수련군 보다 평균 점수 100점 만점당 3.67점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4) 그룹별 개인 평균 성적 비교에서는 개인 평균 점수 90점 이상인 우등생 그룹에서 태권도 수련군 수가 비수련군 수 보다 47.14%정도 많은 비율을 나타냈으며 평균 69점 이하인 보통이하 그룹에서는 태권도 비수련군이 수련군 수 보다 27.59%가 더 많은 비율로 나타났다.

### 2. 제언

어린 시절의 태권도 수련이 지능지수 발달과 성적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본 연구의 결론으로 미루어 볼 때 이는 분명 교육학적인 가치가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앞으로 다각적인 측면에서 보다 폭넓게 태권도의 가치성을 규명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며 교육적인 효과를 보다 증대시키기 위해 태권도 연구 관계 기관에서는 정신적 신체적으로 잘 조화된 교육적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여 모든 태권도 수련장에서 훌륭한 지도자를 통한 일관성 있는 지도가 이루어질 때 태권도 발전에 더욱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태권**

# 태권도 教授技能으로서 피이드백 제공과 기술분석



손천택  
인천대 스포츠과학 연구소장

## I. 머리말

운동기능의 지도에 필요한 가장 중요한 教授技能(teaching skill)은 선수들의 운동수행을 관찰·분석하고 적절한 피이드백을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이다(Morton, 1989). 선수들의 성공적인 학습은 그들의 스포츠기능 수행을 분석하고 바람직한 운동결과에 보다 더 가깝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적절한 피이드백을 제공할 수 있는 코치의 능력에 달려있다. 한편 선수들은 코치가 제공하는 피이드백 정보를 통해서 자신의 실제적인 운동수행과 기대되는 바람직한 준거와의 불일치를 감지하게 된다. 즉, 피이드백은 선수들의 운동수행에 대한 현실적 반응과 기대되는 바람직한 반응을 연결하는 결정적 고리의 기능을 하게되며 이것의 前過程(purcursor)이 기술분석이다.

이처럼 운동기능의 학습에 필수불가결한 피이드백이 코치의 운동기술 분석능력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이 분야에 대한 연구가 거의 이루어 지지 않고 있으며 교사교육 프로그램을 포함한 대부분의 체육지도자 양성기관 역시 교수기능으로서의 스포츠 技術分析(skill analysis)의 중요성을 아직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체육지도자들은 전통적인 역학과 바이오메카닉스 과목을 통해서 기술분석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생각 해 왔으며 그러한 가정은 태권도 지도자 양성 기관을 비롯한 대부분의 체육지도자 양성기관에서 똑같이 적용되어 역학이나 바이오메카닉스가 중요한 이론과목으로 선정되어 가르쳐 지고 있다. 역학과 바이오메카닉스 모두 체육교사나 코치들에게 신체의 구조와 기계적 기전에 관한 중요한 지식을 제공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전형적인 교수 또는 코칭상황에서 일어나는 스포츠 기능을 분석하는 능력을 길러 주는 데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Kniff, 1985). 교육학적 역학(pedagogical kenisiology)의 선구자인 Hoffman(1977)은 현재 체육지도자 양성기관에서 가르치고 있는 역학은 그 분야의 학문적 기초지식을 쌓기 위한 우수한 과정은 될 수 있지만 코치나 체육교사들이 선수나 일반학생들의 운동수행을 분석하는데 필요한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에는 부적합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기술분석에 대한 量的 分析(quantitative analysis)이 운동기능을 가르치는 체육교사나 코치들에게서 요구되는 분석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실험적 증거가 아직 제시되지 않고 있다(Hay, 1973; Hoffman, 1974; Locke, 1972).

역학에서는 보다 복잡하고 세련된 장비와 고도의 기술발달을 통해서 인간의 움직임임을 임상적으로 또는 양적으로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반면 스포츠교육학(sport pedagogy)은 운동수행에 관한

質의 分析(qualitative analysis)을 요구한다. 그런데 운동기능의 지도상황에서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운동수행을 관찰하고 평가해야 하는 현장의 코치들이 실제로 필요로 하는 것은 운동기술에 관한 질적 분석능력이다. 그러므로 코치들은 체계적인 훈련과정을 통해서 선수들의 운동반응을 확인해서 진단할 기회를 제공 받아야 한다. 왜냐하면 정확한 분석적 관찰은 적절한 피이드백을 놓고 이러한 과정의 반복은 바람직한 교수결정을 가져오며 그 결과 질적 코칭(quality of teaching)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모든 정상적인 학습환경은 학습자의 운동수행을 향상시키기 위한 지도자의 분석, 진단, 그리고 처방을 필요로 하며, 진단과 처방은 관찰기술에 의존하고 관찰기술은 다시 학습자에게 제공되는 피이드백의 질과 구체성을 지원한다. 기능수행에 관한 분석이 이루어지고 이어서 피이드백이 제공되며 이를 통해 학습자는 다음에 일어날 반응을 지도하는 정보를 얻게 되는 것이 과제 전달 후의 일반적 교수-학습 과정이다. 이처럼 피이드백은 운동과제의 교수에 없어서는 안될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므로 이러한 교육학적인 능력을 소유하지 않은 체육지도자는 그들의 일차적 책임인 학습자들의 기능 발달을 돕는 일을 충실히 이행하지 못할 것이다(Siedentop, 1983).

따라서 본고의 목적은 : 1) 교수-학습과정에서 피이드백 제공의 중요성과 효과적인 피이드백 제공의 특징을 강조하고; 2) 피이드백 제공의 선행 조건으로서 기술분석과 피이드백 제공과의 관계를 모델로 제시하여 체계화된 설명으로 요약 함으로써; 3) 일선 코치들의 피이드백 제공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태권도 지도자 훈련 프로그램 운영자들의 기술분석 훈련의 필요성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는데 있다.

## II. 技能學習과 피이드백

선수들의 기능학습이 진행되고 있는 동안 코치가 그들을 위해서 봉사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기능 중의 하나는 그들의 운동수행에 대한 피이드백을 제공하는 것이다. 피이드백은 선수들이 자신의

운동수행에 관해서 받는 정보로서 기술습득을 위한 필수불가결한 구성요인이다(Rink, 1985). 이와 관련하여 Bird & Rikli(1983)는 “운동기능의 학습에 영향을 미치는 두가지 가장 중요한 요인은 피이드백의 형태와 연습환경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연구과제나 집필테스트가 갖지 않은 운동기능을 지도하는 체육교사나 코치들로서는 학생이나 선수들이 운동을 수행하고 있는 동안 또는 그 직후에 그들의 운동수행에 관해서 제공하는 피이드백은 교육자로서 그들의 책무성과도 직결되는 중요한 교수행위이다.

피이드백은 결과에 대한 지식을 제공하는 것 뿐만 아니라 집단지도 상황에서 감독의 기능을 하기도 한다. 만약 코치가 어떤 선수에게 주의를 보낼 경우 그 선수는 물론 그 주위의 다른 선수들까지도 진행중인 과제에 보다 열중하게 된다. 특히 구체적인 내용적 피이드백(content-related feedback)은 선수들이 그들의 코치가 자신들의 반응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도와주는데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의지의 표시가 될 수도 있으므로 과제지향적이고 생산적인 학습환경을 조성하는 데에도 크게 도움이 된다.

선수들의 과제종사행동과 운동반응의 극대화를 위해서는 최소한 다음의 다섯가지 피이드백과 관련된 특징들이 고려되어야 한다(Van Houten, 1980). 피이드백을 제공할 때마다 다섯가지 특징모두를 사용할 필요는 없으며 환경에 따라 가장 적절한 수준의 특징을 선택하여 사용하면 선수들을 위한 효과적인 피이드백을 제공할 수 있다.

### 1. 즉각적인 피이드백 제공

지연된 피이드백보다는 운동수행 직후에 제공되는 피이드백이 학습에 더욱 효과적이다. 지연된 피이드백은 코치가 선수들이 기술상의 오류를 수정하기 전에 잘못된 기술을 여러차례 연습함으로써 그들이, 특히 기술습득의 초기에, 정확한 기술을 배우는 것을 어렵게 하는 단점이 있다. 뿐만 아니라 선수들이 관련된 운동을 수행하지 않을 때 피이드백이 제공될 경우 그들이 실제로 그 피이드백을 필요로 하는 다음 순간이 그것을 유용한 정

유능한 코치는 긍정적이고  
구체적인 피이드백을 개인차를 고려하여  
즉각적으로 가능한 자주 제공함으로써 선수들의  
학습효과를 극대화 해야하며 이러한 활동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고도의 기술분석 능력을 겸비해야 한다.

보로 사용하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므로 피이드백은 최소한 선수들이 다음 반응을 시작하기 전에 제공되어야 하며, 일반적으로 기술 습득의 초기단계에서는 매 운동반응 후에 피이드백을 제공하는 것이 효과적이며 숙달단계에서는 간헐적 피이드백(intermittent feedback)이 보다 효과적이다.

## 2. 정확한 피이드백의 제공

일반적으로 피이드백은 정확하면 할수록 유용하다. 피이드백의 내용이 정확하면 할수록 그것에 비례해서 학습율이 증가한다. 정확한 피이드백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운동수행의 결과에 대한 양적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것은 일선의 코치나 사범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다. 수련생들에게 단순히 “돌려차기가 좀 빨라진것 같애.” 또는 “앞 뒤 발의 간격이 너무 넓어” 등과 같은 일반적인 피이드백 정보를 제공하는 대신에 “분당 돌려차기 횟수가 어제보다 2개나 증가했어!” 또는 “앞뒤발의 간격이 너무 넓었는데 이제 어깨넓이로 잘 유지되는군” 등과 같이 구체적인 피이드백을 제공함으로써 정확한 피이드백 제공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이처럼 구체적으로 수량화 할 수 있는 내용의 피이드백을 제공할 때 적은 양의 기술 향상까지도 확인하여 자신의 기술향상을 깨닫지 못하고 그로인해 연습에 대한 부정적 감정을 가질 수 있는 기술발전이 느린 선수들에게까지 용기를 주어 지속적인 성장을 독려할 수 있다.

## 3. 차별적 피이드백의 제공

차별적 피이드백은 선수들이 이전보다 향상된 반응을 수행할 때 그들에게 제공되는 피이드백이며 이것은 매 운동수행 후 계속적으로 제공되는 피이드백과는 달리 기술이나 체력의 향상에 관해서 제공되는 특징이 있다. 피이드백에 관한 이러한 접근은 모든 선수들이 코치로부터 피이드백을 제공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된다는 장점이 있다. 왜냐하면 모든 선수들이 주어진 과제에 적극적인 참여를 하는한 매일 최소한의 기술향상이 일어나므로 코치들은 그러한 결과에 대한 피이드백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차별적 피이드백이 계속적인 피이드백보다 유리한 점은 그것이 선수들의 성취에 절대수준에의 도달 보다는 향상을 강조한다는 것이다. 즉 기능이 우수한 선수나 기능의 발달이 느린 선수 모두 똑같이 자신이 정한 목표를 달성함으로써 코치로부터 똑같은 인정의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만약 피이드백이 기능의 절대수준을 만족시키는 선수들에게만 부여된다면 기능이 낮은 선수나 초기의 기술발전이 느린 선수들은 코치로부터 칭찬이나 다른 외적 보상을 받을 기회가 거의 없어 곧 훈련에 대한 흥미를 상실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차별적 피이드백은 두가지 형태로 제공된다. 첫째는 선수들의 운동수행이 전날보다 향상된 것을 발견하여 피이드백 제공의 자료로 사용하는 경우이며, 둘째는 선수들의 운동수행이 이전의 최상의 수행보다 향상 되었을 때마다 그 결과에 대해 피이드백을 제공하는 경우이다.

## 4. 잦은 피이드백의 제공

피이드백은 제공이 잦으면 잦을수록 선수들의 기술발달 속도는 그만큼 빨리 진행된다. 특히 기능습득의 초기단계에서는 가능하다면 선수들에게 정확하게 즉각적인 피이드백을 자주 제공하는 것이 좋다. 이처럼 각 시행에 대해서 피이드백을 제공함으로써 정확한 동작은 강화하고 부정확한 동작은 약화시켜 선수들이 효과적으로 바람직한 동작을 습득하도록 도와줄 수 있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는 매 운동수행에 대해 피이드백을 제공하는 것이 불가능 할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선수들이 보다 일관성있게 과제에 종사할 수 있도록 불예측의 무작위 피이드백을 제공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 5. 긍정적인 피이드백의 제공

마지막으로 코치들은 기능이나 체력의 향상에 대해서만 피이드백을 제공할 것인지 아니면 실패에 관해서도 피이드백을 제공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피이드백은 그것이 긍정적인 성격을 띠 때 최대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선수들의 잘못된 점만을 지적하는 것 보다는 그들이 행한 정확한 동작이나 행동에 대해서도 피이드백을 제공함으로써 기능의 수행에 필요한 보다 많은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선수들이 코치의 긍정적인 피이드백을 통해서 자신이 수행한 정확한 동작을 이해함으로써 그들 자신의 판단에 근거한 부정확한 동작의 실행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잘못된 동작에 대한 지적으로 그칠 경우 그것을 정확하게 수행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

긍정적인 피이드백은 그것을 제공받는 사람의 기분을 유쾌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제공하는 사람을 좋아하게 됨으로써 코치와 선수들간에 긍정적인 일체감(rapport)을 형성하게 하는데도 크게 도움이 된다. 반면, 부정적인 피이드백은 그러한 정보를 받는 자신과 그것을 제공하는 사람에 대해서 적개심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피이드백보다 생산적이지 못하다.

완전한 긍정적 피이드백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선수들의 운동수행 결과에 대해서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는 또다른 형태의 피이드백이 코칭-학습과정에서 자주 사용되고 있으며 이것이 교정적 피이드백이다. 교정적 피이드백은 잘못된 동작이나 행동을 지적하고 그것의 올바른 수행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단순히 잘못된 동작을 지적하는 것보다는 그것의 올바른 실행방법을 전달하는 교정적 피이드백의 제공이 선수들의 기능학습에 훨씬 효과적이다. 게다가 운동수행의 바로 직전에 제공되는 교정적 피이드백인 학습유도(prompting)는 교착된 잘못된 동작을 제거하는 데 매우 효과적이다(Alba, 1972).

## Ⅲ. 피이드백과 技術分析

교정적 피이드백의 前過程으로서 학습자의 반응을 정확하게 관찰하는 능력은 가장 중요한 교수 기능이며서도 체육수업에서 가장 소홀하게 취급되어온 분야이다.(Imwold & Hoffman, 1983)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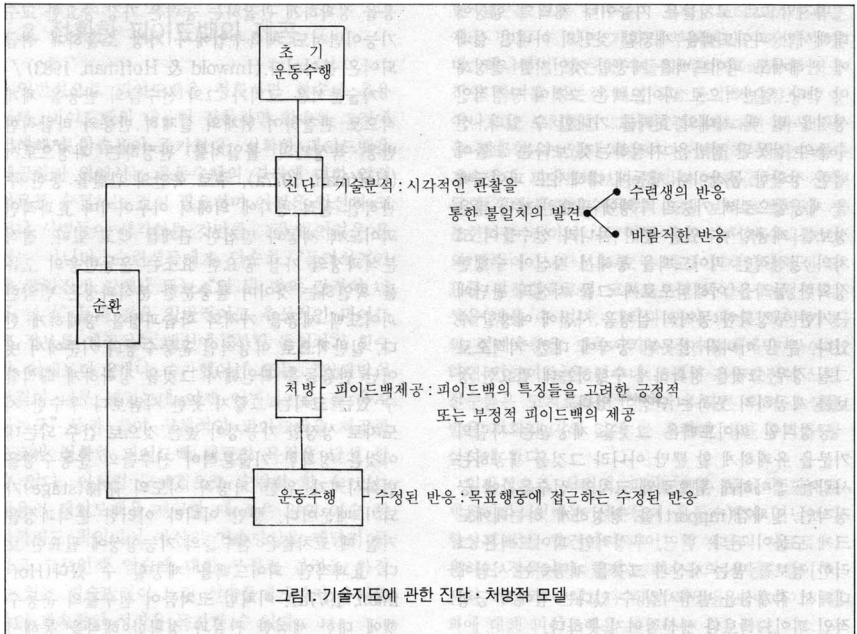
기술분석은 코치가 그의 선수들의 반응을 체계적으로 관찰하여 현재의 실제적 반응과 바람직한 반응 특성과의 불일치를 판정하는 과정으로서(Hoffman, 1977a), 주로 육안의 관찰을 통한 주관적인 질적 평가에 의해서 이루어지며 효과적인 피이드백 제공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질적 분석과정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운동반응의 오류를 확인하는 것이며 불충분한 분석과정은 빈약한 피이드백 제공을 가져와 학습과정을 방해하게 한다. 일반적으로 이상적인 운동수행의 기준에서 벗어난 반응들을 확인해서 그것을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는 코치는 그렇지 못한 사람보다 우수한 지도자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간주 되는데 이것은 정확한 기술분석이 선수들의 운동수행을 변화시키기 위한 처방적 시도의 階梯(stage)가 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분석과정을 거칠 때 코치들은 선수들의 기능향상에 필요한 보다 효과적인 피이드백을 제공할 수 있다(Hoffman, 1977a). 이처럼 코치들이 선수들의 운동수행에 대한 세심한 관찰과 정확한 해석을 통해서



**효과적인 태권도 선수지도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코치들로 하여금  
선수들의 현재의 반응과 기대되는 바람직한 반응을  
변별적으로 정확하게 관찰하고 해석하는 능력과 그것을 통해서  
얻은 다양한 피드백 정보를 선수들에게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의사전달 기능을 길러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기술분석) 그들의 운동수행에 대한 정확한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은(피드백 제공) 효과적인 운동기능 습득의 촉진을 위해서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변수이다(그림 1).

그림 1에서와 같이 효과적인 학습을 위해서는 기술분석에 기초한 구체적인 피드백이 자주 제공되어야 한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코치들이 이것을 실행에 옮기지 못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두가지 이유는 피이드백 레프트리(repertoire)와 기술분석 능력의 결여에 있다(Armstrong, 1984). 즉, 체육지도자들이 피이드백을 자주 제공하지 못하는 것은 피이드백을 제공하는데 필요한 적절한 의사전달 기능을 갖추지 못하거나 구체적이고 정확한 피이드백의 제공에 필요한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기술분석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효과적인 태권도 선수지도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코치들로 하여금 선수들의 현재의 반응과 기대되는 바람직한 반응을 변별적으로 정확하게 관찰하고 해석하는 능력과 그것을 통해서 얻은 다양한 피이드백 정보를 선수들에게 정확하게 전달 할 수 있는 의사전달 기능을 길러 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 V. 결 어

모든 학습환경은 학습자의 수행을 향상시키기 위한 분석, 진단, 처방을 필요로 한다. 이처럼 학습자의 수행을 분석적으로 관찰하고 그 결과에 따른 적절한 피이드백을 제공하는 것은 주지과목에서는 물론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반응을 신속하게 분석해서 그 결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하는 운동학습 상황에서는 더욱더 절실하다. 태권도 코치들을 포함한 모든 체육지도자들의 일차적인 책임은 학습자들이 주어진 과제를 가장 효율적으로 학습하도록 도와주는 것이며 이러한 책무성을 충실

하게 수행하는데 필요한 가장 중요한 교수기능은 그들의 운동수행에 定性的으로 분석해서 적절한 피이드백을 제공하는 것이다. 즉, 유능한 코치는 긍정적이고 구체적인 피이드백을 개인차를 고려하여 즉각적으로 가능한 자주 제공 함으로써 선수들의 학습효과를 극대화 해야 하며 이러한 활동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고도의 기술분석 능력을 겸비해야 한다.

피이드백 제공과 기술분석 능력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왜 아직 대부분의 체육지도자 프로그램들이 이들 분야에 대한 관심을 소홀히 하고 있는가? 이것은 대부분의 코치 및 체육지도자들과 그들의 지도를 담당하는 전문가들이 그들이 전통적인 역학이나 바이오메카닉스 수업을 통해서 교육학적 기능으로서의 기술분석 능력을 향상 시킬 수 있다고 믿어왔기 때문이다(Locke, 1972). 효과적인 코칭-학습에 필요한 피이드백 제공과 기술분석 능력은 전통적인 역학이나 바이오메카닉스 수업을 통해서 자연적으로 습득될 수 있는 교수기능이 아니라 체계적인 교육학적 훈련을 통해서 획득되는 중요한 교수기능의 한 요소이다. 그러므로 유능한 지도자를 지향하는 태권도 코치들과 그들의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태권도 관계 전문가들은 교수기능의 이러한 측면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더불어 구체적인 프로그램 구성에 진력해야 할 것이다. **태권**

# 고단 승단자 및 경기대회 입상자

## 심사

### 3차고단자(6~9단)승단심사 (9.8, 국기원)

#### ▲서울

6단: 신천수 김춘배 안정웅  
7단: 정태경 박흥신 이해명  
황영갑

8단: 이상구 신영익

#### ▲부산

6단: 강경남 김병호  
7단: 최상준

#### ▲대구

6단: 이병섭

#### ▲인천

6단: 박수복 이용환

#### ▲경남

6단: 최상균

#### ▲전북

6단: 박영진 신진홍 김동진  
8단: 서정운

#### ▲경북

6단: 박위조 고상구  
7단: 김상일

#### ▲강원

6단: 사정욱  
7단: 최홍련

#### ▲경기

7단: 박익규 양대석  
8단: 문익근

#### ▲충남

8단: 양준복

#### ▲연맹

7단: 이승구

## 교육

### 2급 경기지도자 교육 (10.23~11.10, 국기원지도자 연수원)

#### 수료자명단(총72명)

남준모 이종행 천상철  
최원국 이석신 조형훈  
김성환 박재룡 공구식  
김홍기 안낙준 이종영  
김종원 이종조 천희  
전현상 신창화 김재영  
이진표 남경준 이영현  
양일증 이종현 홍성학  
신보영 고재봉 황기너  
정대영 백성호 안희옥  
성현제 이정호 박운서  
강동건 엄대유 윤창옥

정찬우 안재영 채현석  
박행록 여태성 허련  
한만성 김영신 우기조  
성인호 전언식 김공신  
정영준 이영 박문순  
채상만 최광현 박철  
이재수 구지현 박정선  
공철국 김용강 조태현  
현승철 김춘일 남동우  
김상수 민경인 홍석규  
염관우 장완성 김형만  
조성철 박종용 박주용

## 국내대회

### 제13회 연맹회장기타기 전국대학대학 태권도대회

(9.28-29, 국기원)

#### (단체상)

#### ▲남자부

우승(한체대)  
준우승(경희대)  
3위(동아대)  
감투상(경기대)

최우수선수상: 서보훈  
(한체대)

우수선수상: 이안호(경희대)

지도자상: 문원재(한체대)

▲여고부

우승(상명여대)

준우승(경희대)

3위(성신여대)

감투상(동명전대)

우수선수상: 양인덕

(상명여대)

지도자상: 권혁중

(대한체육과학대)

(남자부)

▲핀급

1위: 서보훈(한체대)

2위: 유성호(체과대)

3위: 맹성재(경희대)

지재기(동아대)

▲플라이급

1위: 김동은(조선대)

2위: 박기찬(동아대)

3위: 심성구(동아대)

이상화(인천전대)

▲밴텀급

1위: 조기현(경희대)

2위: 이안호(경희대)

3위: 정재정(계명대)

최현열(체과대)

▲페더급

1위: 강창모(동아대)

2위: 김병갑(한체대)

3위: 조규식(청주대)

성의천(제주대)

▲라이트급

1위: 이재범(경기대)

2위: 박춘길(관동대)

3위: 하태경(한체대)

윤정욱(경희대)

▲웰터급

1위: 신광수(한체대)

2위: 박종상(경상대)

3위: 강승수(한체대)

이현석(동아대)

▲미들급

1위: 김제경(동아대)

2위: 이성훈(한체대)

3위: 김병기(조선대)

강철규(계명대)

▲헤비급

1위: 김봉근(경희대)

2위: 최상진(경희대)

3위: 최정주(경상대)

한종일(경기대)

(여자부)

▲플라이급

1위: 장이숙(상명여대)

2위: 이화진(경희대)

3위: 배은정(성신여대)

최인숙(인천전대)

▲밴텀급

1위: 박동선(성신여대)

2위: 추난률(한체대)

3위: 차현영(체과대)

정유경(상명여대)

▲페더급

1위: 박진경(상명여대)

2위: 박추경(동명전대)

3위: 박선영(경희대)

윤 희(한체대)

▲라이트급

1위: 이현화(경희대)

2위: 정은우(상명여대)

3위: 석소정(체과대)

김미영(체과대)

▲웰터급

1위: 고재경(성신여대)

2위: 이성미(상명여대)

3위: 박혜영(경희대)

류설아(체과대)

▲미들급

1위: 양인덕(상명여대)

2위: 장 철(경희대)

3위: 이미라(성신여대)

신영미(체과대)

▲헤비급

1위: 백영미(경희대)

2위: 함선미(동명전대)

3위: 심현숙(성신여대)

제7회 전국체육대회

태권도경기

(10.16~19, 제천농고체육관)

(고등부)

▲핀급

1위: 조영국(풍생고)

2위: 지 환(여수고)

3위: 김봉찬(광주체고)

성태경(청주기공)

▲플라이급

1위: 김현용(서울체고)

2위:곽석근(금천고)

3위: 윤병관(광성고)

이재석(한영고)

▲밴텀급

1위: 박진영(관악고)

2위: 박형식(여수고)

3위: 이상훈(대성고)

이명철(경남체고)

▲페더급

1위: 안홍엽(송림고)

2위: 양재훈(여수고)

3위: 남윤호(금천고)

박기채(경남체고)

▲라이트급

1위: 김광수(풍생고)

2위: 정광채(관악고)

3위: 서병선(부산체고)

박태병(청주기공)

- ▲웰터급  
1위 : 김정규(선인고)  
2위 : 김 호(동성고)  
3위 : 최덕성(전북체고)  
이호섭(경남체고)

- ▲미들급  
1위 : 정시호(대전체고)  
2위 : 주의홍(리라공고)  
3위 : 김학래(전북체고)  
서현구(광주체고)

- ▲헤비급  
1위 : 김형태(광주체고)  
2위 : 김천일(경남체고)  
3위 : 박정태(경상공고)  
안금호(광성고)

(대학부)

- ▲핀급  
1위 : 유성호(체과대)  
2위 : 임재경(청주대)  
3위 : 전수욱(체과대)  
진일남(조선대)

- ▲플라이급  
1위 : 정재정(계명대)  
2위 : 임창섭(경기대)  
3위 : 정동현(한체대)  
박재석(광동대)

- ▲밴텀급  
1위 : 성대중(한체대)  
2위 : 김정훈(동의대)  
3위 : 정태호(제주대)  
조성호(계명대)

- ▲페더급  
1위 : 김성진(한체대)  
2위 : 강창모(동아대)  
3위 : 성의천(제주대)  
양춘열(한체대)

- ▲라이트급  
1위 : 장 혁(한체대)  
2위 : 박세진(경희대)

- 3위 : 심우현(동아대)  
오병철(한체대)

- ▲웰터급  
1위 : 홍문주(동아대)  
2위 : 임태규(청주대)  
3위 : 공두환(경희대)  
장덕훈(조선대)

- ▲미들급  
1위 : 정주석(한체대)  
2위 : 김제경(동아대)  
3위 : 임진남(관동대)  
박종범(한체대)

- ▲헤비급  
1위 : 김재욱(동아대)  
2위 : 이진원(한체대)  
3위 : 임영희(청주대)  
강승수(한체대)

(일반부)

- ▲핀급  
1위 : 박재완(부산협회)  
2위 : 이승욱(현대자동차)  
3위 : 황창훈(웅비체육관)

- ▲플라이급  
1위 : 나광운(광주선발)  
2위 : 김영주(상무)  
3위 : 이종선(강원선발)  
이강희(보령군청)

- ▲밴텀급  
1위 : 지용석(충북협회)  
2위 : 윤 철(전북협회)  
3위 : 권기문(지하철공사)  
박삼홍(진도 임희체육관)

- ▲페더급  
1위 : 이선장(대전 동구청)  
2위 : 유명식(현대자동차)  
3위 : 고정호(지하철공사)  
배상호(청천체육관)

- ▲라이트급  
1위 : 정상민(충북협회)

- 2위 : 정승환(지하철공사)  
3위 : 최연석(제주협회)  
김홍철(상 무)

- ▲웰터급  
1위 : 진정우(상무)  
2위 : 박용웅(상무)  
3위 : 최기선(강원선발)  
이화상(현대자동차)

- ▲미들급  
1위 : 윤순철(경기협회)  
2위 : 차광채(전남협회)  
3위 : 정용석(현대자동차)  
백봉진(광주선발)

- ▲헤비급  
1위 : 이계행(광주선발)  
2위 : 노 신(경기협회)  
3위 : 김영범(강원선발)  
이정진(보령군청)

제 16회 한국국민학교  
태권도연맹회장기타기대회  
(10.26~27, 국기원)

(단체상)

- ▲남자부  
우승(청주서원국교)  
준우승(광희국교)  
3위(성남단대국교)  
장려상(보광국교)  
감투상(거여국교)  
최우수선수상 : 정호열  
(청주서원국교)

- ▲여자부  
우승(강덕국교)  
준우승(성남단대국교)  
3위(보광국교)  
장려상(신석국교)  
최우수선수상 : 김수현  
(강덕국교)

(남자부)

이길배(신석국교)

3위: 김주영(보광국교)

김 원(신석국교)

▲핀급

1위: 이상균(청주서원국교)

2위: 박대회(성남북국교)

3위: 신광범(성남북국교)  
명재진(성남단대국교)

▲플라이급

1위: 정호열(청주서원국교)

2위: 민병석(광희국교)

3위: 이완기(경기서릉국교)  
임치용(신석국교)

▲밴텀급

1위: 황길재(전북성송국교)

2위: 김승철(청주서원국교)

3위: 신희중(인천동암국교)  
신영재(청주서원국교)

▲페더급

1위: 장세용(거여국교)

2위: 강규선(성산국교)

3위: 김정훈(청주서원국교)  
박해창(성남상원국교)

▲라이트급

1위: 이승재(보광국교)

2위: 김병기(성남단대국교)

3위: 구재권(거여국교)  
양순호(청주서원국교)

▲웰터급

1위: 김주연(성남단대국교)

2위: 선명수(금천국교)

3위: 박희철(여수남국교)  
최복철(청주서원국교)

▲미들급

1위: 장순호(쌍문국교)

2위: 김대석(광희국교)

3위: 이용호(남천국교)  
박장순(성남단대국교)

▲헤비급

1위: 조영진(광희국교)

2위: 배언문(보광국교)

3위: 김대중(충남금남국교)

(여자부)

▲핀급

1위: 함성인(성남단대국교)

2위: 조선미(성남동국교)

3위: 김윤경(강신국교)  
장혜영(강덕국교)

▲플라이급

1위: 정득자(신석국교)

2위: 김유미(강덕국교)

3위: 최희순(강신국교)  
김인숙(남천국교)

▲밴텀급

1위: 홍재신(전북성송국교)

2위: 최유리(강덕국교)

3위: 김혜영(강신국교)  
김은혜(거여국교)

▲페더급

1위: 연선주(보광국교)

2위: 최성희(여수남국교)

3위: 황주영(강덕국교)  
박수진(동교국교)

▲라이트급

1위: 임인옥(강덕국교)

2위: 박윤심(경기미금국교)

3위: 이미연(대구수창국교)

▲웰터급

1위: 김수현(전북성송국교)

2위: 전미선(성남단대국교)

3위: 김은주(거여국교)  
김유진(강덕국교)

▲미들급

1위: 김수현(강덕국교)

2위: 반정주(성남단대국교)

3위: 황혜영(보광국교)  
임인옥(강신국교)

▲헤비급

1위: 이현희(성남동국교)

2위: 배은안(여수남국교)

'90년도 전국남녀우수선수  
선발대회  
(11.7~9, 국기원)

남자최우수선수상: 장혁  
(한체대)

여자최우수선수상: 이승민  
(은광여교)

남자부 지도상: 문원재  
(한체대코치)

여자부 지도상: 정혜주  
(은광여교 감독)

(남자부)

▲핀급

1위: 서보훈(한체대)

2위: 박병권(리라공고)

3위: 조영국(풍생고)  
맹성재(경희대)

▲플라이급

1위: 정동현(한체대)

2위: 오영주(상무)

3위: 서성교(한체대)  
장대진(풍생고)

▲밴텀급

1위: 이안호(경희대)

2위: 신상준(청주대)

3위: 김병국(풍생고)  
조기현(경희대)

▲페더급

1위: 장혁(한체대)

2위: 강창모(동아대)

3위: 김병갑(한체대)  
손효봉(경남체고)

▲라이트급

1위: 윤정옥(경희대)

2위: 심우현(동아대)

3위 : 김홍철(상무)  
신경수(보령군청)

▲엘터급

1위 : 홍문주(동아대)  
2위 : 조재춘(인천전대)  
3위 : 이성훈(한체대)  
차광채(상무)

▲미들급

1위 : 윤순철(상무)  
2위 : 김계경(동아대)  
3위 : 공두환(경희대)  
박종범(한체대)

▲헤비급

1위 : 김현일(상무)  
2위 : 노신(상무)  
3위 : 이재영(성균관대)  
김봉근(경희대)

(여자부)

▲핀급

1위 : 장이숙(상명여대)  
2위 : 이순희(대원여중)  
3위 : 문진옥(시온고)  
강선경(인천체고)

▲플라이급

1위 : 이화진(경희대)  
2위 : 강경숙(상명여대)  
3위 : 원선진(효원고)  
김현화(시온고)

▲밴텀급

1위 : 이승민(은광여고)  
2위 : 배은정(성신여대)  
3위 : 정유경(상명여대)  
서연화(천안여고)

▲페더급

1위 : 박진경(상명여대)  
2위 : 양은정(성신여대)  
3위 : 김은이(고양여중고)  
윤 희(한체대)

▲라이트급

1위 : 석소정(체과대)  
2위 : 정은옥(상명여대)  
3위 : 최동현(은광여고)  
이영미(고양여중고)

▲엘터급

1위 : 고재경(성신여대)  
2위 : 방경애(성신여대)  
3위 : 신영미(체과대)  
박경희(고양여중고)

▲미들급

1위 : 장 철(경희대)  
2위 : 박은선(고양여중)  
3위 : 심현숙(성신여대)  
김상순(배성여상)

▲헤비급

1위 : 추수연(은광여고)  
2위 : 김태희(문성여상)  
3위 : 정명숙(공릉중)  
윤현정(문성여상)

2위 : JUAN MORENO  
(미국)

3위 : CIHAT KUTLUCA  
(터어키)  
ALYSON-  
YAMAGUTI(브라질)

▲플라이급

1위 : 김철호(한국)  
2위 : AL-ZOUBI(요르단)  
3위 : KIM(캐나다)  
VILLA(멕시코)

▲밴텀급

1위 : ANGEL ALONSO  
(스페인)  
2위 : YU HUSN CHEN  
(중화대북)  
3위 : DONG WOOK  
(브라질)  
함 준(한국)

▲페더급

1위 : 하태경(한국)  
2위 : KEVIN PADILLA  
(미국)  
3위 : LUCA MASSACCESI  
(이탈리아)  
BEKIR YERLISU  
(터어키)

▲라이트급

1위 : 양대승(한국)  
2위 : TIMOTHY CON-  
NOLLY(미국)  
3위 : ALAA ISMAIL  
(이집트)  
SINAN GONULRAZI  
(터어키)

▲웰터급

1위 : 이현석(한국)  
2위 : LEE(캐나다)  
3위 : KIM(미국)  
NORABUENA(칠레)

---

## 국제대회

---

### 1990년도 월드컵태권도대회 (11.9.-11, 스페인 마드리드)

(단체상)

▲남자부

우 승 : 한국(금5 동3)  
준우승 : 스페인(금2)  
3 위 : 독일(금1)

▲여자부

우 승 : 중화대북(금4)  
준우승 : 한국(금2 은2 동2)  
3 위 : 미국(금2)

(남자부)

▲핀급

1위 : 김인경(한국)

▲미들급

1위 : JUAN SOLIS  
(스페인)

2위 : AMMAR SBEIHI  
(요르단)

3위 : IBRAHIMN OZDEM-  
IR(터어키)  
박은석(한국)

▲헤비급

1위 : OLIVER SCHAWÉ  
(독일)

2위 : JOSE LUIS  
ALVAREZ(스페인)

3위 : PARIS AMANI  
(미국)  
김광섭(한국)

(여자부)

▲핀급

1위 : WU(중화대북)

2위 : TORRES(멕시코)  
유수진(한국)

▲플라이급

1위 : HUT WEN TANG  
(중화대북)

2위 : 진용순(한국)

3위 : RANIA ATIA  
(이집트)

ANITA V. D. PAS  
(네덜란드)

▲밴텀급

1위 : MEI HUA CHEN  
(중화대북)

2위 : 박동선(한국)

3위 : KARIN BERG  
(네덜란드)  
RAQUEL PALACIOS  
(스페인)

▲페더급

1위 : TUNG  
(중화대북)

2위 : MARISCAL  
(멕시코)

3위 : JIMENEZ  
(스페인)  
박선영(한국)

▲라이트급

1위 : 박정희(한국)

2위 : YI AN CHEN  
(중화대북)

3위 : JULIE WERHNYAK  
(미국)  
SHELLEY VETTESE

(캐나다)

▲웰터급

1위 : ARLENE LIMAS  
(미국)

2위 : CORAL BISTUER  
(스페인)

3위 : LI CHIN PAN  
(중화대북)  
GABRIELLE VIGER  
(캐나다)

▲미들급

1위 : 양인덕(미국)

2위 : HUI TING TANG  
(중화대북)

3위 : MARCIA KING  
(캐나다)

JADA MONROE  
(미국)

▲헤비급

1위 : LINETTE LOVE  
(미국)

2위 : SONIA ALVAREZ  
(스페인)

3위 : YVONNE FRANSSÉN  
(캐나다)

백영미(한국) **태권**



# 행사안내

## ▲대한태권도협회

- 2. 9-11: 제4회 "여명의 열흘"이란혁명기념 국제대회 (이란 이스파한)
- 2.22-23: 심판보수교육 (국기원)
- 2.25-27: 심판강습회 (국기원)
- 3.25-30: 전국종별태권도선수권대회 (국기원)

## ▲국기원

- 3. 5-14: 제66기 태권도지도자교육 (국기원)
- 3.16: 1차 6~9단 고단자심사대회 (국기원)

## ▲서울특별시협회

- 1.20: 제346회 1~3품승품심사대회 (국기원)
- 1.20-30: 이태리 어린이 순회시범대회 (이태리)
- 2. 3: 제347회 1~3품승품심사대회 (국기원)
- 2.10: 제159회 1~3단승품심사대회 (국기원)
- 2.24: 제348회 1~3품승품심사대회 (국기원)
- 3. 9: 제1차 4~5단고단자심사대회 (국기원)
- 3. 10: 제349회 1~3품승품심사대회 (국기원)
- 3.20-22: 제11회 교육감기타기초중고단체대항 및 개인선수권대회 및 서울-이태리전선태권도대회 (국기원)
- 3.24: 제350회 1~3품승품심사대회 (국기원)

## ▲부산직할시협회

- 2월: 제1회 승품단심사대회 (구덕체육관)
- 3월: 종별태권도대회 (구덕체육관)

## ▲대구직할시협회

- 2월: 제1차 승품단심사대회 (대구실내체육관)  
심판보수교육 (체육회강당)
- 3월: 종별 겸 제1차전국체전대표1차평가대회 (대구실내체육관)

## ▲인천직할시

- 2월: 승품단심사대회 (실내체육관)
- 3월: 종별개인선수권대회 (실내체육관)

## ▲광주직할시협회

- 1-2월: 체육관 실태조사 및 계몽지도 (도장관리 분과위원회)
- 2. 3: 승품단심사대회

## ▲대전직할시협회

- 1. 5: 태권도임직원신년교례회 (시협회)
- 1.26: 정기대의원총회 (대림관광호텔)
- 3. 2: 정기 임원회의 (시협회)
- 3.24: 제1차 승품단심사 (유성농고체육관)

## ▲경기도협회

- 1.13: 승품단심사대회 (수원실내체육관)
- 2.10: 승품단심사대회 (수원실내체육관)
- 3.10: 승품단심사대회 (수원실내체육관)
- 3.23-24: 경기도소년체전1차선발전 (수원실내체육관)

## ▲충청북도협회

- 3월: 승품단심사대회

### ▲충청남도협회

- 1.20: 대의원총회 (덕산관광호텔)
- 3. 7: 91년도 제1차 승품단심사대회
- 3.15 - 17: 심판강습회 및 보수교육 (대전시 내체육관)
- 3.25: 대천수산고 태권도팀 창단식

- 2월: 목포·동부지역 승품단 심사대회 (목포 대학 실내체육관, 여수진남실내체육관)
- 3월: 제1차 품새보수교육 (태권도훈련장)
- 3월: 전남·목포 동부지역 승품단심사대회 (태권도훈련장·목포 동부지역)

### ▲전라북도협회

- 2월: 승품단심사대회 (전주실내체육관)
- 3월: 전국체전 2차선발전 (전주실내체육관)

### ▲제주도협회

- 1월: 정기대의원총회
- 3월: 제1차승품단심사대회

### ▲전라남도협회

- 1~2월: 도내 일원 부실도장 및 무자격도장 정리
- 1.27: 전남지구 승품단 심사대회 (태권도훈련장)

### ▲강원도협회

- 3. 5: 제1차승품심사대회 (춘천)

### ▲국기원

- 3. 5~14: 제66기 태권도지도자교육 (국기원)
- 3. 16: 제1차 6~9 고단자심사대회 (국기원)

태권도인 여러분께  
삼가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태권도사범으로서 이십여년 간 해외유럽의 서독 오스트리아 그리고 폴란드에서 긍지를 갖고 지도자로 활동하다 지난 해에 영구 귀국하였습니다.

현재는 출판사 <비전>이름아래 무예연구는 물론 낙후된 태권도 문헌문화 창달에 기여하고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 첫 작업으로 저간 <철학적 무예인의 길>제하, 단행본 에세이 / 칼럼집을 감히 상재해 보았습니다.

함께 무예인의 길을 걸으며 바른 태권도인, 바른 태권도문화의 비전을 위해 선후배 여러분의 고견과 격려 그리고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바랍니다.

1990. 12 이 경 명 올림

시간안내

철학적 무예인의 길 이 경 명 저 신국판 203쪽 3,300원

도서출판 비전

부산/ 남부산우체국사서함 54호

전화 051-626-9235

팩시 051-626-9236

# 그러나 우리는 하늘의 해마저 새로 만든다.

김 명 수

어제 우리 머리위에 떴던 해는 너무나 잔혹했다.

어제 우리 머리위에 떴던 해는 너무나 너무나 뜨거웠다.

우리들의 등줄기를 시뻘겁게 불태웠다.

그러나 우리는 하늘의 해마저 새로 만든다.

수많은 가슴으로 다시 만든다.

보아라 오늘 우리가 산등성이에 떠올리는 해는 지난날의 우리들의 함성과 분노가 배어있어 친근하다.

우리들의 뜨거운 염원과 숨결이 담겨있어 다정하다.

어제 우리 머리위에 떴던 해는 우리들의 시선을 가로 막았다.

사랑도 시도 사라져 버렸던 날 어제 우리 머리위에 떴던 해는 너무나 차가웠다.

모든 곡식을 모조리 열렸다.

5월 어느날 목련이 병그린 날 그 목련 봉오리 채 피지도 못하고 얼어서 떨어졌다.

그러나 우리는 새날마저 다시 만든다.

그러나 우리는 하늘의 해마저 새로 만든다.

긴긴밤 견뎌 이긴 우리들 가슴에서 사랑과 시도 다시 살아나고 따스한 햇살과 온기를 우리는 다시 또 우리의 마음에 피어 올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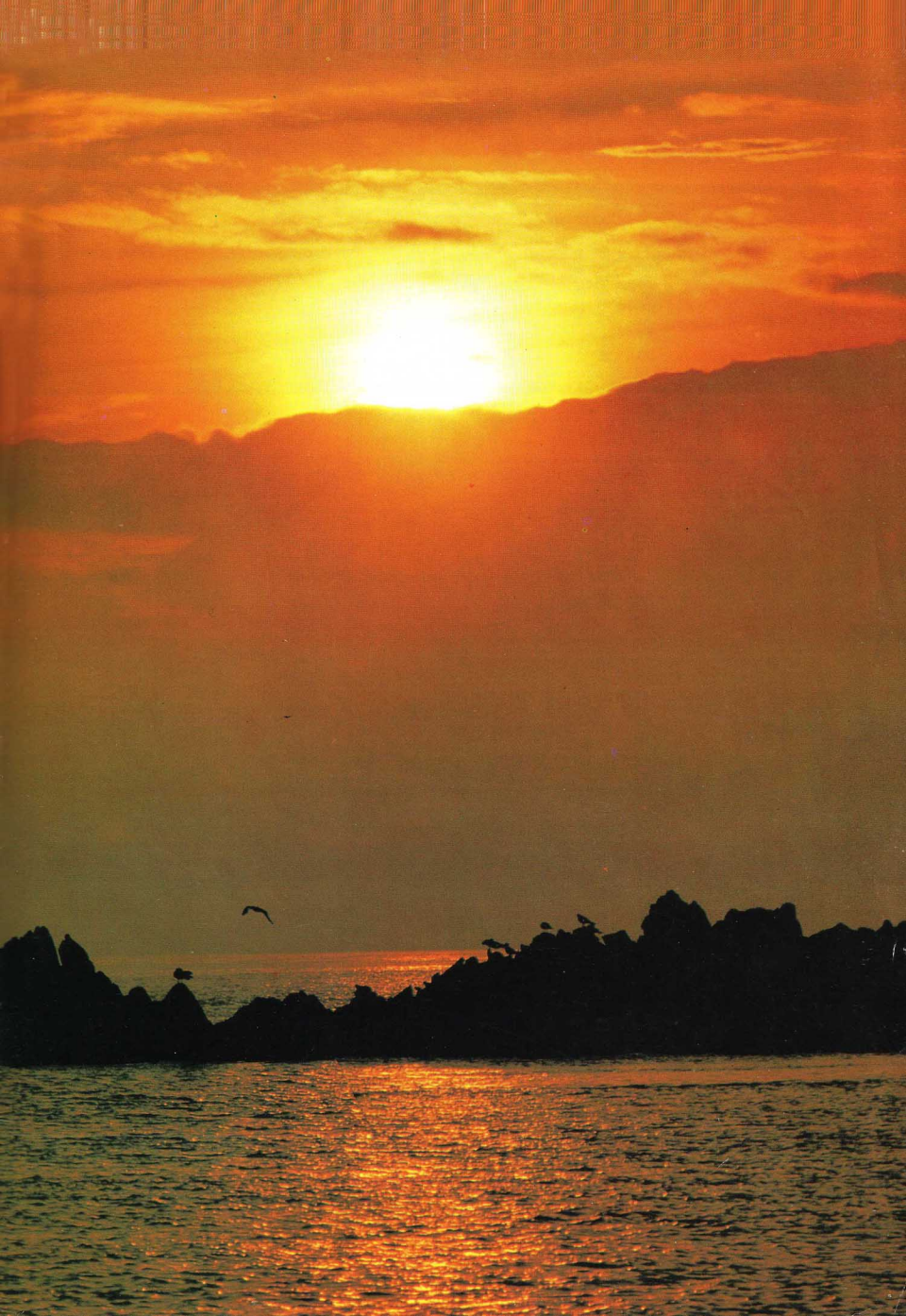
## <시작메모>

새해 아침은 늘상 희망차다. 시간에 시작이 없고 끝이 없다지만, 해가 바뀌고 또 새로 한 해를 맞는 날은 많은 기대가 따른다.

새해에는 모든 이들의 소망이 성취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새로 떠오르는 광명한 해를 가슴에 안고 싶다.

## <작가약력>

- 1945년 경북 안동 출생
- 1977년 서울신문 신춘문에 당선
- 1980년 「오늘의 작가상」수상



회장동정

“서울올림픽이 곧 위대한 올림픽이다”  
 김운옹회장 「위대한 올림픽」 출간

“Seoul Olympics—The Greatest Olympics”

「The Greatest Olympics」 published by Dr. Un Yong Kim, President of KTA.



▲ 12월 21일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많은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출판 기념회가 열렸다.  
 Publishing ceremony was held at Sejong Culture Center on 21st December, 1990.



▲ 김운옹회장은 국기원은 방문한 미국 버클리대학교 총장 켈린티엔씨에게 명예 4단증을 수여했다. (11.24)

Honorary 4th Dan presented to the chancellor of University of California at Bekely.

◀ 소련의 IOC위원이 국기원을 방문, 태권도 시범을 관람하기에 앞서 미동국교이런이에게 꽃다발을 받고 있다.

IOC member in USSR receiving a bouquet.

## 국제대회

# 남자부 4연패!

# 여자부 아시아선수권대회 이어 또 대만에 밀려 준우승 '90 월드컵 태권도대회 (11.9~11, 스페인 마드리드)

4 consecutive men's Champions /  
Women place 2nd to the Chinese  
Taipei team at the Spain World  
Cup.

▶ 이계광단장이 시상식에서 우승컵을  
높이 들어올리고 있다.

Mr. Ke Kwang Lee, head of Korea  
team, holding aloft the victory cup.



▲ 남자부는 금5, 동3개로 종합우승을 차지했다.

Men's team won the overall title with 5 golds and 3 bronze medals.

▶ 여자부에서 금메달의 영광을 차지한 라이트급 박정희(인천체고)와 미들급 양인덕 (상명여대).

Two women gold medalists from Korea.



## 국내대회

# 서울 10연패 달성 충북 주최도로서의 면모 과시하며 2위

제 71 회 전국체전 태권도 경기  
(10.16~19, 충북 제천 농고체육관)

Seoul city Taekwondo team's  
10th consecutive championship at the 71st National Sports Festival.



▲ 시상대에 오른 서울, 충북, 경남의 대표들이 우승컵과 상장을 높이 들어 올리고 있다.

Seoul city was 1st, Choongbuk 2nd and  
Kyungnam 3rd.



◀ 15개시도에서 358명의 선수가 참가하여 열전을 펼쳤다. 이번 대회에는 공개 계체기와 신형메트 등을 사용해 호평을 받은 반면, 경기장 질서문란 행위가 계속돼 태권도의 위신을 실추시켰다.

358 contestant from 15 cities competed.

# 올해의 남녀 최우수선수 선발

'90년도 전국 남녀 우수선수 선발대회  
(11.7~9, 국기원)

This year's best player Tournament.

영광의 얼굴 한체대의 장혁선수와 은광여고의  
이승민 선수

Two players were selected as this year's  
outstanding players.



▲ 우승의 고지를 향해 갈고 닦을 기량을 발휘하는 어린이들  
Children competing

# 청주서원·서울 강덕 남녀종합 우승차지

제16회 연맹회장기 전국국민  
학교대회(10.26-27, 국기원)

Sewon primary school from Chungju and  
Kangduc school from Seoul are victories at the  
16th National Primary school TKD tournament.



▲ 노회덕 대학연맹부회장 (서울대교수) 이 한체대 문원재코치에게 지도상을 수여  
하고 있다.

Korean College of Physical Education coach presented with a victory cup.

# 한체대·경희대· 동아대의 각축전

제13회 연맹회장기  
전국대학대학대회 대회  
(9.28-29, 국기원)

Korean College of physical Education, Kyunghee  
university and Donga university competing at the 13th  
University Federation's Flag competition.





## 제 1회 소련컵대회 개최

The 1<sup>st</sup> USSR Taekwondo  
Championships.

◀ 소련에서 최초로 세계연맹이 주관하는 태권도대회가 개최되었다. 이 대회에는 15개 공화국에서 162명의 선수가 참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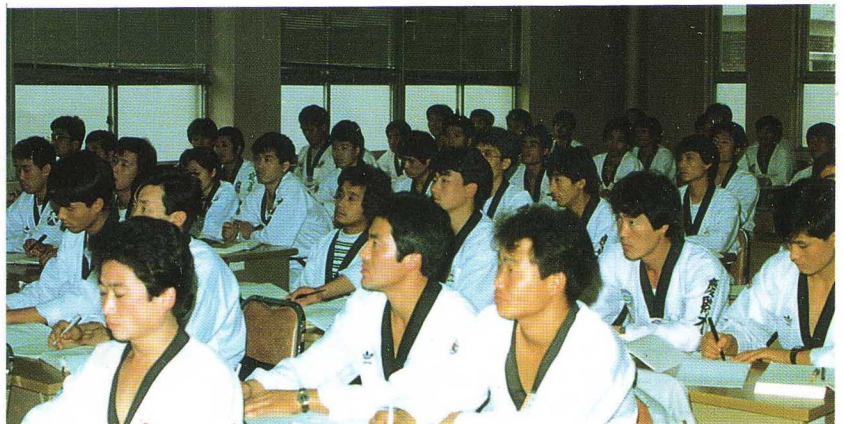
The 1<sup>st</sup> USSR Taekwondo championships which was supervised by the WTF attracted 162 competitors.

## 2급 경기지도자 교육

Second Grade Competition  
management course

▶ 10월 23일부터 11월 10일까지 국기원에서 실시한 2급 경기 지도자 교육에서 총 72명이 수료했다.

72 people participated in the education at the kukkiwon



## 국제 심판 보수교육 실시

International Referee Refresher course

▶ 세계연맹은 국내의 국제심판에게 개정된 경기규칙의 해설과 심판수신호 실기 등을 내용으로 보수교육을 실시하였다. (12.17~20, 국기원)  
The course included the Competition Rule amended by the WTF as well as the new hand signals.



## 제 3·4기 생활체육 지도자 교육

Sport for All Education

▶ 김봉식 연수원부원장은 3급 생활 체육지도자 교육에 참가한 교육생들에게 알찬 교육의 수강으로 우수한 지도자의 역할을 담당해달라고 당부했다. (12.3~15, 국기원)

Vice-president Kim Bong Shik addresses the course participants.



## 지도자 교육

Instructor Course

▶ 11월 20일부터 12월 1일까지 2기에 걸쳐 시행된 지도자교육(64·65기)에는 413명이 수료했다.

Last November's Instructor Training saw the participation of 413 Participants.

